

[Cover Page]

하나님의 부르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여성 목회자들의 이야기

조세핀 벤톤

[p.2]

Available from

AdventSource

5040 Prescott Avenue

Lincoln, NE 68506

1-800-328-0525

www.adventsource.org

Copyright © 1990 by Josephine Benton

Revised © 2002 *AdventSource*

All rights reserved

지은이: 조세핀 벤톤

옮긴이: 하옥경

표지 디자인: 크리스티 슈발리에

교열 담당: 제리 린 로게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스털 그레거슨

배치: 크리스티 슈발리에

성경 인용문은 별도의 출처가 없는 한 제임스왕 역(KJV)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국협의회 기독교 교육부에서 1946 년, 1952 년, 1971 년 저작권을 가진 개정표준역(RSV) 성경의 성경 인용문은 허가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따옴표로 표시된 성경 인용문(NIV)은 국제성서공회에서 1973 년, 1978 년, 1984 년 저작권을 가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존더반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번역자 주: 이 책의 모든 성경 인용문 번역은 개역개정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표지 사진 위쪽부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같이 서적을 판매하던 세 친구 거트루드 사이프, 조지아 고이, 엘레노어 노먼과 함께 한 미니 사이프 목회자.

무명인

미시간 주 배틀 크릭에서 열린 1901 년 대총회 회기에서 설교하는 엘렌 지 화잇.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의 허가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ISBN# 1-57756-099-X

발행처: 미국

[p.3]

목차

여는 글	"제가 아는 여성 목회자가 있어요."5
1 장	설교해 달라는 권고를 받음: 헬렌 메이 스탠튼 윌리엄스9
2 장	농부의 아내에서 전도자로: 미니 데이 사이프23
3 장	입법 기관을 위한 목회자: 톨루 화이트먼49
4 장	혁신적 행정가: 안나 나이트61
5 장	목회자들의 전도자이자 교사: 제시 와이즈 커티스75
6 장	그 작은 검은 책: 메리 E. 월시85
7 장	교회 설립자: 엘렌 하몬 화잇95
8 장	과거의 다른 여성 목회자들: 약력105
9 장	현역 및 은퇴 여성 목회자들: 간략한 예115
10 장	"누가 능히 ... 금하리요.": 성서적 비유131
닫는 글	미래의 정신135
부록 A	문서와 주석139
부록 B	여성 목회자들의 부분적 명단155
부록 C	대총회 의사록, 1881 년과 1990 년163

[p.4]

목회의 즐거움을 처음 알게 해 주신

부모님께

A. C. 그리핀 목사와 사모

감사의 글

이 책에 소개된 여성들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 녹음 테이프, 전화, 사진 덕분에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꺼이 도움을 준 분들의 일부는 각주에 이름을 언급해 놓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컬럼비아 유니온 대학의 동료들은 큰 도움을 주었다: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만 들자면 성인 저녁 프로그램 사무소, 교무처장 및 입학처, 와이즈 도서관 등이다.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한 그렉 잉그램과 데이비드 라이트는 친절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주었다.

대총회 기록보관소 직원 중 특히 버트 할로비악은 즐겁고 유익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리뷰 앤 헤럴드 도서관에서는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앤드류스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미니 사이프의 자서전을 빌릴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아트 하우크는 나의 웅(번역자 주: 미국의 Wang Laboratories, Inc. 제의 사무용 컴퓨터 • 통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취급) 컴퓨터에서 워드 퍼펙트를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소중한 친구와의 추억을 고맙게 생각한다.

데이비드와 조 버킷은 웅 WP 내용을 워드 퍼펙트로 전환하고 통합기술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내 가족은 소중한 제안을 해주고 모든 면에서 지원해 주었다.

[p.5]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여는 글

"제가 아는 여성 목회자가 있어요."

나는 1973년 6월에 열린 포토맥 합회 캠프 미팅 중 도서 전시회의 북적이는 복도에서 N. R. 다우어 목사와 만났다. 그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목회부장이었다. 포토맥 합회 위원회에서는 방금 나에게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부목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로 여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우어 목사는 특유의 상냥한 어조로 내게 물었다. "조세핀, 제가 한 여성분 밑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당황한 탓에 질문을 많이 할 수 없었다. 나는 간신히 이렇게 적었다. "다우어 목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제시 와이즈 커티스의 지도 아래 목회 인턴을 했다." 나중에 그 쪽지를 보던 나는 궁금증이 생겼다. "이 여성 목회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녀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나는 몇 달 후에 슬라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손님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제가 아는 여성 목회자가 있어요!" 그녀는 나만 독특하게 여성 목회자가 아니라는 점을 장담했는데, 그녀의 시누이도 재림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누이의 목회 신임서를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가족이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보내주겠다고 한 기타 자료와 함께 사본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전했다. 그렇게 해서 제시 와이즈 커티스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나는 1980년대에 커티스 부인의 가족 여러 명을 인터뷰했고, 커티스 부인이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스에 세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곳에서 그녀가 개종시킨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이렇듯 유능하고 헌신적이면서도 겸허한 지도자를 알게 되어 가슴이 설렘다(5장).

1974년에 인사이트 잡지 편집장에게 아래 제목으로 보낸 편지를 읽은 나는 또 다른 여성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진정한 여성 설교자

저는 우리 교단에서 여성 목회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1900년대 초에 미니 사이프 부인이라는 안수 목사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셨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최근에 보내신 편지를 인용합니다:

[p.6]

"1908년에 아이오와 주 하워든에서 사이프 부인을 만났지. 그때 재림교회의 신앙을 처음 접했단다. 그분은 목회자셨어. 그분의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장막집회에서는 찬양도 인도했지. 내가 기억하기로 그분은 힘 있는 강연자셨어." ...

--토마스 E. 더스트, 워싱턴 주 콜빌.

"진정한 여성 설교자," 인사이드(1974년 5월 7일): 2-3.

나는 연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던 1908년 연감에서 아이오와 합회의 목회자들 중에 미니 사이프를 찾았다. 미니가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1908년에 인준 목사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더욱이 그 해에도 아이오와 합회에 G. R. 호킨스 부인이라는 또 다른 여성 인준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혹시 다른 합회에도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가 있었는지 궁금해진 나는 1908년 연감을 대충 훑어봤다. 그러다가 노스다코타 합회의 인준 목사들 중에서 베르타 조르겐센 부인을 찾게 되었다. 대총회에서는 E. G. 화이트 부인이 안수 목사로, H. H. 하스켈 부인이 인준 목사로 나온다. J. S. 화이트먼 부인은 캘리포니아 합회의 안수 목사 목록에 있다.

화이트 부인과 화이트먼 부인은 어떻게 안수 목사 목록에 있었는지 자연스레 의문이 든다. 내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최선을 모은 정보는 엘렌 화이트를 다룬 7장과 룰루 화이트먼을 다룬 3장에서 찾을 수 있다. 1908년에 여성 여섯 명이 목회자로 기재된

점을 알게 되어 놀랐던 나는 다른 연감을 찾아보았다. 누가 봐도 여성을 지칭하는 이름만 골라서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대총회 기록보관소 직원이 이 목록을 작성했는데, 부록 B를 살펴보면 보완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완성본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분야에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나는 일부 여성 목회자들의 몇몇 정보를 유리조각처럼 모으게 됐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빛나는 조각과 다채로운 조각을 모아서 오랫동안 활발히 목회를 했지만 그 역사가 대체로 잊혀진 여성들의 카메오 색유리를 점차 만들어 갔다.

1 장부터 7 장을 살펴보면 여러 여성들의 목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8 장에서는 그 밖의 여성 전도자와 목회자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9 장에서는 현직 혹은 은퇴 여성 목회자 그룹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 장에서는 성경의 비유를 고려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감안하여 미래를 살펴보는 쪽으로 결론을 짓는다.

나는 세 가지 목적을 마음에 두고 이 책을 썼다:

1. 이 여성 목회자들이 도전과 위기의 때에 헌신하는 모습과 더불어 각자 목회로의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을 통해 독자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감을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p.7]

2. 현재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여성들은 길을 터준 이 용감한 여성들을 보면서 삶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3. 1970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획기적인 산물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교단 조직의 기본 요소로 여성 목회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깨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여성 목회자들은 그 수가 적었음에도 수많은 개종자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며 탁월한 사역을 해 나갔다. 현재 재림교회 여성 목회자들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p.8] blank page

[p.9]

와트 목사는 몬태나에 온지 얼마 안 된 나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며 강하게 권고하기 시작했다. 나의 첫 활동을 본 와트 목사와 윌리엄스 씨는 모두 아주 흡족하게 여겼다.

-----헬렌 윌리엄스, 1922 년

1 설교해 달라는 권고를 받음

헬렌 윌리엄스: 1868 년-1940 년

인준 목사 1897 년-1914 년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 헬렌 메이 스탠튼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1868 년에 미시간 주 어느 부농의 넷째로 태어났다. 그녀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모셨던 스탠튼 국무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헬렌은 어렸을 때부터 삶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다. 자신감과 총명함으로 똘똘 뭉쳐 있던 이 소녀는 15 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가 되었다.

17 세가 되자 고향에 있는 배틀 크릭 대학에 진학해서 교육을 더 받기로 결심했다. 1885-1886 학년도에 여학생 184 명, 남학생 220 명으로 이루어진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입생을 위한 성경교육 과정은 영어, 수학, 성경 강의 혹은 선교사 교육, 선별 독서, 작문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중심은 건강관리 원칙이었다. 헬렌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교회의 성경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헬렌은 등록금으로 일주일에 약 75 센트, 방세 50 센트, 일주일 식비 1.75 달러를 냈다. 전 학년을 통틀어 교과서로 3 달러에서 7 달러, 세탁비 8.50 달러가 들었고

연료와 기름은 매년 8.50 달러 정도 들었다. 1885년 당시 이 금액은 요즈음 등록금 만크이나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스탠튼 부부는 헬렌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다.(11 차 연간 목록, 배틀 크릭 대학, 1885-86 년.)

헬렌은 배틀 크릭 요양원에서 휴식 및 치료 차 온 손님들을 돌보며 경비를 갚는 데 보탬다. 그녀는 요양원에 자주 들르던 엘렌 지 화이트에게 식사를 차려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화이트 부인을 아주 잘 따르게 되었다.

헬렌의 아들 휴 윌리엄스 목사가 어머니와 엘렌 화이트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회상한 일화가 있다.(헬렌 윌리엄스의 아들 휴 윌리엄스 목사와 손자 얼 윌리엄스 박사가 헬렌 윌리엄스에 대해 녹음한 대화를 1985년 7월 필자에게 보낸 내용에서 발췌.) 헬렌 스탠튼은 당시에 유행하던 회색 비단옷을 샀는데 미니어처 기차가 새겨져 있었다. 그 옷이 유행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 장로들이 있었다.

[p.10]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색옷을 입고 있던 헬렌은 식사를 가져다 주려고 엘렌 화이트의 방에 들어섰다. 그러자 화이트 부인이 "애야, 그 옷 좀 보게 한 번 돌아보렴."이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헬렌은 깜짝 놀랐다. 헬렌은 화이트 부인이 무슨 말을 할지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멋진 취향을 가지고 있구나! 예쁜 옷이야." 헬렌은 자신을 비난하던 장로들에게 자신의 옷을 괜찮다고 생각한 화이트 부인의 의견을 확실히 알린 후 다시는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헬렌은 옷에 대한 재능과 타고난 미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일에 전념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깊어진 채로 배틀 크릭에서 공부를 마친 뒤 1887년에 미시간 합회 소속 성경 교육자로 취직했다. 스탠튼 양을 초청했던 G. I. 버틀러 목사는 당시 미시간 합회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총회장이었다.

헬렌은 2년 동안 그랜드 레피즈와 새기노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원칙을 가르치며 침례 받을 준비를 시켰다. 그때 대총회에서는 헬렌에게 인디애나폴리스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헬렌은 성경공부를 충실하게 시키는 동시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대학 수업도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연설이나 웅변 수업을 들어서 그 분야에 아주 능숙하게 된 듯하다고 한다.

헬렌은 일과 공부 외에도 인생에서 중요 관심사가 따로 있었다. 그녀가 배틀 크릭 대학에서 만났던 유진 윌리엄스는 당시 미시간 합회에서 인준 목사로 일했는데, 금발머리 성경 교육자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유진은 웨일즈 출신 이민자이자 미시간에서 잘 나가는 교량 시공자 제임스 윌리엄스의 외아들이었다.

유진은 헬렌보다 한 살 연상이었다. 유진이 몬태나 대회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정서적 유대감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유진 윌리엄스와 헬렌 메이 스탠튼은 1890년 8월에 결혼했고, 이후 엘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후 헬렌은 몬태나에서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함께 목회했다.

윌리엄스 부인이 새 집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 대회장인 와트 목사는 전도회를 열어보라고 권유했다. 그녀는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대회장과 남편 모두 헬렌이 처음 연 전도회를 보고 흡족하게 생각했다. (1922년에 헬렌 윌리엄스가 쓴 부양료 신청을 동봉한 편지에서 발췌. 대총회 기록보관소. 윌리엄스 가족이 보내준 이 중요한 문서, 편지, 테이프는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과 인용문의 근거가 된다.)

1890년대 초반에 대회장은 왜 젊은 여성에게 전도회를 열어달라고 권고했을까? 첫째, 헬렌 윌리엄스는 어릴 때부터 탁월한 웅변가의 비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낭독은 지역사회에 즐길 거리를 선사하는 방법이었는데,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헬렌은 그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지녔다. 둘째, 그녀는 배틀 크릭 대학에서 성경 원칙과 건강사역 관련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와 축복이 더해지자 한 여성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

[p.11]

[photo]

1885-86 학년도 배틀 크릭 대학생들 중 한 명인 헬렌 메이 스탠튼(왼쪽 아래). 배식쟁반은 배틀 크릭 요양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사진 제공: 얼 R. 윌리엄스 박사

[p.12]

헬렌의 아들 휴에 따르면 그녀는 일찍이 목회의 부르심을 깨닫고 목회자와 결혼해서 자신의 재능을 목회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휴 윌리엄스의 추억을 기록한 테이프를 필리스 빈야드가 1989년 8월에 필자에게 보낸 내용에서 발췌. 부록 A, 1.1 참조.)

헬렌 스탠튼은 성경 교육자로 섬기는 중에도 유명한 캠프 미팅 설교자가 되었다. 서부 변경지에는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젊은 헬렌 스탠튼이 전도자의 역할로 필요했다.

헬렌과 유진 윌리엄스는 목회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았지만 가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 1891년에 첫 아들인 어원이 태어났다. 이내 윌리엄스 부부는 몸이 편치 않았던 유진의 아버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미시간으로 다시 이사했는데, 아버지는 몇 달 밖에 살지 못했다. 부부가 목회로 바쁘게 지내던 중에 둘째 아들인 루이스가 1893년에 태어났다.

2년 뒤 윌리엄스 부부는 미시간 주 엘시 인근에 벨스코너스라는 지역으로 이사해서 전도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작은 동네에는 세넬 수 있는 집이 한 채 뿐이었는데, 아이 둘을 둔 목회자 가정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집인 데다가 셋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다행히 이를 딱하게 여긴 동네 여성들이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관리해서 젊은 목회자 가정을 위한 집을 준비해 주었다. 셋째 아들인 휴는 그곳에서 1895년에 태어났다.

윌리엄스 부부는 1897년에 그랜드 레피즈로 이사했는데, 유진은 그 도시에서 교회 건축을 감독하는 동시에 재림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다. 헬렌은 간간히 설교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했으며 어린 아들 셋을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회를 도왔다.

윌리엄스 목사는 1890년에 목회자의 수가 적었던 미시간 합회에서 "결혼식 주례 목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아주 급하게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장례식을 집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윌리엄스 부인이 안식일예배나 그랜드 레피즈 교회의 다른 집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자주 생겼다.

한 번은 헬렌 윌리엄스가 설교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합회장인 J. D. 고웰 목사는 와서 그녀의 설교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설교가 끝날 무렵 헬렌도 모르게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하루이틀 지난 후에 고웰 목사는 윌리엄스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헬렌과 유진은 합회장이 지난 안식일에 헬렌의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흡족했다는 합회장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웰 목사는 집안일을 돕고 어린 아들들을 돌볼 책임자를 써서 헬렌이 이 합회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느냐며 윌리엄스 부부에게 권유했다. 고웰 목사는 다음 합회 회기에 윌리엄스 부인이 가사도우미 비용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p.13]

헬렌은 믿을 만한 육아도우미 클라라를 구했다. 합회장은 약속했던 것보다 더 배려해 주었다. 합회 회기 중에 윌리엄스 부인은 목회 신임서를 발급받았고 전년도 급여를 소급해서 받았다.(1922년에 헬렌 윌리엄스가 쓴 부양료 신청을 동봉한 편지에서 발췌.) 이런 결정은 1897년에 시행했던 듯하다.

헬렌 윌리엄스의 손녀가 들려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모험담은 윌리엄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필리스 빈야드가 1985년 7월 22일에 필자에게 보낸 테이프 녹음에서 발췌. 부록 A, 1.2 참조.) 어느 날 헬렌은 빵을 굽다가 이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출복을 입지 않고 있던 그녀는 세 살배기 휴를 불러서 동전 2 페니를 손에 쥐어 주며 길모퉁이 가게에 가서 이스트를 한 봉지 사오라고 했다. 휴는 엄마의 말을 따랐다. 시장 상인은 휴가 쥐고 있던 페니를 가져간 뒤 이스트 한 덩이를 주었다.

휴는 집으로 가는 길모퉁이를 돌아가는 대신에 (나중에 설명하길) 공장에 잠긴 채로 계속 걸어갔다. 그러다가 집을 못 찾아서 계속 걷기만 했다. 결국 도시의 포장도로에 다다르자 뜨거운 도로 때문에 발을 데여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느 친절할 사람이 곤란에 처한 휴를 보고 길모퉁이 가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가게 주인은 기진맥진한 아이를 밀가루 부대 위에 조심스레 눕혀서 곧바로 잠이 든 모습을 본 뒤 경찰서에 신고했다. 휴가 잠에서 깼을 때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었다. 휴는 길을 잃었다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났다는 내용의 짧은 노래를 지었다. 그때 부모는 자신의 부족한 육아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세 살배기 아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축하했다.

이 당시의 가족 사진을 살펴보면 5 피트 6 인치 정도 되는 키에 단정히 빗어 넘긴 짙은 색 머리,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미남형의 유진 윌리엄스를 볼 수 있다. 남편보다 키가 약간 작은 헬렌 윌리엄스는 금발 곱슬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매력의 소유자였다. 아들들은 다 잘 생겼는데, 어원은 아버지를 닮아서 짙은 색 머리와 눈을, 루이스는 갈색 머리에 녹갈색 눈을, 휴는 파란 눈과 금발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

유진 윌리엄스는 북부 미시간 대학의 교육감으로 섬기라는 부름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윌리엄스 가족은 그랜드 레피즈에서 북쪽인 소트 세인트 마리로 옮겼다. 여행수단은 기차였다. 아버지는 미리 준비하려고 먼저 떠났다. 아내와 아이들은 나중에 합류했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시골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기나긴 기차 여행을 만끽했다. 상위 반도를 횡단하기

위해 기차를 연락선에 실었고, 이 모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1989년 8월에 받은 휴 윌리엄스의 추억 기록 테이프에서 발췌.)

이제 가족이 소유하게 된 말 팻시가 끄는 썰매에 탄 아버지를 만나자 아이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 지 상상해 보라! 아버지는 가족을 썰매에 태워서 데프터에 있는 새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소트 세인트 마리와 캐나다 국경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 싸여 살았다.

[p.14]

유진이 성공적인 행정가로 입지를 다지는 동안 헬렌은 안식일에 설교하면서 목회자로 계속 성장했다. 1904년부터 1906년에 이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연감을 살펴보면 E. R. 윌리엄스와 E. R. 윌리엄스 부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그는 슈퍼리어 대회와레이크 연합회의 안수 목사로, 그녀는 인준 목사로 나와 있다.(부록 B에서 해당 연도의 윌리엄스 부인 명단 참조.)

후에 크레멘스 부인이 된 그레이스가 아이들을 돌보았다. 윌리엄스 가족은 깊은 산속에 있는 통나무집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는 사슴을 볼 수 있었고 늑대와 동네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부모가 목회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쌓았다.

이후 윌리엄스 가족은 소트 세인트 마리 끝자락에 집을 짓는 동안 천막에서 살았다. 이 집은 규모가 컸는데, 그 중 일부는 세를 놓았다. 집에서 내다보면 슈퍼리어호로 흘러 들어가는 강의 급류를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이 집을 너무 좋아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얇은 만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세 아이들이 다 함께 탈 수 있는 카누를 만들었다. 여름이 되면 낚시를 하러 갔다. 아넷 양, 아그네스 화이트와 더불어 성경 교육자인 캠벨 양이 다양한 시간대에 아이들을 돌보았다.

1905년에 유진은 메노미니(해당 대회에서 재림교 센터가 있던 다른 지역)에서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가족은 위스콘신 경계에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 새 지역의 관습을 따라서 아이들은 쪽 뺀 나무를 찾을 때까지 숲을 살폈고, 그 나무를

뚝대로 이용해 얼음 위에서 여행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다. 부모가 다 목회자였지만 윌리엄스 가족의 아이들은 다양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유진은 목사이자 행정가로, 헬렌은 뛰어난 강연자이자 인준 목사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1906년에 두 사람은 시카고 지역교회들에서 목회해 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온 가족이 북부 미시간에서 급성장하는 시카고로 옮기는 일은 상당한 도전을 요했을 터이지만, 그들은 이 도전에 잘 대처했다. 유진이 웨스트 사이드 교회를 양육하는 동안 헬렌은 하비 교회에서 목회했다. 다 자란 아이들은 고가 철도인 "엘"을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법을 터득했다.

목회자 수가 적었던 관계로 합회장은 목회자마다 합회 내 다른 곳에서 매 안식일 두 번씩 설교하도록 일정표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헬렌은 여러 교회에서 설교했다. 하지만 주중에는 특별히 배정 받은 하비 교회에서 활동을 집중했다. 헬렌 윌리엄스는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신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에 기쁨을 누렸다.

여성 목회자로 살다 보면 주기적으로 평정심을 시험하는 사건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윌리엄스 부인이 합회 사무실에 갔는데 펄 할록이라는 비서가 인사하더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라고 했다. 두 사람이 대화할 장소를 찾자 펄은 헬렌에게 "새 연감에 목사님의 이름이 없어요."라고 알려주었다.

[p.15]

[photo]

헬렌 메이 스탠튼 윌리엄스,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회자이자 전도자. 인준 목사 1897년-1914년.

사진 제공: 얼 R. 윌리엄스 박사.

[p.16]

윌리엄스 목사는 "왜 이름이 없지요?"라고 물었다. "다른 목사들의 이름과 제 이름을 같이 보내시지 않았나요?"

필은 "제가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확실해요."라고 답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헬렌은 "괜찮아요."라며 필에서 장담했다. "제가 인준 목사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지요?"

"그럼요."

윌리엄스 부인은 "제가 급여 대상자 명단에 확실히 있나요?"라고 물었다.

할록 양은 "네."라면서 윌리엄스 부인에게 장담했다.

윌리엄스 목사는 "그렇다면 이전 연감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라며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일을 주셨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집단도 제 일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안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1922년에 헬렌 윌리엄스가 쓴 부양료 신청을 동봉한 편지에서 발췌.)

헬렌 윌리엄스는 목회자로 섬기는 데 있어서 자격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감에 다른 인준 목사들과 기재되었던 자신의 이름이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907년 연감에는 E. R. 윌리엄스만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헬렌은 쉬지 않고 사역에 몰두했으며, 실제로 인준 목사가 되었다.

윌리엄스 부인의 목회에 대한 정보는 북부 일리노이 기록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헬렌 윌리엄스는 1906년 겨울 기도주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당시에 하비, 엘진, 힌스데일 교회를 맡게 되었다. 윌리엄스 부인은 12월 22일 안식일에 힌스데일 요양원 교회를 방문해서 잘 짜여진 안식일학교에 출석한 25명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가 설교한 후 그곳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윌리엄스 부인은 요양원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 "이렇듯 행복하고 해맑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소명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이들이야말로 다른 사역자들이 쉽게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E. R. 윌리엄스 부인, "힌스데일 요양원," 북부 일리노이 기록관, 1907년 2월 19일: 1에서 발췌.)

윌리엄스 가족은 1907년 여름에 도시전도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위스콘신 주 밀워키로 이사했다. 그러다가 몇 달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 합회로 가라는 요청에 응했다.

언제든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던 헬렌은 아프리카로 가는 여행을 만끽했다. 1908년 1월에 배 안에 부모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그 여정을 엿볼 수 있다. 길이 725 피트인 발틱호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던 항해는 어원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려 앓았던 일만 빼면 즐거웠다.

헬렌은 산속에 자리잡은 흰색 집들과 성들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일즈 지역 옆으로 항해했던 일과 앞이 안 보이는 영국 안개에 둘러싸였던 일을 설명했다.

윌리엄스 가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항해하기 위해 영국에서 유니온 캐슬 라인으로 갈아탔다. 훨씬 작은 이 배는 거친 바다와 맞닥뜨렸다. 헬렌은 난기류로 침상에서 꿈쩍달짝하지 못한 채 힘들게 글을 쓰다가 자신의 가족에게 적절히 배정된 객실 두 칸을 두고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녀는 "대충회에서 저희 가족에게 큰 친절을 베풀어준 것 같지 않나요?"라며 부모에게 물었다.

[p.17]

그녀는 남편과 식사를 대부분 건너뛰기는 했지만 식사가 매일 푸짐하게 일곱 끼나 나왔다고 설명했다.

헬렌은 배 안에 있는 종이 주기적으로 울렸다고 언급했다. "다른 배에는 시계가 있긴 했지만 종을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듯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해의 요람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괜찮다, 괜찮다.'라는 종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좋네요."(1908년 1월 10일 영국 런던에서 헬렌 메이 윌리엄스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유니온 캐슬 라인 선상에서 쓴 1908년 1월 4일 편지에서 발췌.)

유진 윌리엄스 목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해서 몇 달이 지난 뒤 케이프 식민지 합회장으로 뽑혔다. 헬렌 윌리엄스는 가족이 살게 된 그레이엄스타운에서 선교사업을 진행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넷째 아들 유진이 태어났다. 헬렌 윌리엄스가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다 줄 적합한 원주민 여성들을 찾게 되었다. 헬렌은 설교자로서 나름대로 호평과 인정을 받았다. 그의 설교와 대중 연설은 아내만큼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행히 그는 헬렌의 강연 능력을 흐뭇해 하면서 그녀에게 들어오는 설교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 만큼 안정감이 있었다. 두 사람은 헬렌의 강연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면 빙그레 웃기도 했다.(빈야드 테이프.)

윌리엄스 부인은 단호할 때도 있었지만 겸손하고 자애로우며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상을 말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과장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설교는 성경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윌리엄스 목사는 간단한 노트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설교를 전달했다. 그녀는 설교 노트를 보관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문서정리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주제"라고 표시된 란에는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한 필기 노트가 있는데, 번호가 매겨진 질문과 성경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헬렌 윌리엄스, "겸손," 미공개 설교 노트에서 발췌. 부록 A, 1.3 참조). 그 필기 노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겸손

1. 하나님은 어디 사시는가? 이사야 57:15
2. 우리는 천성적으로 겸손한가? 로마서 8:7
3.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2:17, 3:6
4.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는가? 로마서 12:1

이렇듯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설교의 어조는 자신감이 넘친다. 윌리엄스 부인은 짧은 노트를 이용해 설교하면서 청중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단순한 개요에 예화, 적용, 호소를 더하여 생명을 불어넣었던 방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녀는 빼어난 외모의 소유자였으며 설득력 있는 목소리와 극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동시에 영적이고 설득력 있는 생각을 표현했다. 그녀의 설교를 듣고 보는 일은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다.

[p.18]

헬렌 윌리엄스는 이후 이 선교봉사 기간에 대해 기록하면서 인준 목사로 끊임없이 사역했지만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별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1908-10 년 연감에 그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은 의아한 부분인데, 이는 가족이 헬렌의 1908 년과 1910 년 목회 신임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목회 신임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합회에서 발급하고 W. S. 하얏트 연합회장이 서명했으며 두 번째 목회 신임서는 케이프 식민지 합회에서 발급하고 윌리엄스 부인의 남편인 E. R. 윌리엄스 합회장이 서명했다.

유진 윌리엄스 목사는 바쁜 여행 일정 중에도 1910 년 11 월 20 일 일요일에 시간을 따로 내서 첫째, 둘째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원과 루이스는 맘스베리에 재림교회 서적을 팔러 갔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집에서 누군가 찾아오면 좋아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우스터에서 출발했는데, 이곳은 안식일에 교회를 조직한 곳이었다. 유진 윌리엄스가 빨리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가는 동안 날이 더웠다. 그런데 우스터에서 9 마일 쯤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뇌졸중으로 길가에 넘어졌고, 몇 시간 후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1910 년 11 월 28 일: 1.) 아버지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원과 루이스는 도리어 슬픈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이 사랑했던 아버지는 한창 전성기였던 43 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법에 따라 다음 날 장례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휴와 어린 유진을 데리고 있던 헬렌 윌리엄스는 장례식 시간에 맞춰 그레이엄스타운에 올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슬픈 일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남편을 잃은 그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이후 그레이엄스타운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헬렌 윌리엄스는 42 세에 18 개월에서 18 세에 이르는 아들 네 명을 홀로 키우게 되었다.

대총회 위원회에서는 윌리엄스 부인과 아들들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는 편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500 달러를 책정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결의 내용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합회 측에서 "윌리엄스 자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아들들이 좀 더 훈련을 받아서 선교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목적을 이루는 데 500 달러를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대총회 결의, 1910년 12월 27일.)

헬렌 윌리엄스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셋째, 넷째 아들을 데리고 그레이엄스타운으로 돌아와 그레이엄스타운 교회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 첫째, 둘째 아들은 계속 서적을 팔았다. 앞서 언급했던 12월 27일 대총회 결의를 시행했을 즈음에 헬렌은 이미 돌아와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 교회에서 목회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임기 7년을 완수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년을 홀로 사역했다.

헬렌 윌리엄스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쟁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원칙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이 기간 동안 호되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

헬렌 윌리엄스는 남편의 죽음 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1911년부터 그녀의 이름도 인준 목사로서 연감에 다시 기재되었다.

[p.19]

헬렌 윌리엄스는 1819년 가을에 아들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윌리엄스 부인은 메릴랜드 주 타코마 파크에 있는 워싱턴 선교사 대학에서 성경 교육자 훈련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워싱턴 D. C.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다.

이후 보타우 목사가 병들게 되었을 때 헬렌 윌리엄스는 대학에서 그가 가르치던 성경 과목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그녀는 엄청난 수업 업무량에 온 시간과 힘을 들이기 위해서 목회 임무를 접었는데, 이 상황을 만끽했다. 이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25 달러나 되는 최고 수입을 올렸다.

에델 룽에커 해님이 회상한 일화를 살펴보면 헬렌 윌리엄스 교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에델 룽에커 해님이 1985년 7월 25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고등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쳤다. 에텔 롱에커는 고등학교에서 윌리엄스 부인의 성경 수업을 들었다. 그녀의 반 친구였던 도널드 그릭스, 아서 월터스, 조지 하딩은 훗날 심장전문의, 장례식장 운영자, 하딩 병원 설립자가 되었다. 훗날 이룬 업적만큼이나 인상적인 점은 이 청년들이 그저 평범한 10 대였다는 사실이다.

아서는 장난끼가 다분한 그 반의 코미디언이었다.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창의력을 발휘했다. 결국 윌리엄스 부인은 뒤에 있는 칠판을 향해 있던 자신의 책상 가까이에 의자를 놓고 아서에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했다.

아서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의자로 가던 중에 분필을 집어들 수 있었다. 윌리엄스 부인은 아서 옆에 서 있었는데도 반 전체를 살피느라 그를 잘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커다란 형짚 주머니를 치마에 덧댄 예쁜 빨간 색 옷을 입고 있었다. 아서는 아주 조심조심 몸을 숙이더니 가지고 있던 분필로 제일 가까이 있는 주머니에 웃는 얼굴을 그렸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교실에서 줄지어 나갔고, 윌리엄스 부인은 그제서야 즉석 작품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친 장난에 대해 전혀 화를 해지 않고 악의 없이 받아들였다. 아들 넷을 키우느라 단련이 돼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거의 없었다.

늘 인자하고 유쾌하던 윌리엄스 부인은 성경교사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럼에도 5년 후에는 아마도 정식교육을 더 받은 남성이 교직을 넘겨받게 되었다. 대학에서 윌리엄스 부인에게 좀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녀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의 직무를 대체한 대학에서 제공한 일자리는 기숙사 사감 뿐이었다. 윌리엄스 부인은 이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그녀는 이쪽 분야의 일을 할 준비도,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이 협의는 당연히 잘 풀리지 않게 되었다. 헬렌은 스스로에 대해 이런 엄격한 평가를 내렸다. "인생 후반부에 직업을 바꿔서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1922년에 헬렌 윌리엄스가 쓴 부양료 신청을 동봉한 편지에서 발췌.) 목회 경력자인 여성에게 완전히 생소하며 받은 은사와 다른 일을 맡겼다는 점은 애석할 따름이다.

[p.20]

그 학년이 끝날 무렵 윌리엄스 부인은 지도교사로 일하며 힘든 경험을 했음에도 멜로즈 요양원에서 성경교사직과 함께 똑같은 일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애를 써봤지만 또 문제가 생겼다.(몇 년 후 그녀가 부양료 신청을 동봉한 편지에서)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저는 또 한 번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도 실패지만 더 큰 문제는 몸이 망가졌다는 점입니다." 본문에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나와있지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은 지워진 상태다.(상동) 헬렌 윌리엄스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업무가 부담스러웠던 탓에 몸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윌리엄스 부인은 그 다음 요청을 받았을 때 신중을 기했다. 그녀는 2 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지역교회 모회를 하는 동안 뉴욕 시 미들타운에 있는 재림교회 요양원에서 직원으로 일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병원도 교회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원 원장은 헬렌이 성공적인 모회자이자 성경 교육자로서 해왔던 일에 대해 과장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해치지 않고는 두 가지 직책을 다 수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헬렌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초청을 거절하고 미시간에 있는 큰 아들 어윈의 집으로 가서 휴식과 안정을 취했다.

헬렌이 몇 달간 건강을 회복한 뒤 아들 휴가 찾아왔다. 휴는 어머니의 소명을 따라서 인디애나 합회의 안수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휴는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라고 대답했다. "지도교사 일을 하지 않고 밤에 잠만 잘 수 있으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다시 일하셔야 합니다. 아들의 성경 교육자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더 할나위 없지." 윌리엄스 부인은 곧바로 대답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네." 휴는 어머니에게 장담했다. "합회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어머니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헬렌 윌리엄스는 며칠 내로 인디애나에 왔고, 전도회용 대형 천막 근처 집에 괜찮은 방을 구한 뒤 곧바로 일을 시작해서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전도자 아들을 도왔다. 타고난 재능과 경험을 겸비한 분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녀는 다시 한 번 능력을 발휘해서 사역하게 되었다. 헬렌이 보조역할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덕분에 어머니와 아들은 멋진 팀을 꾸려 나갔다.

한편 윌리엄스 부인은 막내아들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늘어갔다. 16 세였던 유진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미시간 주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재림교회 대학에 다니도록 납득시킬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이 시점에서 아들에게 강요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이는 "막내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진이 어릴 때부터 유일한 부모였던 헬렌은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윌리엄스 부인은 유진이 어머니를 자주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떠나면 어머니가 그리워서라도 근처 재림교회 대학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p.21]

헬렌은 밀워키에서 열린 대총회 회기에 참석하던 중 어퍼 켈럼비아 합회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는데, 이 합회는 워싱턴 주 동부지역과 오리건 주 및 아이다호 주 일부지역을 관할했다. 유진은 일 년 만에 워싱턴 주에 있는 왈라왈라 대학에 다니기로 흔쾌히 동의했다.(상동)

유진은 왈라왈라 대학에 다니던 중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교에 진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 윌리엄스 박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의료사역에 온 힘을

쏠게 되었다. 아들 넷이 모두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는데, 유진은 의사, 휴는 목회자, 루이스는 예술가, 어원은 음악가이자 농부의 길을 걸었다.

헬렌 윌리엄스는 북서부 지역에서 그녀의 탁월함이 진가를 발하는 전도와 목회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어퍼 컬럼비아 합회에서 개종자들에게 침례 받을 준비를 시키고 목회하며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대로 안식일 아침에 설교하는 시간을 만끽했다. 그녀의 직함은 성경 교육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사역은 목회자와 다름 없었다.

헬렌 윌리엄스는 워싱턴 주 바이올라 지역에서 일하며 예비 교인들에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리를 가르쳤다. 목회자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윌리엄스 부인의 교회에 보내서 양육을 부탁하기도 했다.

윌리엄스 부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수확운동 호소는 그녀의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녀는 함께 일한 평신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법과 말할 내용을 가르쳤다. 이런 사역을 매년 거의 크리스마스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했다. 윌리엄스 부인은 이제 60 대의 나이였지만 힘과 열정을 잃지 않고 사역을 이어나갔다.

헬렌 윌리엄스는 이전에 시카고에서 인준 목사건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하고도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낙담할 일을 또 겪고 말았다. 윌리엄스 부인이 성경 교육을 위해 훈련시켰던 여성이 그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모 자매는 목회 신임서가 있던데요. 선생님은 목회 신임서가 있나요?"

"아니오." 헬렌은 짧게 대답했다.

"왜 아니시죠? 선생님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여성을 이치를 따져 물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헬렌이 대답했다. "몇 년 동안 목회 신임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몇 달 후 윌리엄스 부인을 찾아와 질문했다. "몇 년 동안 목회 신임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지요." 헬렌이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시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모 목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저희가 윌리엄스 자매의 기록을 찾아봤지만 목회 신임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목회 신임서를 받았다고 하신다면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윌리엄스 부인은 깜짝 놀라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헬렌 윌리엄스는 목회 신임건으로 간간이 혼란과 오해를 겪었음에도 35년 공식목회를 하는 동안 대부분 긍정적이고 보람찬 경험을 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유진의 의대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하게 사역을 이어나갔다.

[p.22]

그녀는 1897년부터 1914년까지 인준 목사로 사역했다.

헬렌 윌리엄스는 1940년 12월 23일에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리뷰지의 부고란에는 이 헌신적인 사역자의 목회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기재했다:

윌리엄스 부인은 자녀가 아직 어릴 때 가족을 돌보아 줄 사람을 구하고 정규 성경 교육자의 일을 재개했다. 그녀는 대중 강연자로서 폭넓은 명성을 얻었고 교회들을 담당했으며 미시간 합회에서 목회 신임서를 부여 받았다.

-----헬렌 메이 스탠튼, 부고, 리뷰 앤 헤럴드,

1941년 1월 30일: 24.

한 며느리에 따르면 윌리엄스 부인은 "선구적인 설교자이자 교사로서 충만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간추려 말했다.(캐서린 D. 윌리엄스가 미시간 주 세인트 조셉에서 1985년 7월 22일, 8월 3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부록 A, 1.4 참조.) 그녀는 두 대륙에서 목회와 전도를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하늘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대회장은 젊은 헬렌

윌리엄스에게 몬태나에서 전도회를 열어달라며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목회 은사를 마음껏 펼치라고 격려하며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p.23]

"우리는 기회가 오는 대로 개선했다."

-----미니 사이프, 1908 년

2 농부의 아내에서 전도자로

마린다(미니) 데이 사이프: 1869 년-1956 년

인준 목사 1902 년-1956 년

침례교인들은 분명히 논쟁을 벌일 구실을 찾고 있었다. 미니 사이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음 속 깊이 논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이프 부인은 안식일에 설교하고 일요일 밤에 다시 설교하기 위해 오클라호마 준주에 있는 퍼트남에 들렀다. 그녀는 1902 년 5 월 23 일부터 퍼트남에서 장막집회를 열었고,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집회를 통해 그녀를 축복하셨다. 그녀는 7 월 즈음에 합회장을 초청해서 새로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그 직후에 그녀는 탈로가에서 집회 시리즈를 준비하며 예수 재림의 복음을 모든 지역사회에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 그런데 그녀가 새 신자들을 복돋아주기 위해 퍼트남에 다시 왔더니 침례교인들이 천막을 치고 엘리슨 박사라는 설교자를 데려와서 시종일관 이단을 퍼뜨리는 재림교인들을 보여주기 위해 작정하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었다.

농부의 아내이자 33 세에 목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미니 사이프는 종교 관련 논쟁이 올바른 주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식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이런 공개적인 신학적 대립을 가급적 피했다. 하지만 그녀가 설교하던 진리가 맹비난을

받고 있었고 개종한 사람들은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혜를 달라며 기도했고, 이후 그녀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그 박사가 있는 한 남아 있겠다고 답변했다.

그 침례교회 목회자는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다. 결국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목회자는 논쟁을 위한 지침에 합의했다. 침례교인들은 "믿음"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사이프 부인은 침례교인들만큼 "믿음"을 굳게 신뢰한다고 했다. 상대방에서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이프 부인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첫 날 저녁의 주제로 믿음을 선택했다.

재림교회 목회자가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의 중요성과 본질을 보여주자 많이 모여 있던 사람들은 기대감에 열광했다. 그때 침례교회 설교자가 답변을 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처음에 사이프 부인의 설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는 비장의 "무기"인 윌리엄 밀러에 대한 편지를 꺼내들었다.

[p.24]

엘리슨 박사는 그 편지를 읽은 뒤 1884년에 세상이 끝나리라고 가르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비난했다. 그는 윌리엄 밀러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재림교인들을 비웃는 데 지대한 시간을 들였다. 자신이 밀러에 대해 준비한 자료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평판을 떨어뜨렸다고 확신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침착함과 당당함을 유지한 미니 사이프는 윌리엄 밀러가 훌륭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런 다음 엘리슨 박사가 윌리엄 밀러를 비난했을 때 본인의 교단 사람을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윌리엄 밀러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아니라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1884년에 교회를 조직하거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 정보를 들은 침례교회 목회자는 실망한 반면 청중은 즐거워했다.

며칠 밤이 지나자 토론자들은 "사탄의 기원, 역사, 운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침례교회 강연자가 더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논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안식일과 영혼불명에 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발표를 별도로 계속 하겠다고 알렸다.

침례교인들의 발표에 답하기 위해 그들의 천막을 빌릴 수 없었던 미니 사이프는 엘리슨 박사의 주장을 재검토차 일요일 저녁에 그 지역 학교 건물을 예약하겠다고 알렸다. 1902년 그 여름밤에 오클라호마 준주 내 퍼트남에 있는 학교 건물에 사람들이 꽉 찼다. 그들은 사이프 목사가 이단이라는 비난에 맞서 자신들 교회의 가르침을 변호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성령께서는 이 대립을 이용해서 사이프 부인이 퍼트남에서 시작한 사역을 더 진행시키셨다. 여러 명이 진리를 옹호했다. 침례교인들은 이내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천막을 옮겼다.(미니 사이프[Syp*], "오클라호마 준주 퍼트남, 남서부 연합 기록, 1902년 9월 8일. *원래 성의 철자인 Syp는 아들 로스가 학교에 다닐 때 그의 요청에 따라 Sype로 바뀌었다.)

퍼트남에 있던 소수의 신자들은 새로 찾은 신앙으로 인해 기뻐했고 마음 사람들은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이 끝나자 미니 사이프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승리하는 능력을 여전히 확신에 찬 마음으로 찬양했다.

이렇듯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재능을 보였던 미니는 삶 속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전도자가 되려고 일부러 준비했던 것은 아니다. 수줍음 많던 시골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끈질기게 매달렸던 일 말고는 궁극적인 부르심의 조짐을 보인 실마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엘리어스와 메리 데이는 1869년 4월 18일에 아이오와 주 테이어 근처 농가에서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딸의 이름을 마린다라고 지었다. 그런데 그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아이에게는 "미니"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듯했고,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렸다.(미니 사이프, 선교사 사역에서의 자서전과 경험(미네소타 주 허친슨: 신학대학원 출판부, 1916), 15.) 이 책에 수록된 전기 정보는 대부분 자서전을 기반으로 한다. 앤드류스 대학교 도서관에 사본이 있다.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 도서관에는 1912년 판권이 있다.

미니는 열 명의 자녀 중 첫째인 데다가 큰 아이들이 다 딸이었기 때문에 밭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축을 여럿 몰고 가서 땅을 씨레질하고 옥수수

점과기에 걸터앉아서 드넓은 들에 반듯한 선을 내려고 애썼을 뿐 아니라 쌀쌀한 가을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옥수수를 수확하러 따뜻한 침대에서 겨우 나왔다.

[p.25]

미니는 가족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13 세부터 간간이 집을 떠나서 일하는 등 고된 삶을 살았지만 형제자매들은 가족의 사랑과 안정감을 누렸다.

데이 부인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도 있었지만 미니는 커 가면서 신앙교육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어머니가 읽어주는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를 들은 미니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때문에 혼란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미니는 젖을 짜기 위해 초원에 있던 젖소들을 집으로 몰고 갈 때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니는 열 살 때 자신의 모습이 악해서 아무도 이해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고 느꼈다.

형제교회에서 집회가 열리자 미니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라는 부르심에 간절한 마음으로 응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은 한결 나아졌지만 집회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은 여전히 남았다.

미니는 13 세에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도 좋다는 부모의 허락을 드디어 받고는 기뻐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힘들어하던 그녀는 평안을 느낄 때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더 많았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데이 부인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녀는 미니에게 글을 가르쳤고 가능하면 학교에 다니라며 다독였다. 드디어 미니는 교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범학교에 다닐 기회를 잡았다. 이 과정을 마친 뒤 18 세 생일을 맞기 직전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다.

미니 데이는 여러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녀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교사였다. 징계 문제에 있어서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그녀가 교사로 출근한 첫 날에 14 세 남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들면서 더 어린 남학생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알다시피 이 교사는 17 세 성인이 된 무렵이었다. 미니는 협조하지 않는 이 남학생에게 매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학교가 끝나자 그 남학생에게 남으라고 한 뒤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마음을 다잡으며 매를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학생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시름 놓았다. 미니는 그런 온갖 위기가 닥칠 때 창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해결했다. 그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효과적인 교육장소는 교실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미니는 샌드 크릭 타운십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후에 평판이 좋은 청년 로건 G. 사이프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감을 가졌다. 미니는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구혼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로건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와 그의 부모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었다. 미니는 이 종교가 낯설었지만 로건의 기독교 신념을 존중하는 마음이 컸기에 기꺼이 사귀기로 했다. 멋진 목소리의 소유자인 로건은 행사에서 독창을 하거나 노래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는데, 그럴 때 미니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했곤 했다.

[p.26]

그들은 매력적인 한 쌍의 남녀였는데, 그녀는 짙은 갈색 머리에 키가 5 피트 7 인치였고 그는 검은 머리에 그녀와 키가 비슷했다.

미니 데이와 로건 사이프는 미니가 21 세 생일을 맞기 한 달 전인 1889 년 3 월 6 일에 결혼했다. 신혼부부는 종교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데 동의했는데, 그녀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기로 약속했고 서로 양쪽 교회에 같이 갔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함께 예배를 드렸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조심해서 피해갔다. 미니는 로건의 교회에 갔을 때 교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수많은 성경절을 인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중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자신과 달리 남편이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둘 다 똑같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미니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를 찾아갔다. 그런데 일요일 준수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해주지 못하는 목회자를 보고 미니는 쓰라린 실망감을 맛보았다. 내심 남편을 설득해서 일요일에 함께 예배하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니의 시아버지 J. L 사이프는 그녀와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 그는 아이오와 주 애프턴 교회에서 오래 동안 장로의 직분을 맡았고, 열성이 넘치는 젊은 며느리를 이끌어 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니는 굶주린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듯 성경에 접근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성경절을 외웠다. 시아버지는 농장일을 마치면 길 건너 미니를 찾아와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자정까지 답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천년기,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 예언에 대한 주제를 모두 연구했다. 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에 힘들었던 심정이 드디어 채워졌다.

미니는 몇 달간 집중적으로 성경공부를 한 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심을 납득시킬 것인지, 아니면 편안한 전통에 머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기로에 놓였다.

미니는 어느 안식일에 남편이 속해 있던 몇몇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고 일요일에는 오래 동안 함께 다녔던 교회에 가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현관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녀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반면에 친구들은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괴로워하며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미니는 거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 십계명을 찾았다. 그리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십계명 중 한 계명이라도 고의로 범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고했다. 그 페이지 끝면에서 넷째 계명이 부르짖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10, 강조 표시 제공.) 그녀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미니 데이 사이프는 1889년 7월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p.27]

미니는 처음으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캠프 미팅에 참석하던 중 이 성경절을 읽는 설교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설교자는 계속 말했다. "...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요한일서 1:9; 이사야 38:17. 그런 다음 미니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설교자의 질문을 들었다. 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맡은 역할,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리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점을 믿는 일이다. 설교자가 언급하기를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한 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용서 받은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 한다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려고 그 죄를 떠올리게 하는 사탄의 소행이다.

결국 미니 사이프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점을 깨닫고 얻게 된 삶의 평화와 기쁨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부터 새롭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나뉘야 했다. 사실 미니는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돈 때문에 부담감이 컸다. 농가에 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녀의 집안일도 덩달아 늘어났다. 로스가 1889년에 태어났고, 뒤이어 둘째 아들 제임스가 1892년에 태어났다. 하지만 미니 사이프의 마음 속에는 영혼에 대한 실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던 그녀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격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선교지가 집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농장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금요일에는 준비를 하며 안식일 아침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는 일을 너무도 좋아했다.

미니는 자신의 가정사역을 중요시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방법도 모색했다. 그녀와 남편은 교회까지 7 마일을 운전해서 가는 길에 전도지를 나누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교회 신문을 모아두었다가 가는 길에 우편함에 넣었다. 로스와 제임스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전해줄 생각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 교과를 즐겨 모아두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점점 커져서 사이프 가족과 안식일학교에 가려고 올라타기도 할 정도였고, 마차가 교회에 도착할 때면 꽤 많이 차 있었다.

미니 사이프는 시간관리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그 많은 집안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목요일마다 선교사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어느 목요일에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갔다. 다른 때는 재림교회 서적을 팔아 그 수익으로 선교사 편지를 위한 우표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사이프 가족은 이를 위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책과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집에 진리를 바로 전해주었다. 또 한 번 그녀는 집의 문 옆에 있는 선반에 인쇄물을 구비하기 위해서 판매할 햇별 가리개 모자를 만들기도 했다.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다른 곳에 갈 수 없을 때는 퀼트 뭉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소를 나누는 동안 퀼트를 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퀼트와 두툼한 이불을 팔았다.

미니는 비가 올 때면 선교사 편지를 썼는데, 전도지나 오려둔 시 혹은 개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동봉했다. 한 여성은 그 편지에 동봉한 안식일 관련 전도지를 읽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다짐했다.

[p.28]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려던 또 다른 여성은 미니가 보낸 편지 및 동봉한 시를 읽은 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

미니 사이프는 새로 이사 온 여성에게 성경 교과의 첫 시리즈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이 여성이 성경공부 시간을 저녁으로 옮겨서 남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사이프 가족 모두가 성경공부를 진행했다. 사이프 씨가 기도를 드렸고 사이프 부인은 성경을 가르쳤으며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서 도왔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용돈을 몇 푼 주기도 했다. 그 부부는 배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다.

사이프 씨가 곡식을 잔뜩 싣고 소도시로 천천히 갈 때면 사이프 부인은 길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조 잡지 및 소책자를 팔기 위해서 함께 따라나서곤 했다. 그녀는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활기가 넘쳤다.

미니는 넘쳐나는 과일을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지하 저장고에 보관해서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문 밖에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섬김의 방법을 또 하나 찾아냈다. 미니의 남편은 여행객들을 대접하면서 손님들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 편지로 질문을 하거나 서적을 더 보내 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었다. 미니는 다른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녀는 시골 생활을 진심으로 만끽했다. 닭을 키우고 소 젖을 짜며 텃밭을 일구고 가족을 돌보며 선교사 사역을 즐겨 했다. 특별히 부모와 형제를 보살피고 싶어했다.(미니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간증한 끝에 자매 세 명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이끌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아버지도 재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1898년에 어린 딸 안나가 태어나면서 로건과 미니 사이프의 가족이 완성되었다. 미니는 이내 병을 얻어 네브라스카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링컨에 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유니온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다. 어린 안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갔다. 외래 환자가 된 미니는 그 지역 어느 여성에게 아이를 몇 시간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요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동안 유니온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알지 못하는 평생의 사역을 위해 떠났을 때보다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미니와 안나가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사이프 씨는 와이오밍 주 셰리던 근처 히비 채광소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야 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숨이 멎는 듯한 산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사이프 가족은 하나님에 관련된 희망이나 경험이 전무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광부의 판잣집에서 사는 삶은 미니가 갓 떠난 아이오와 주의 즐겁던 시골집과 판이하게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집중했다. 채광소 아이들이 콜레라에 걸리자 어머니들은 미니를 의지하며 병간호와 지혜를 맡겼다.

[p.29]

미니는 안나가 홍역 합병증으로 몇 달 동안 아픈 중에도 사역을 구상했다. 그녀는 채광소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해 켈트를 바느질하도록 했고, 그들이 바느질하는 동안 책을 읽어주며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절제를 옹호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채광소에서 보통 지지하지 않는 미덕이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미니의 모본을 지켜본 어머니들은 과음을 끊고 가족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가졌다.

미니는 남편의 뛰어난 음악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해서 안식일학교와 주일학교를 모두 이끌었다. 또한 사이프 가족은 광산촌 가족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집에 초대해서 노래를 불렀다. 로건은 모인 사람들을 이끌고 채림의 소망이 넘치는 노래를 불렀다. 이후 채광소 주변에서는 이 희망찬 음악을 몇 소절 흥얼거리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이프 부인은 채석장 사역으로 인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말이 되자 아이오와 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로건은 가족들과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이프 가족이 소규모 안식일학교와 안식일을 지키는 몇 명을 남겨두고 떠나자 채석장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퍼했다. 미니는 나중에 그들과 연락하면서 와이오밍 주 채석장의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사이프 가족은 아이오와 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오클라호마 주로 이사 갔던 가족에게서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들었다. 1889 년 오클라호마 대토지 개방 이후 세기가 바뀌는 동안 정착은 계속 이어졌다. 사이프 씨는 빈 땅에 농사 지으며

살기 위해 오클라호마 준주로 이사하는 편이 현명하겠다고 생각했다. 사이프 부인은 정든 아이오와 농가를 떠난다는 생각에 힘겨워 했다. 하지만 부부가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오와 땅이 빨리 팔리는 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았다. 그래서 미니는 이사하기로 했다.

남편은 160 에이커의 땅에 작은 집을 짓기 위해 먼저 떠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미니는 공부에 대한 아내의 열정을 알고 있던 로건이 특별히 서재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이프 가족은 다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정착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901년 여름에는 로건과 이웃에 정착한 사람들이 심은 작물이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7월에 고약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작물은 시들고 옥수수는 줄기에서 익어버렸다. 먹을 풀이 없는 가축에게는 사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저장고에서 비축한 양이 떨어질 때까지 먹였고, 이후 가축은 무서운 속도로 죽어나갔다. 이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자 수많은 정착민들은 권리를 포기하고 떠났다. 충격적인 경험이 너무 컸던 탓인지 그 시절을 겪어낸 일부 사람들은 1901년 가뭄 생존자로 함께 뭉쳐서 최소 40년 동안 매년 모임을 가졌다.(오클라호마 주 작업 프로젝트 관리국의 작가 프로그램: 오클라호마 주를 위한 안내서 [노먼: 오클라호마 대학교 출판부, 1947], 241.)

사이프 가족 주변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가족은 주님께 의지하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서로 인용하면 용기를 잃지 않았다. 미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근원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p.30]

그녀는 주일학교가 끝난 뒤 안식일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어느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기별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주일학교 교장과 아내는 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1901년부터 1902년 겨울 중에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던 사이프 가족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후 버틀러 교회라고 알려진) 집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조직해 달라고 오클라호마 합회장에게 요청했다.

미니는 오클라호마 합회에서 보낸 감사편지와 25 달러 수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보수를 바라고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 요청하지 않은 돈을 적시에 받은 것은 분명했다.

봄이 되자 오클라호마 합회 행정부에서는 미니 사이프에게 합회 채용으로 남편의 조력을 받는 전도자가 되어달라고 초청했다.

사이프 부부는 이 요청에 대해 오래 동안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 신중히 고려했다. 미니 사이프는 목회자가 되려고 모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도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공식 초청을 받았던 것이다. 오클라호마에 왔던 여동생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했다.

사이프 씨는 "당신이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 곁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소. 나는 노래하며 집회를 시작할 수 있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으니."라며 자원했다.(사이프, 자서전, 71.)

사이프 부부는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니 사이프는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오클라호마 준주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사이프 부인은 그 이후에 곧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그곳 신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마차를 타고 13 마일 떨어진 오클라호마 주 루스 교회로 갔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어느 교인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그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 교인에 따르면 그 지역 설교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녀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 주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미니 사이프는 기도하고 연구하기 위해 그 교인의 집 근처 큰 협곡으로 내려갔다.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염려가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는 막힘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새 목회자는 준비하려고 집에 갔다. 그녀가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미니 사이프는 정식 목회, 즉 더 연구하고 설교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으로 상을 받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 32 세였다.

[p.31]

루스에서 두 번째 집회가 끝난 후 어느 젊은 여성이 다가오더니 "설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미니는 자신이 설명한 일을 가리켜 설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은 그녀를 "여성 설교자"라고 불렀다. 사이프 부인 스스로도 "여성 설교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그런 꼬리표가 붙는 자체에 불안함을 느꼈다.

이 일로 미니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비판과 반대를 생각하다가 "이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라며 절망감에 울부짖었다. 하지만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린도후서 12:9, RSV)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젊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라면 그분께 결과를 맡기며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여성 설교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그런 식으로 대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사이프 부인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갓 시작했을 때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에 부딪혔다. 어느 기독교 교회 목회자가 미니의 설교 내용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가 응수할 기회를 달라고 하자 그는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사이프, 자서전, 73-76.)

미니 사이프는 다음 날 밤에 학교 건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미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래 기도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던 기독교 교회 목회자에게 현관 앞에서 함께 하자고 요청했는데, 이는 그와 화해할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목회자가 맹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녀는 주 예수께 직접 사명을 받았다는 점과 더불어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릴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셨다고 주장했다. 미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마리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주장했다.(요한복음 20:17.)

그 후에 사이프 부인은 바울이 로마서 16 장을 통해 여성 사역자 여러 명을 칭찬했다고 언급했는데, 특히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왔던 뵈뵈 목회자는 로마로 간 뒤에 바울의 칭찬을 받았다.(로마서 16:1, 2.) 그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주었다.(로마서 16:3, 4; 사도행전 18:18, 26.)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성 지도자들을 언급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행정을 책임졌고 드보라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안나와 더불어 빌립의 네 딸은 예언을 했다.(미가 6:4; 사사기 4:4-9; 누가복음 2:36-38; 사도행전 21:8, 9.)

그녀는 고린도전서 14 장에서 혼란을 막을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말씀에는 동의했지만 같은 장에서 남성들에게도 특정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고린도전서 14:34, 28.)

그녀는 사도행전 2:17, 18 절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이 예언하리라고 미리 내다봤다. 그런 다음 동료 남성 목회자에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면서 현대 문명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남성과 함께 일할 자격을 갖춘 조력자로서 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다. 이방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짓밟히고 아래 사람 취급을 받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성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니는 오클라호마에서 오직 축복이 되고자 목회를 하긴 했지만 이방 여성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이프 부인이 변론을 끝낼 무렵 다른 목회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그의 행복을 빌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녀가 전했던 호소의 말이 통했다. 그 목회자는 그녀의 사역에 대해 다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그녀를 친구로 대했다.

1902년 7월 중에 오클라호마 합회장이었던 G. F. 하프너 목사는 집과 퍼트남을 방문했다. 그는 집에서 사이프 부부가 처음 세웠던 교회를 찾아갔다. 이제 미니의 설교 및 방문과 더불어 로건의 찬양과 조력 등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심히 사역한 결과, 하프너 목사는 개종한 일곱 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신앙고백을 통해 여러 다른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여서 퍼트남에 새로운 교회를 조직했다.

합회장은 퍼트남에 있는 동안 여러 목회자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수선하게 행동하는 청중 탓에 좌절하고 말았다. 그 여성 목회자는 그런 행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임을 입증해 보였다.

합회장은 떠나면서 주님의 여종을 칭찬했다. 하프너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이프 부부처럼 신실한 다른 일꾼들을 일으키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는데, 이는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결과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켰다.(G. F. 하프너, "집과 퍼트남 방문," 남서부 연합 기록, 1902년 7월 7일에서 발췌.)

미니 사이프는 퍼트남에서의 사역을 양육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탈로가에서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사이프 부인은 퍼트남과 탈로가에서 사역하던 중 이번 장 첫머리에 언급했던 논쟁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했다.

미니 사이프는 남편의 도움으로 퍼트남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었고, 개종시킨 42명은 주 안에서 기뻐했다.

사이프 가족이 1902년 9월에 지붕 덮힌 마차를 타고 도착했던 오클라호마 연례회의 및 캠프 미팅에서 미니 사이프는 남성 목회자 18명과 함께 인준 목사가 되었다.(당시 오클라호마 합회에는 합회장을 비롯해서 안수 목사가 여덟 명 밖에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교단의 성장 초기에는 여성이 다수의 남성 목회자와 함께 신임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합회 위원회에서는 목회 신임서를 발급해서 교회들을 성공적으로 세운 사이프 부인의 사역을 인정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미니 사이프는 목회자의 기존 업무를 대부분 해냈다. 그녀는 1902년 9월 30일에 인디언 특별 보호구 애딩턴에 사는 W. L. 맨폴과 오클라호마 준주 집에 사는 머틀 데이의 결혼식을 주례했다. 신부는 목회자의 여동생이었다. 기록에 그 결혼식에 대해서 쓴 사이프 부인의 기사를 보면 신부와 신랑이 모두 예전에는 아이오와 주 출신이었는데, 맨폴 씨가 교회 소속으로 "선하고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한다.(남서부 연합 기록, 1902년 10월 13일.)

[p.33]

사이프 부인은 여름 동안 장막전도에 집중하다가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천막에서 전도하기 힘들어지면 학교 건물이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집에서 집회를 여는 방식을 취했다.

그녀는 열심히 사역한 뒤에는 눈에 띄는 성공으로 대개 보답을 받았지만 모든 노력이 금방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었다. 탈로가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퍼트남에서는 그녀의 사역을 통해서 새 개종자들을 계속 끌어 모았지만 탈로가에서는 그 젊은 목회자가 전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 거센 저항감이 드러났다. 사이프 부인은 설교 26 차례와 방문 41 차례 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탈로가에서 집회를 접고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백할 수 있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녀는 모든 이웃이 확신은 있지만 회심하지는 않은 듯하다고 탈로가에 대한 평을 했다. 그래서 사이프 부부는 1904년 초에 오클라호마 주 메노로 가서 집회를 열었다. 그 당시 편지를 살펴보면 미니 사이프가 실패를 겪었음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건은 미니가 집회를 하는 데 돕기도 했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천막 치는 일을 감독하고 준비 찬미를 인도하며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손을 보탰다. 사이프 부인은 이렇듯 반가운 도움에 힘입어 설교하고 기도하며 방문하고 고된 전도사역에 임했다. 그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이프 부인이 오클라호마 농가에 그와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미니의 여동생은 결혼 후에 언니의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가 없었다.

오늘날 이동주택의 선구자격인 사이프 씨는 마차 위에 집을 지어서 마차를 타고 집회 장소에 갈 수 있게 하다 보니 가족이 천막에서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사이프 부인은 이런 방법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뻐다.(사이프, 자서전, 85.)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기발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돌보았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집회 중에는 부모가 잘 볼 수 있는 강단 위 풍금 뒤에서 어린 안나를 재우기도 했다.

메노에서는 사이프 부인의 전도사역을 통해 다섯 명이었던 교인이 29 명으로 늘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지만 아직 교인은 아니었다.

A. E. 필드 안수 목사는 메노에서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왔다가 어느 75 세 노인이 담배를 끊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미니 사이프는 고된 사역에 비해 보잘것없는 금전적 보수를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 그토록 뚜렷한 증거를 경험하는 데서 큰 "보상"을 받았다.

사이프 부인은 교회를 청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청년회를 조직했다. 메노에서는 썩 좋지는 않지만 늘상 있어왔던 일이 벌어졌는데, 주류 교단의 어느 목회자가 재림교인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것이다. 미니가 지혜롭게 상황을 마무리한 덕분에 그 설교자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반대하던 대의명분을 오히려 돕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공격을 멈췄다.

1904 년 오클라오마 합회 연례회의에서 합회장은 미니 사이프 부인의 사역을 언급하며 두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약 42 명에게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퍼트남 교회에 새 신자가 15 명 늘어났고, 메노 인근에서 열었던 집회로 25 명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콩코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p.34]

합회장은 이어지는 보고를 통해 사이프 부인이 그해에 설교 244 차례, 성경낭독 89 차례, 방문 484 차례, 교회신문 구독 22 건 달성 등 열심히 사역했다고 언급했다.

전체 목회자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미니 사이프가 합회에서 제일 결실을 많이 맺은 전도자로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FG. F. 하프너, "합회장 연설," 기록, 1904 년 9 월 12 일에서 발췌.)

이때까지 사이프 부부의 사역은 이전에 재림교회가 없던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보내기 위해 1905 년에 재림교회의 사역이 확실히 자리 잡은 이니드에서 사이프 부인에게 목회자로 오라는 초청이 오자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그 도시의 모든 곳에서 사역을 위한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1905 년 5 월에 사이프 부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총회 회기에 참석하며 영감을 얻었다. 돌아온 뒤 미니는 남편의 도움을 힘입어 이니드와 메노에서 열심히 사역했다. 미니가 대총회 회기와 8 월 중순 사이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방문 118 차례, 설교 34 차례, 기타 집회 10 차례, 성경낭독 12 차례를 했다고 나와 있다.

이니드에서 기존의 교회와 학교를 감독하던 미니는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 생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사탄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하지만 미니는 부단히 기도하며 위기를 해결했고, 교인들은 개종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

사이프 부인은 이니드에서 정기적으로 전도회를 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할 자신의 교회를 조직했다. 교인들은 기독교 서적을 팔고 독서대를 채우며 기독교 자선 협회를 운영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교회 신문을 팔았다. 교인수가 꾸준히 늘었다.

사이프 부부의 자녀 중에 제임스와 안나는 이니드 교회학교에 다녔지만 로스는 텍사스 주 킨 공업 학교에 다닐 만한 나이가 되었다. 미니 사이프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아들을 따라 텍사스에 있는 학교에 가기로 했다. 그녀는 겨울 중에 킨에서 연합회 회의가 열릴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때 합회장은 사이프 부인에게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라며 다급히 호소했다. 그래서 그녀는 필요한 추가 준비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열린 오클라호마 합회 회의에서는 1905 년 8 월 27 일 합회장의 연례 보고서에 미니 사이프와 다른 목회자들의 사역을 요약해 놓았다. 먼저, 합회

안수 목사들의 사역을 진술했다. 그 후에 합회장은 미니 사이프 자매의 사역을 보고했는데, 그녀의 수고 덕에 교인이 31 명 늘었고 대부분 지역교회 장로에게 침례를 받았다. 또한 예비 교인 아홉 명에서 열 명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FG. F. 하프너, "합회장 연설," 기록, 1904 년 9 월 12 일에서 발췌.)

다른 목회자들의 침례자 수가 사이프 부인의 침례자 수(40 혹은 50 여 건)를 넘을 때가 간혹 있었는데, 이는 목회자 두 명 이상이 함께 사역한 경우를 나타냈다.

[p.35]

반면에 미니는 남편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혼자 사역했는데, 다른 모든 목회자 팀도 배우자의 도움을 당연히 받았다.

사이프 부부는 1905 년에 캠프 미팅을 마친 후 이니드에서 캐리어로 이사했다. 진리에 반하는 결정을 하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림교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프 부부는 천막을 친 뒤 낮에는 집집 방문을 하고 밤에는 설교하는 고된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마을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적대적이다 보니 재림교인들을 거의 집에 들이지 않았고, 행여나 집에 들이더라도 종교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도자와 남편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편견 만고도 캐리어에서 열리는 축제와 춤과 공연이었다. 어느 공연은 전도회 천막에서 약 50 야드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밤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회 천막에서는 집회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이프 부부는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는 집회를 진행시켰고, 미니 사이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온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설교했다.

반대편의 다음 전략은 더 직접적이었다. 어느 날 밤 사이프 부인이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머리 바로 위 천막 지붕에 큰 돌들이 쿵 하며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모여 있던 신자들은 깜짝 놀랐다. 설교자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신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돌들의 겨냥 상대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었다. 사이프 부인은 다칠 사람이 있다면 자신과

남편일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차분하게 설교를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결국 퍼붓던 돌이 멈췄다.

다음 날 사이프 부부가 세어보니 돌 35 개와 석탄 덩어리가 던져진 상태였다. 그런데 천막에 구멍 몇 개 난 것 말고는 아무 피해가 없었다. 그들은 늘 그날 밤을 회상하며 예수를 신뢰했기에 특별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사이프 부부는 겁에 질려 마을을 떠나기보다는 더 굳건하게 남아있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10 월 12 일까지 집회를 계속하다가 계획대로 천막을 걷었다.

캐리어에서 쉽지 않은 집회를 마친 뒤 몇 가지 좋은 결실을 맺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던 가족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진리의 모든 면에 더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이프 부부는 천막을 걷은 뒤 캐리어에서 5 마일 떨어진 학교 건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사이프 부인은 성경의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 꽉 찬 이곳에서 거듭 말씀을 전했다. 그녀는 통역사의 도움으로 그 지역 독일 재림교인들에게 기꺼이 설교하기도 했다.

미니 사이프는 5 년 동안 오클라호마 준주에서 부지런히 사역하며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존의 교회들을 확장 및 강화시켰다.

그런데 그녀의 건강은 썩 좋지 않은 상태였다. 오클라호마 주의 많은 지역 물에는 센물에 흔히 있는 석고라는 알칼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사이프 부인은 위장에 탈이 많이 났다. 그녀는 자주 오래 토하며 힘들어했다. 의사들은 기후를 바꿔보라고 권했다.

[p.36]

아이오와 합회장은 1905 년에 오클라호마 캠프 미팅을 방문했다가 사이프 부부에게 고향인 아이오와로 돌아오라며 권고했다. 다음 해가 되자 가족은 사이프 부인의 건강을 고려한 뒤 아이오와에서 사역해 달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1906 년 5 월 1 일에 이니드를 떠났다.

로건과 미니 사이프는 아이오와 땅에 다시 발을 들여놓고 감격에 겨웠다. 부부 뿐만 아니라 세 아이들이 다 그 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미니 사이프는 가족을 방문하던 중에 애프턴에서 집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다. 합회장은 그녀에게 6월 캠프 미팅까지 그 목회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미니 사이프가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해 처음 들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제 애프턴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다채로운 경험이었다. 동시에 가족을 방문할 수도 있었다. 미니는 집회와 더불어 몇 년 동안 드린 기도와 간증의 결과로 여동생 두 명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사했다.

1906년 6월에 열린 제 43차 아이오와 합회 연례회의에서 목사와 인준목사 신임서 위원회는 7명을 안수 목사로 추천했고, 미니 사이프 부인을 비롯해서 19명을 인준 목사로 올렸다.("합회 의사록,"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 1906년 6월 19일: 195.)

사이프 부부는 캠프 미팅이 끝난 후 페어필드에 있는 아이오와 주의 남동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기존 교회가 있었지만 교인들이 이사를 간 상태였고 출석생 수도 많지 않았다. 사이프 부인은 그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눴다. 그녀는 교인들과 함께 집집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미니는 설교하며 사역의 체계를 세웠다.

페어필드에서의 사역은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다. 미니 사이프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갓 구입한 멋진 천막은 1906년 8월 15일에 페어필드를 강타한 회오리바람을 맞아 시험대에 올랐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사이프 부부는 천막사역을 시작한 이래 제일 극심한 폭풍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천막과 사람들이 다 산산이 부서질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지붕이 벗겨지며 헛간이 허물어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전도팀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천막들도 아주 낡은 가족용 천막이 약간 찢어진 것 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견고한 전도회 천막을 보고 놀랐다.

그 지역 목회자들은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재림교인들에 맞서 온갖 궁리를 하며 일했다. 어느 날 사이프 부인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의 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양떼를 흩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애쓰는 목회자를 보게 되었다.

사이프 부인은 페어필드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성경 교육자로는 안나 캠프가, 말씀과 방문, 음악 담당으로는 캐비니스 가족이 도움을 주었다. 사이프 부인은 지역신문에 실릴 교리에 대한 짧은 기사를 준비했다.

인근 리버티빌 사람들이 사이프 부인의 설교에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페어필드 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사역을 시작했다. 그녀가 리버티빌에서 호소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기도하기 위해 앞으로 나온 여덟 명 중 여섯 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p.37]

어느 스웨덴 감리교회 목회자는 페어필드에서 사이프 부부와 함께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 도표를 주문했다. 사이프 부부는 그 목회자가 자신의 교인들에게 재림교회의 신앙을 얼마나 전했을 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미니 사이프는 절박함을 느꼈다. 인간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이 페어필드 마을에서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결실은 특히 고무적이었다. 8월 31일 안식일에 다섯 명은 신앙고백으로, 두 명은 서신을 통해서 페어필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세 명은 침례를 앞두고 있었다. 미니 사이프는 폭풍우와 반대를 무릅쓰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사역한 후 그 안식일을 축하의 날로 생각했다. 그녀와 나머지 팀원들은 페어필드에서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사이프 부인은 그해에 페어필드에서 목회자이자 전도자로 사역하는 동안 교인들을 이끌고 희생하며 일한 결과 교회의 빛을 다 갚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사이프 부인은 1906 년에서 1907 년 겨울에 다비빌에서 집회를 열었다. 4월 12일에 집회가 끝나자 어른이 대부분인 12명이 교회와 연합했다. 남성 개종자들 여러 명이 상습적으로 카드놀이를 하고 위스키를 마시며 담배 피우던 습관을 끊었고, 이 전도자는 그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다.

미니 사이프는 합회의 전반적이 사역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되었다. 1907 년에 열린 캠프 미팅과 합회 회의에 앞서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에 나온 "캠프 미팅 학술 토론회"를 살펴보면 여러 남성 목회자들과 더불어 사이프 부인이 유일한 여자 기고가였던 점을 알 수 있다.

합회 회의 중에 안식일학교 교과를 매일 공부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출판된 보고서에는 안나 사이프가 빨래하고 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서 안식일에 가르칠 준비를 했다. 그녀가 전에 가르쳤던 안식일학교반 학생이 그곳에서 배웠던 내용 덕분에 가족 중 재림교인이 없음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들었다. ("합회 의사록, 제 11 차 회의,"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 1907 년 6 월 18 일, 193 ff.)

사이프 부인은 인준 목사의 신임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합회 목회팀의 소중한 일원이었으며, 오클라호마 합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오와 합회에서도 안수 목사보다 인준 목사를 더 많이 채용했다.

사이프 전도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그녀는 윈스롭에서 E. G. 올슨 안수 목사의 도움을 잠시 받았는데, 그는 사이프 부인을 돕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이프 부인은 스튜어트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을 보러 갔다가 학생들을 위한 신앙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어느 날 채플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교장의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까다로운 고등학생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할지 알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필요한 기별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p.38]

그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힘 없이 기별을 전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부흥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이프 부인을 통해서 다양한 층에 다가가실 수 있었다. 어린이,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설교를 힘있고 역동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여겼다.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그녀의 됴됨이와 설교에 대한 추억을 회상했다.(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989년 8월 5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헨더슨빌에서 W. A. 하우(부록 A, 2.1 참조); 1984년 7월 7일에 워싱턴 주 알링턴에서 조셉 S. (로렌) 무어 부인 (부록 A, 2.2 참조); 1984년 7월 15일에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서 J. M. 소렌슨 박사, 부록 A, 2.3 참조.)

사이프 부인은 1908년 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연합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아이오와 합회 위원회에서는 그녀를 아이오와 주의 북서부 외딴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로건은 간병하던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신 관계로 미니와 함께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프 부부는 1908년 5월 13일 저녁에 하워든에 도착했고 그날 밤에 사이프 부인은 여러 교단이 주관하는 연합 기도모임에 참석했다. 네 목회자 중 한 명이 마지막 때 이전에 평화로운 기간이 올 것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를 들은 그녀는 걱정스러웠다. 미니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이 목회자들을 주시하다가 "나는 누구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며 자문했다. 그녀는 39세의 나이에 정규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다. 이점이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묻던 그녀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스가랴 4:6)는 말씀에서 명확한 답을 얻었다.

미니는 다음 날 천막을 칠 장소를 물색하다가 어느 침례교회 목회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목회자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당신이 구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미니는 "침례교인들이 율법 문제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을 저희는 실천에 옮길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침례교인들은 십계명에 대해 설교하고 저희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 설교자는 이내 날씨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고 두 사람은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 사이프 부인은 침례교회 선교집회에서 시간을 써달라고 초청을 받았다.

사이프 부부가 작은 천막을 세운 다음 큰 천막을 치려고 준비하는데 한 남성이 바로 그 땅에 나무를 심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말을 걸고 싶다고 요구했다. 사이프 부부는

그 공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했다면서 그에게 장담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사이프 부부가 한 사람과 계약하는 동안 그 정원사는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이프 부부는 이렇듯 불쾌한 현실에 맞닥뜨린 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다음 사이프 부인은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중개업자를 만나 땅 사용료로 5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되면 정원사가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수고에 대해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후 사이프 부부는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감사했다.(이 일을 통해 사이프 부인의 문제해결 방법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녀는 먼저 주님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한 후 영감과 기발한 생각이 떠오를 때 조치를 취했다. 1908년 당시 5달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

이윽고 대형 천막을 제자리에 세웠다. 대형 천막을 세운다는 자체가 온 지역사회의 관심을 끄는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하워든에서 신나게 천막을 친 다음 날 밤에 거대한 폭풍우가 그 지역에 몰아쳐서 대형 천막과 소형 천막이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말았다.

[p.39]

사이프 부부는 이를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처음부터 다시 하기를 바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소나기가 내리는 사이사이에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일하면서 천막을 다시 세웠다.

사이프 부인은 이렇게 기록했다. "비와 폭풍우 때문에 방해를 받기는 했지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더 나은 기회로 만들었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중입니다.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히 보이며,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현장 보고서에서 발췌. 하워든,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 1908년 7월 14일: 2, 강조 표시 추가.)

미니 사이프는 반대를 무릅쓰고 안식일 예배를 시작했다. 그녀가 하위든에서 사역하던 규모는 J. W. 맥코마스 인준 목사가 미미한 성과를 낸 집회를 접자 사이프 부인을 한동안 지원하도록 파견될 정도였다.

장막집회가 끝나자 미니 사이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어른 아홉 명에 대해 보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력자들과 함께 매주 28 가정의 집에서 성경공부를 했다. 안식일 예배에 출석하는 수가 점점 늘었다. 하위든에 교회를 조직했고 이후 교회학교를 세웠다.

토마스 더스트가 인사이트 잡지 편집장에게 보낸 편지 및 필자와 나눈 서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사이프 부인은 하위든에 있는 동안 교인이 될 준비를 시킨 후보자 적어도 한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한다. 토마스의 어머니 릴리안 더스트는 가축용 물탱크에서 전임 목회자였던 미니 사이프에서 침례 받은 이야기를 오래 동안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토마스 더스트, "진정한 여성 설교자," 인사이트, 1974년 5월 7일: 2-3 (이 책의 2 페이지 참조); 또한 토마스 E. 더스트가 워싱턴 주 콜빌에서 1984년 5월 28일에 필자에게 보낸 개인 편지와 일반 편지. 부록 A, 2.4 참조.)

사우스다코타 주의 경계 쪽에 북서쪽으로 외딴 곳에 있었던 합회 사무실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곳에 하위든이 있어서인지 합회 지도부는 안수 목사의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 사이프 부인이 준비시킨 후보자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허용할 때가 있었다.

사이프 씨는 목 상태 때문에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 없게 되자 둘째 아들 제임스를 데리고 인근 주에 사는 미니의 여동생 농장에서 지냈다. 미니는 이 기간 동안 외로웠고 집회에서 찬양을 이끌던 남편의 도움을 많이 그리워했다. 얼마 후 남편과 제임스를 찾아간 그녀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농장에서 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역을 그만두는 일에 대해서 남편도 아들도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녀의 은사를 알아본 가족은 그녀가 늘 적극적으로 전도에 임하기를 바랐다.

미니는 가족의 든든한 지지를 힘입어 돌아왔고 최선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일대일로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외로운 집에 돌아와서는 밤에 울다 잠이 들곤 했다.

몇 달 후 사이프 부인이 주로 시더 래피즈로 옮겨서 사역을 할 무렵에 남편은 그녀와 합류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져서 제임스와 함께 돌아왔다. 사이프 부인은 그 지역 전도회를 위한 대규모 전도팀의 일원으로 섬겼다.

[p.40]

하지만 그녀는 주의 서부 쪽으로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시작했던 사역을 더 굳건히 다지기도 했다.

그녀는 항상 효율적으로 서적과 잡지를 팔면서 현대 진리를 전파하고 때로는 경비도 충당하려고 애썼다. 사이프 부인은 그 경험을 인정받아 1908년 문서전도인협회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선교사 사역 시 재림교회의 인쇄물 사용법에 관해서 영적이고도 실제적인 조언을 해준 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더 래피즈에서 제임스는 행실 문제로 부모의 염려를 샀지만 배려심 있는 아들이었는데,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어느 가정을 도왔는데, 남편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죽자 제임스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말고는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때부터 제임스는 계속 밤에 일하면서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에 제임스가 그 지역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성이 짐을 놓고 여러 사람과 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제임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타격을 가했다. 제임스는 며칠 동안 살아남았다. 그는 안식일에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어머니가 기도한 뒤 그도 기도했다. 이내 그는 1911년 12월 10일에 숨을 거두었다. 그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제임스의 장례식을 치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병을 얻게 되어 미니의 여동생과 남편인 맨폴 부부가 있는 캐나다로 건너갔다. 맨폴 목사는 캐나다

기후가 사이프 씨의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미니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다.

미니의 삶에 긍정적인 일도 있었다. 큰아들 로스가 1912년 6월 12일에 오크 파크 아카데미를 일등으로 졸업했던 것이다. 사이프 부부는 아들의 학업적 성취와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더없이 기뻐했다. 안나도 학교에서 잘 해내고 있었다.

로스와 안나가 학비로 벌 수 있는 돈을 제외하고는 가족을 위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미니에게 끊임없는 도전과제로 다가왔다. 이제 제임스의 장례식을 위해 예기치 못했던 빚이 더해지면서 사이프 부인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일이 있기 불과 몇 달 전 사이프 부인은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집과 재산이 불타버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은 점은 감사했지만 옷장에는 그때 입고 있었던 옷과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짐밖에 없었다. 그녀가 교회의 차 입으려고 사 두었던 새 정장과 다른 옷은 까맣게 타서 입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화재로 잃어버린 옷장과 기타 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재정적인 충격이 상당했다. 미니의 지출이 산더미 같이 쌓여가는 반면에 받는 급여는 적었다. 그녀는 한동안 급여를 늘리려고 햇볕 가리개 모자를 바느질해서 팔았다. 하지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사이프 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원하신 방법에 대해 언급한 인생 경험을 책으로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 일을 맡기로 결정했다.

[p.41]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그녀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일 듯했다. 그녀의 책은 1912년을 넘기기 전에 배포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모든 정규 사역을 이어가면서도 책을 썼으며, 마감일이 임박할 때만 일정을 한 번 소화하지 못했다. 그 책의 제목은 선교사 사역에서의 자서전과 경험이었다.(미니 사이프, 선교사 사역에서의 자서전과 경험 아이오와 주 시더

래피즈: 토치 출판부, 1912). 합회 직원들은 선교사 사역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수단으로 이 책을 추천했다. 사이프 부인의 책에서 나오는 수업으로 로스는 사우스 랭커스터 아카데미에서 상급반을 수강하고 안나는 오크 파크 아카데미에서 1912-1913 학년도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프 부인은 1916년에 그 책을 개정했다.(미니 사이프, 선교사 사역에서의 자서전; 미네소타 주 허친슨: 신학대학원 출판부, 1916.)

사이프 부인은 시더 래피즈에서 주요 활동을 한 뒤에 후속 사역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치며 의료사역을 실시하기 위해 직원과 평신도를 조직한 결과 침례자가 나왔다. 미니와 같은 인준 목사로 그녀의 집회 시리즈를 도와주던 J. W. 맥코마스는 이 즈음에 안수를 받아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미니 사이프는 매년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며 결실을 맺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수 진행과정에 동참할 수 없었다.

1912년 7월 30일자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를 살펴보면 미니 사이프가 집례했던 두 차례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녀는 부고를 잘 작성해서 회보에 보냈다. 그녀는 목회자로 사역하던 페어필드로 와서 부튼 씨의 장례식을 집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메리 그리어라는 사람은 그 전도자가 열었던 집회 시리즈를 통해 개종했다. 사이프 부인이 두 장례식에서 설교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합회 내에서 그녀의 사역이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띠는지 알 수 있다.

미니 사이프는 아이오와 주 마리온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사람의 이름만 받은 뒤 1912년 10월에 그곳에 가서 안식일학교를 열었다. 사이프 부인이 매주 성경공부를 가르치던 중에 관심을 보이던 어느 여성이 이웃과 친구를 초청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처음 집회에서 안식일학교에 28명이 출석했다. 그와 동시에 사이프 부인은 마리온 교도소에서 일요일 아침 집회를 열며 시더 래피즈 일간신문에 기사를 제공하고 수확운동 캠페인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사이프 부인은 아이오와 합회를 돌아다니며 교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쇼프바흐 목사가 병에 걸리자 사이프 부인은 건너편인 아이오와 주 캐롤로 가서 그가 이끌던 집회 시리즈를 계속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사이프 부인의 사역 덕분에 캐롤에는 신자들이 생겼고, 그녀는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지역의 국내 선교사 및 청년협회를 도입하는 일에 교인들을 도왔다. 1914 년 3 월 즈음에는 캐롤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건물을 헌당했다.

어린 시절 캐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에블린 로브슨 파우스트는 사이프 부인의 설교가 온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글을 남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이프 부인의 설교를 듣고 재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철저히 확신하게 되었다.

[p.42]

[photo #1]

대형 천막에서 전도집회가 열렸고, 가족과 때로는 서적 판매를 위해 소형 천막을 사용했다.

[photo #2]

(오른쪽 앞) 아이오와 주에서 전도자 미니 사이프, 남편 로건, 딸 안나, 친구.

사진 제공: 미니타 사이프-브라운.

[p.43]

로브슨 씨는 그 후 가족이 살았던 집 세 채 중 집에서 교회학교를 열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가족 용도로 쓰지 않고 기꺼이 포기했다. 그는 딸들은 물론 다른 모든 재림교인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에블린 로브슨 파우스트가 캘리포니아 주 세리토스에서 1984 년 7 월 27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부록 A, 2.5 참조.)

L. P. 사이프는 1914 년 여름에 건강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캐나다에서 돌아와 아이오와 주의 중서부 지역인 레이크 시티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부인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 베시 시즈이 성경 교육자로 합류하면서 완전한 팀을 이루었다. 사이프 부부는 2,000 여 명이 거주하는 레이크 시티의 중심부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근처에는 영화관, 문화 강연회 강당, 순회공연 등 명소가 많았다. 하지만 미니 사이프와 동역자들은 레이크 시티에서 하나님께 요청 받은 사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쟁쟁한 경쟁 상대가 있음에도 사람들을 보내주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했다.

사이프 부인의 설교를 통해 보람찬 관심을 얻게 되었다. 레이크 시티에 친 천막에는 무려 250 명이나 참석해서 꽉 차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집회는 7 월 4 일을 비롯해서 매일 밤 열렸다. 미니가 청중의 열렬한 관심을 제일 많이 받고 각 주제에 대한 서적을 배포했을 때 제일 호응이 좋은 곳은 레이크 시티였다. 그 결과, 사이프 부인과 조력자들은 25 명에서 32 명이 참석하는 안식일학교를 시작했다.

사이프 부인은 아직도 캐롤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사이프 씨는 그곳에서 서적을 배포했다. 어느 성경 교육자는 레이크 시티에서 집집방문을 했다. 그런데 그랜드 시티의 교인들이 사이프 부인에게 레이크 시티 근처 마을에서 재림교회의 사역을 부흥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사이프 부인은 그랜드 시티에 펠멀더 가족의 땅에 붙어 있는 교회 마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열 두세 살 된 도로시 펠멀더는 그 집회를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레이크 시티와 그랜드 시티에서 열린 집회의 결실로 미니 사이프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 침례식은 1914 년에 라쿤 강에서 열렸다. 도로시 펠멀더 블레인 키슬러의 딸 조이 에스테스와 며느리 마리엘 진 블레인은 이 기록을 제공했다.(마리엘 진 블레인이 캘리포니아 주 레드랜즈에서 1984 년 7 월 28 일과 10 월 15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부록 A, 2.6 참조); C. 조이 에스테스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1989 년 1 월 16 일에 필자와 한 통화; 부록 A, 2.7 참조). 키슬러 부인은 침례식 외에도 사이프 부인이 가톨릭 신자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상당히 격앙되면서 발을 굴렀다는 추억을 즐겨 나누곤 했다.

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집회와 강가에서 거행된 침례식에도 참석했던 헤이즐 할버슨은 사이프 부인에 대해 매력적인 성품을 지닌 흥미로운 설교자이며 체구가 크고 꽤 명망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했다.(헤이즐 할버슨이 1989 년 6 월 18 일에 필자와 한 통화에서 발췌.)

1914 년 즈음에 로스 사이프는 어머니와 더불어 아이오와 합회의 목회자였다. 합회 행정부는 그를 어머니와 함께 사역하도록 배정했고 두 사람은 데니슨, 캐롤,레이크 시티, 리나드에서 사역하도록 배정받았으며 매 안식일에 각자 두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다.

[p.44]

1915 년 7 월에 미니 사이프는 아들과 리나드에서 집회를 열었을 당시 거의 300 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이제 사람들은 차를 타고 와서 집회에 참석했다. 1915 년 아이오와 캠프 미팅에서는 새 차들을 보호 차원에서 대형 천막을 쳤다.(플로라 사역자 회보, 1915 년 5 월 18 일: 4 에서 발췌.)

엘렌 하몬 화잇은 1915 년 7 월에 캘리포니아에서 88 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이때까지 미니 사이프의 모든 목회는 화잇 부인의 목회와 동시대에 이루어졌다(7 장).

당시 아이오와 주에서 조직된 교회의 사역으로 바빴던 여성은 사이프 부인만이 아니었다. 1915 년에 합회 임원 선거에서 플로라 도르카스 부인은 합회 총무부장으로 재선출되었고 메타 피터슨은 현장 선교부장이 되었으며, 그 두 사람은 안교부장직을 공동으로 맡았다. 아이오와 합회 행정자들은 목회에서 여성들의 은사를 쓴다는 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미니 사이프는 1916 년 6 월에 아이오와 합회의 국내 선교부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그녀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이오와 주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기꺼이 섬기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W. A. 하우 목사는 어린 시절 이 시기에 디모인의 고향 교회를 방문했던 사이프 부인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은 교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W. A. 하우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헨더스빌에서 1985 년 8 월 5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부록 2.1 참조.)

미니 사이프는 아이오와 주에서 4 년 동안 국내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1920 년에서 1926 년에는 워싱턴 주 합회와 어퍼 컬럼비아 합회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기 위해 서부로 옮겼다.

사이프 씨는 몇 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1925 년에 숨을 거두었다. 그의 미망인은 남편이자 사랑하는 친구였던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역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나누었고 거친 고난의 폭풍우를 견뎌냈으며 내내 서로를 도왔다.

사이프 부인은 동부 펜실베이니아 합회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 동부로 이사했고, 이후 1926 년에서 1927 년 동안 와치맨 잡지(남부 출판협회, 테네시 주 내슈빌)의 유통관리자로 여행했다. 그런 다음 북서부로 돌아와서 1927 년부터 1930 년에 은퇴할 때까지 어퍼 컬럼비아 합회에서 전도 및 구역 사역에 몸담았다. 그녀가 은퇴할 당시 61 세밖에 되지 않았으며 교회 네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그 목사는 재혼 때문에 은퇴하게 되었는데, 1930 년 11 월 10 일에 아테베리 씨와 결혼했다. 교회 행정자들은 그녀에게 즉시 부양료를 신청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녀의 부양료 신청 날짜가 한 달 뒤인 1930 년 12 월 13 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미니는 약간 불쾌감을 드러냈고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녀가 신청서에 기재한 아래 답변을 살펴보면 그녀가 계속 일하기 위해서 급여가 필요하며 아직도 그 수입을 벌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p.45]

[photo]

미니 사이프는 오클라호마 준주, 아이오와, 워싱턴 주, 바하마 등 널리 흩어진 지역에서 1902 년부터 1956 년까지 인준 목사로 섬겼다. 이 사진은 북서부 지역으로 옮긴 뒤 찍었다.

사진 제공: 미니타 사이프-브라운.

[p.46]

4. 급여로 보상을 받은 경우, 마지막 주급: 25 달러. 기간: 현재. 소속: 어퍼 컬럼비아.

5. 이 사역에서 받은 급여 중 가장 높은 주급: 32 달러. 기간: 3 년 전까지. 소속: 워싱턴과 어퍼 컬럼비아.

16. 주택을 소유 여부: 없음. 남편이 땅 40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개선의 여지가 없음.

17. 주 재산 가치: 없음.

18. 별개의 수입, 연금 등의 여부: 없음.

20. 기타 정보 혹은 제안사항: 아테베리는 62 세입니다. 자동차 및 땅 40 에이커가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며 저를 돕고 서적을 판매하는 데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아직 일할 수 있는 여부"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꽤 잘 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합회에서는 부양료 신청서 란에 아래와 같이 작성했다:

1. 위원회 혹은 이사회에서 신청인이 활발히 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기간: 1930 년 12 월 9 일.

위원회가 보기에 그녀를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남편과 결혼한 점 외에는 "신청인"이 "활발히 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조짐이 없다. 윌리엄스 부인의 경우처럼(1 장) 보수는 결혼 여부와 관련이 있었으며 일에 대한 지급은 아니었다. 사이프-아테베리 부인은 1902 년부터 인준 목사로 급여를 받아오다가 61 세에 은퇴했는데, 그녀의 일로 받는 수입 외에는 부부가 의존할 수 있는 수입이 없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사역하며 건강했던 듯하다. 그녀의 부양료 소득으로는 매주 10 달러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부양료 신청, 미니 사이프-아테베리 부인, 1930 년 12 월 13 일. 대총회 기록보관소.)

미니 사이프-아테베리는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갔다. 그녀가 공식적인 은퇴 전후로 북서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며 사역했던 추억이 다채롭게 남아있다.(힐다 웨스트

부인이 워싱턴 주 사우스 클 엘름에서 1984 년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부록 A, 2.8 참조.) 사이프-아테베리 부인은 인준 목사 자격을 유지하며 워싱턴, 플로리다, 바하마에서 사역했다.(미니타 사이프-브라운이 플로리다 주 키라고에서 1984 년 10 월 29 일에 필자에게 쓴 편지에서 발췌. 부록 A, 2.9 참조.)

아테베리 씨가 사망하자 미니는 이후 다시 결혼했다. 그녀의 후손에 따르면 그녀가 말년에 결혼했던 이유는 주로 결혼 상대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일리가 있을 듯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회 신임서를 발급받은 당시의 이름은 미니 S. 크리핀 부인이었다.

이 개척자 목회자이자 슬기로운 주부는 오래 동안 활발하게 평신도 사역에 임한 뒤 28 년 간의 정규 사역을 통해 전도자, 목회자, 부서 부장, 출판물 유통관리자로 주님을 섬겼고 몇 년 동안 활발하게 은퇴생활을 했다.

[p.47]

그녀는 1956 년 6 월 23 일에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87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수고 덕분에 최소 10 곳의 교회가 세워졌다.(안나 그레그 햄린(미니 사이프의 딸)이 1984 년 7 월 2 일에 필자에게 쓴 편지에서 발췌.) "어머니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오클라호마에] 최소 다섯 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캐롤,레이크 시티, 칼마르, 하위든에 새 교회를 세우신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아이오와 주 데니슨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54 년 동안(1902 년-1956 년) 인준 목사로 섬겼다.

비난과 가난,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 여성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더 나은 기회로 만들었"다. 그 결과, 기념비적인 인생 사역을 하게 되었다.

[p.48] blank page

[p.49]

우리 정부는 종교적 정부가 아니라 시민 정부이다. 이는 세상에서 역대 가장 위대한 정부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고 명시한 우리의 훌륭한 제도에 혁신이 없었으면 한다.

-----롤루 화이트먼, 1909 년

3 입법 기관을 위한 목회자

롤루 화이트먼

인준 목사(1897 년-1907 년, 1909 년-1910 년)

안수 목사(1908 년)

뛰어난 재림교회 목회자이자 행정가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센트럴 연합회장 E. T. 러셀 목사와 체서피크 합회의 초대 합회장 K. C. 러셀 목사를 오빠로 둔 여청년 롤루 러셀은 목회야말로 참된 부르심이라고 여겼다.

롤루 화이트먼은 젊은 기혼 여성으로서 전도에 부르심을 받는 경험을 했다. 그녀의 남편 존은 한결같이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롤루 화이트먼이 받은 부르심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했다.

이 젊은 여성의 목회 참여에 대해 모두가 열의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뉴욕 합회에서 저명했던 J. W. 레이몬드 목사는 1896 년에 롤루 화이트먼을 뉴욕 주 쿠바 전도팀에 합류시켜 달라는 합회 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 하지만 그가 작성한 제안서를 살펴보면 롤루가 한 봉사에 대해서는 적은 수입을 받게 되지만 남편은 아무 수입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J. W. 레이몬드가 뉴욕 주 알레가니 카운티 쿠바에서 1896 년 6 월 16 일에 P. 힌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부록 A, 3.1 참조.)

롤루는 즉시 보낸 답변에서 남편과 함께 그의 천막팀에 합류하고 싶지만 존 화이트먼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합류할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이 여름 내내 한가롭게 지낼 여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그녀가 제안 받은

조건으로는 남편과 숙식을 해결할 수 없었다.(J. W. 레이몬드 목사가 힌네 형제에게 쓴 편지에서 룰루 화이트먼에게 받은 편지 인용[1896 년]. 부록 A, 3.2 참조.)

룰루는 지난 일요일 밤에 뉴욕 시 호넬스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전직 신문 편집장이었던 존은 집회 시리즈를 그 지역 신문에 효과적으로 광고했다. 룰루와 존은 첫 일요일 저녁 집회에 저명인사 몇 명을 맞이했다. 그들은 호넬스빌에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레이몬드 목사는 합회 재무에게 편지를 보내서 룰루의 목회 시작을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편지에서 어느 목사 사모인 스토크 부인의 전도사역을 위한 여행 경비를 합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는 황금룰의 요구에 비쳐볼 때 당연하다고 여겼다.

[p.50]

아내가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남편의 경우에 황금룰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목회자에게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편 룰루 화이트먼은 호넬스빌에서 설교했다.(존 S.와 룰루 화이트먼, "호넬스빌," 뉴욕 인디케이터, 1896 년 8 월 12 일. (부록 A, 3.3. 참조.) 이곳은 활동을 하기에 특별히 유리한 위치가 아닌 듯했다. 그곳에는 집회를 도와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었고, 그곳 주민들은 종교에 상당히 무관심했다. 그럼에도 남편이 활동을 알리는 동안에 룰루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재림교회의 세계관을 설명했다. 몇 주가 지나자 참석인원은 줄기는 커녕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회관으로 밀려들었다. 참석자 중 세 명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시점에 레이몬드 목사와 스토크 목사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천막팀과 함께 쿠바에서 호넬스빌로 파견되었다. 화이트먼 부부는 "이곳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 15 명이 진리에 굳게 섰습니다."라고 인디케이터에 기고할 수 있었다.(인디케이터, 1896 년 11 월 4 일). 그들은 교양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교회로 인도할 수 있음을 거듭 보여주었다.

레이몬드 목사는 그 젊은 여성이 목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축복 덕분에 성과를 거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몬드 목사는 안수 목사로서 뉴욕 주 가스 스프링스에 교인 26 명을 조직하러 파견되었는데, 이는 룰루 화이트먼의 설교와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결실을 맺은 곳이었다. 레이몬드 목사의 보고에 따르면 교인들이 용기 있고 모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인디케이터. 1896 년 12 월 30 일).

룰루 화이트먼은 1897 년 여름에 윌리스에 있는 초교파 교회에서 설교했다. 그 집회로 인해서 300 명이 사는 이 마을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지역교회들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재림교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근거로 도덕률에 반대한다고 가르쳤던) 도덕률 폐기론자를 외지에서 데려왔다. 화이트먼 부부는 이러한 반대를 맞서는 데 도움을 줄 소속 합회장 플레이스 목사를 초청했다.

그에 따른 토론에서는 350 명을 수용하는 그 초교파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찼고 다른 사람들은 창문 밖에 여덟 줄에서 열 줄로 서 있었다. 열기가 뜨거웠다. 재림교회의 강연은 호평을 받았다. 화이트먼 부부는 이렇듯 진리가 승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논쟁으로 인해 얻은 관심을 활기차고 효과적으로 사역하며 이어갔다. 곧 윌리스에서는 신자 14 명이 모였다.(인디케이터. 1897 년 7 월 21 일, 28 일).

룰루와 존 화이트먼은 젊음의 활기와 즐거움으로 사역을 해 나갔다. 그들은 초창기에 그들의 사역을 지원한 합회장의 축복에 힘입어 룰루의 집회를 위한 기금의 일부를 모았다.

[p.51]

뉴욕 합회 소속 S. M. 콕 목사는 여성들이 목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사한다고 알렸다. 그는 합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의 다 여성으로 구성된 성경 교육자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칭찬했다. 또한 합회 내 여성 전도자인 룰루 화이트먼을 가리켜 진리를 전하는 데 쓰일 하나님의 적합한 매개체라면서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훌륭한 여성 사역자가 합회 최고의 남성 목회자만큼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롤루 W.의 사역을 살펴보십시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지난 2년 간 주 내에 있는 여느 목회자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해냈지만 합회에서 그녀를 멀리하며 진리를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능력 면에서 그녀를 반대하는 바로 그 사람들(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실 것입니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합회 집행위원이었던 콥 목사는 신임서를 주려고 고려하는 세 명을 평가한 뒤 그 중 두 명을 승인했다. "저도 롤루 화이트먼 자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신임서를 주는 일에 찬성하며, 그녀가 그런 자격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는 롤루의 남편이 평생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그 역시 신임서를 줄 가능성을 더 잠정적으로 제안했다.(S. M. 콥 목사가 뉴욕 주 록포트에서 1897년 8월 6일에 뉴욕 주 로마에 있는 A. E. 플레이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와이트먼 부부는 1897년에 건강하고 예쁜 딸을 얻었고, 이 부모는 감사한 마음으로 딸에게 루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롤루는 이후에 몸이 좋지 않아 고생했지만 기도를 드린 후에 곧 건강을 되찾았다.

와이트먼 부부 전도팀에서 롤루의 주요 활약상을 뽑자면 1897년 9월에 시러큐스에서 열린 제 36차 뉴욕 합회 연례 비즈니스 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플레이스 합회장이 새로 조직된 가스 스프링스 교회를 구성원들에게 소개했을 때 이 새 신자들의 "견고한 조직"은 "주로 롤루 와이트먼과 남편의 노력 덕택에 세워졌다."고 언급했다.(인디케이터, 1897년 10월 6일.)

그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롤루의 노력이 주를 이루었고 남편을 이차적으로 언급했지만 존 와이트먼의 품성이나 능력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른 재능 중에서도 집회 및 교리 주제에 관한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신문에 게재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일간신문의 사회부 담당기자이자 일요신문의 기고자로 활동했다. 그는 아내의 자신의 목회기간 내내 작가로서 계속 성공을 거두었다.

롤루 와이트먼은 1897년 9월에 가스 스프링스 예배소를 합회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 공식회의에서 처음으로 목회 신임서 의결을 받았다. 존 와이트먼은 목회 신임서를 받지 못했다.

와이트먼 부인은 11 월에 아보카 마을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집회 시리즈 내내 참석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날씨가 특히 좋지 않았던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밤 입석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50 명에서 100 명이나 될 정도였다.

[p.52]

아보카는 룰루와 존 와이트먼이 14 명을 결성했던 윌리스에서 3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룰루는 안식일 예배를 인도했던 윌리스에 계속해서 힘을 쏟았다. 그녀는 주님의 성령을 느꼈고 안식일 출석생 수는 42 명으로 늘어났다.

S. W. 프랫 장로교회 목사는 룰루 와이트먼의 설교를 듣고 존 와이트먼에게 편지를 써서 여성이 설교단에 서는 일에 대한 성경의 바탕에 반대했다. 와이트먼 씨는 답신을 하면서 그 목회자가 암시했던 고린도전서 14 장 34 절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혼란을 언급했다. 바울은 이러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그 시대와 장소에 맞는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기록했다.

이어서 존 와이트먼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명시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는다. 남성의 분야에 관해서는 "주관"(디모데전서 2:12)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통해 남성의 권위를 빼앗지 말도록 했다. 존 와이트먼은 이 원칙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나 교회 지도력의 권위를 빼앗는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그 목회자에게 고린도전서 14 장 34 절에 대한 그의 해석을 감안할 때 정작 장로교회에서는 왜 여성이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물었다. 존 와이트먼은 훌륭한 장로교회 여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반하여 아내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맹비난하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와이트먼 형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성경의 근거로 돌아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성들의 복장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지시(고린도전서 11:5, 6, 13)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여성들이 집회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기도했다는 증거를 냈다. 그는 바울이

로마서 16 장 1-15 절에서 경건히 목회하는 여성들을 언급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듯했으며(사도행전 18:24-26) 빌립의 딸 네 명이 예언했다(사도행전 21:9)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사도행전 2 장 17, 18 절을 언급하면서 성별의 차이 없이 부어 주시는 성령에 대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다.

분명 이 여성 목회 문제는 존 화이트먼이 주의 깊게 연구한 주제였다. 그는 여성의 설교를 통해 남녀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린다는 점을 축하했다.

그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연봉 5 만 달러까지 받는 남성 목회자 등 성직에 있는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 소리 높여 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진정한 해결책으로 시사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여성들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존 화이트먼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런 헌신적인 여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은 연기를 짖어 까맣게 만든 유리로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존 S. 화이트먼이 뉴욕 주 아보카에서 1897 년 12 월 5 일에 뉴욕 주 캠벨에 있는 S. W. 프랫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사람들이 화이트먼 부인과 남편에게 계속 있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합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녀의 집회를 통해 생긴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월리스로 보내서 그녀가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p.53]

그녀가 보기에는 일반 지역 내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다가 가끔씩 돌아오는 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어찌 되었든 안수 목사가 필요했다. 화이트먼 부인은 사람들이 그녀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도 적으면서 전도자를 이상화하는 고질적 문제에 대해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룰루 화이트먼 부인이 뉴욕 주 월리스에서 1898 년 1 월 31 일에 뉴욕 주 로마에 있는 A. E. 플레이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곧이어 아보카에서 화이트먼 부인에게 성경의 진리를 배운 뒤 받아들인 사람이 네 명 더 늘었고 재림교회의 교제로 따듯한 환영을 받았다. 그 중 두 명은 은퇴한 부농으로,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1899년에는 코닝 예배소에서 마게도니아인 외침의 위력으로 초청이 왔다. 예배소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와서 도와달라고 화이트먼 부인에게 간청했는데, 적합한 때가 왔다고 믿었던 듯했다. 그녀는 이미 아보카와 월리스에서 사역 중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다. 그 당시에는 무언가를 더 해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처음 편지보다 더 긴급한 편지가 도착했다. 코닝의 신자들은 "안 된다"는 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룰루 화이트먼은 잠시 동안 가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코닝에서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설교를 네 번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회관이 불났고 단상 주변까지 사람들로 꽉 찼다.

참석자 중에는 예배소 사람들이 이전 집회에 데려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했다.

와이트먼 부인은 의미 있었던 코닝 여행 비용을 합회에 청구하지 않았다. 룰루는 보고서와 함께 보낸 3.02 달러에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모금했다.

룰루는 코닝에서 연 집회를 통해 생긴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합회 행정부에 촉구했다. 그녀는 지적이며 관심을 보이는 개종자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룰루 화이트먼 부인이 뉴욕 주 월리스에서 1898년 1월 31일에 뉴욕 주 로마에 있는 A. E. 플레이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와이트먼 부인은 어린 루스를 돌보기 위해 거주하던 소도시의 주민을 고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서 숙식과 여행 경비를 대가로 봉사하는 교인을 선호했다.

룰루 화이트먼은 노스 쿡턴, 브록턴, 셰리턴으로 군말 없이 이사를 다녔다.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모든 곳에 전파해야 했다.

와이트먼 부인은 이후 실버 크릭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소도시 중심부에 매주 2달러만 내면 난방과 전기가 공급되며 널찍하고 카펫이 깔린 회관에서 전도회를 열도록 주선했다.(인디케이터. 1898년 10월 12일. 부록 A, 3.4 참조.)

그녀는 남편이 종교 서적을 파는 동안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교회 신문 및 전도지를 보내달라고 합회 내 교인들에게 요청했다. 예산은 말할 것도 없이 빠듯했다.

[p.54]

전도자들은 지구의 마지막 때 예언된 종교적 편협성과 박해에 관한 선교를 할 때 시사 문제를 아주 효과적인 실례로 썼다. 메릴랜드에 사는 재림교인 두 명은 이맘때 일요일에 옥수수 밭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A. E. 플레이스, "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갇힘," 인디케이터. 1898년 12월 14일). 룰루 와이트먼은 동료 전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시행되거나 고려 중인 일요일 휴엄령에 분명히 주의를 환기시켰다.

와이트먼 부부가 세우고 양육한 윌리스 예배소는 1898년 합회 회의 기간 중에 교인 14명으로 구성된 교회로 정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사업 절차 기간에 룰루 와이트먼은 다시 한 번 인준 목사로 임명되었다.

실버 크릭에서는 룰루 와이트먼의 지휘하에 사역이 번창했다. 남성 두 명과 여성 두 명이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새 진리에 어떻게 응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려했다.(룰루 와이트먼, "실버 크릭," 인디케이터. 1898년 11월 16일. 부록 A, 3.5 참조.)

이 시점에서 다른 교단의 목회자 여러 명은 그 당시 특유의 전투적인 분위기를 고수했다. 한 목회자가 어느 일요일 저녁에 그 지역 내 제일 큰 예배당에서 열린 연합 집회를 통해 안식일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룰루 와이트먼은 그 집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또한 그 시대의 방식대로 다음 날 저녁에 담론을 검토하겠다고 알릴 수 있었다.

재림교인들이 확보한 회관은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붐볐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와이트먼 부인이 전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다시 한 번 청중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그녀는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설교할 경우 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회 시리즈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학적 의견 교환을 통해 재림교인들의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생활방식을 바꿨다. 재림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이 다시 한 번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와이트먼 부부는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인구 12,000 명의 도시 제네바로 옮겼다. 그들은 존의 강점을 활용해서 신문 및 전단지를 통한 대규모 광고를 통해 대망의 전도회를 세심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네바에서 제일 부유하고 영향력 있던 상인은 도시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상점 건물 내 공간을 2 주 동안은 무료로, 이후에는 소액의 임대료로 제공했다.

강당 안 가스등과 증기 난방 덕분에 청중들은 쾌적함을 느꼈다. 좌석은 90 석이었다. 와이트먼 부부는 그 사업가와 하나님께 감사를 도렸는데, 도시 내 다른 상점 건물을 빌리려면 한 달에 75 달러에서 100 달러를 내야 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 관리자는 집회를 위해 오르간을 제공했다.

1899 년 3 월 17 일에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점차 많아졌다. 와이트먼 부부는 중앙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의 1 층 방을 찾았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데 안성맞춤인 공간이었다. 문서전도를 하는 어브 형제는 오전에 방문을 돕고 오후에 매일 4 달러에서 8 달러 상당의 서적을 팔았다. 룰루 와이트먼과 조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수확을 하도록 도와 주시리라 믿으며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

[p.55]

제네바에 있는 동안 와이트먼 부인은 앙골라에서 열었던 집회에 참석한 여성 두 명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두 사람 다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인디케이터. 1899 년 5 월 3 일.) 하나님께서는 룰루가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간 이후에도 그녀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1901 년 중에 룰루 화이트먼의 전도회를 위해서 준비한 전단지를 살펴보면 존 화이트먼이 사람들을 집회로 데려오기 위해 썼던 방법이었던 점을 보여준다.(1901 년 뉴욕 주 캐넌다이과 온타리오 보관소-전달자 출판에서 인쇄한 광고 전단.(대총회 기록보관소.) 이 장의 마지막 페이지 참조.) 이런 유형의 광고는 수많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전도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했는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했다.

1903 년에 존 화이트먼에게 처음으로 목회 신임서를 의결했다. 룰루 화이트먼은 7 번째 인준 목사로 승인을 받았다.

존과 룰루는 1903 년 12 월 8 일부터 에덴에서 함께 전도회를 열었다. 깊이 쌓인 눈을 동반한 눈보라와 강추위, 살을 에는 듯한 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후 화이트먼 부부는 다시 시작했다. 몇 명이 참석했고, 전도자들은 점차 기반을 더 잘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끈기 있게 사역했다. 그들은 그 지역 영혼들이 뉴욕 시 이리 카운티 내 에덴에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에덴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여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다. 에덴에서 사역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서는 이를 반대했다.

교인이었던 에드윈 R. 달링이 52 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룰루 화이트먼은 장례식을 집례했다. 그녀는 부고를 작성하고 장례식 말씀을 전했으며 J. W. 레이몬드 목사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치렀다.(인디케이터. 1904 년 4 월 27 일).

와이트먼 부부는 1904 년에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이번으로 옮겼다. 룰루 화이트먼이 한 안식일 예배에서 참석자 중에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아홉 명이 동의하며 일어섰다. 룰루와 남편은 각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에이번에서 굴지의 사업가지만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지 않았던 어느 그리스도인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구입했으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를 시작했다.

합회장인 S. H. 레인 목사는 화이트먼 부부가 전도회에 사용할 대형 천막을 71 달러에 구입했다. 부부는 그 천막을 마음에 들어 했고 치기 쉽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천막을 친 장소는 코네서스 호수 기슭이었다. 12월에 에덴에서 집회를 시작할 때 화이트먼 부부와 맞닥뜨렸던 눈보라와는 달리 1904년 6월 24일에 레이크빌에서 전도회를 시작할 때는 더없이 좋은 날씨가 펼쳐졌다. 그날 밤에 50명이 참석했고, 일요일 저녁에는 참석자가 100명으로 늘어났다.

와이트먼 부부는 사흘 밤 동안 강신론자 무당과 직접 대면하면서 새롭고 만만찮은 저항에 맞닥뜨렸다. 참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끝까지 지켜 보시면서 와이트먼 부부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와이트먼 부부는 가는 곳마다 이전에 예배소나 교회가 없던 곳에 새로운 예배소 혹은 교회를 남겨두었다. 8월 21일에는 이전에 집회를 열었던 에이번에 교인 14명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조직되었다.

[p.56]

신임서 발급 결정 및 사역자 급여 감사가 이뤄지는 뉴욕 합회 절차 한 달여 전인 1904년 9월 2일에 존 와이트먼은 합회장인 S. H. 레인 목사에게 편지를 썼다. 존은 편지에서 룰루의 사역에 대해 "이전 위원회에서 서너 명이 의심할 여지없이 안수 목사의 사역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했다.(존 와이트먼이 뉴욕 주 에이번에서 1904년 9월 2일에 뉴욕 주 로마에 있는 S. H. 레인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원문에서 강조. 부록 A, 3.6 참조.)

그는 특히 1901년 오스웨고에서 열린 뉴욕 합회 회의에서 룰루의 급여를 "가능하면 안수 목사 비율에 가깝게" 책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지칭했다. 그 회의에서 언더우드 목사 및 다른 사람들은 유능한 여성 목회자를 안수하는 일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취했다. 언더우드 목사의 지위는 이전 연합회장과 비슷했다. 하지만 룰루 와이트먼에게 안수를 주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겼다. 모든 논의 속에서 룰루의 목회 능력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은 듯하다.

존의 편지는 아내의 신임서 수여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1901년에 룰루 와이트먼을 목사로 안수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기록했다.(버트 할로비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여성 안수로 가는 경로: 두 가지 길," 1985년 3월 18일, 미출판 논문에서 발췌.)

존 화이트먼이 아내가 안수 목사에 적합하다는 면을 지지하는 편지를 썼을 무렵, T. E. 보웬 목사는 뉴욕 합회의 모든 목회자 및 성경 교육자의 설교, 성경낭독, 가족 방문, 침례, 기타 봉사 및 성과 횡수를 요약한 도표를 준비했다.(1904년 뉴욕 합회 T. E. 보웬 목사가 준비한 도표. 대총회 기록보관소에서 열람 가능.) 보웬 목사는 한쪽면에 자필로 견해를 써 놓았다. "총 65명 중 34명은 인준 목사 두 명과 성경 교육자 한 명의 성과이며 1년 동안 사역자 10명이 26명의 성과를 낸 셈이 된다." 이를 판단해 보면 그가 언급한 인준 목사 두 명은 화이트먼 부부라는 점이 분명하다.

각 목회자의 이름 뒤에 연속으로 숫자가 나와 있지만 보웬 목사는 "교회에 추가됨"란 밑에 괄호를 치고 화이트먼 부부를 합쳐서 한 숫자로 표기했다. 그 숫자는 27이었는데, 중요한 점은 그가 룰루 화이트먼의 줄에 27을 쓰고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이다. 보웬 목사는 화이트먼 부부의 사역에 대한 결실을 인정했고 룰루를 팀의 주요 전도자로 여겼다.

화이트먼 부부는 뉴욕 주에서 네바다 주 리노로 옮겼는데, 그곳은 캘리포니아 합회의 일부를 형성했다. 1908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연감을 살펴보면 룰루 화이트먼이 남편 존 화이트먼과 함께 캘리포니아 합회 안수 목사 명단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편의 편지에서만 언급된 룰루의 안수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1901년 회의의 공식 기록을 현재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명단의 기반이 되는 논의나 결의에 대한 공식 기록도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뉴욕 합회에서 화이트먼 부인의 안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배경을 고려하면 캘리포니아 합회에서 화이트먼 부부를 안수 목사가 되리라는 조건으로 초청했고 그들의 이름을 연감에 그와 같이 올렸지만 이후 교회 지도부에서 화이트먼 부인을 그 자격으로 계속 하지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p.57]

화이트먼 부부는 사역을 진행하면서 종교 자유의 취지에 대한 재림교회의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루 화이트먼은 1898년 즈음 앙골라에 있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청중에게 "미국의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그녀는 발표할 내용을 연구하고 전개시키면서 종교 자유 분야의 강연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룰루 화이트먼은 1909년 2월 28일에 네브라스카 주 링컨에 있는 공공 강당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주제로 만원 관중에게 강연했다. 수많은 하원 의원과 공무원이 참석했다. 화이트먼 부부는 최근에 센트럴 연합회의 목회 초청을 수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구역에서 이 집회를 열었다. 그 당시에 일요일 야구는 종교 자유 지도자들에게 뜨거운 쟁점이었다. 룰루 화이트먼의 형제인 E. T. 러셀 목사는 함께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강연을 했다. 네브라스카 주 저널에서는 20인치 이상의 칼럼을 할애해서 그 행사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화이트먼 부인은 미국 정부의 특징을 나타내는 원칙들을 강조했다. 그녀는 법원에서 일요일 오락거리 통제를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판결을 뒤집었다는 사례를 인용했다. 그녀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종교 법률 제정은 이 나라에서 잘 구축된 관례 덕분에 "우리 주와 국가 입법 기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실례를 들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는 종교적 정부가 아니라 시민 정부이다. 이는 세상에서 역대 가장 위대한 정부이다. 파리의 어느 멋진 외교 만찬에서 어느 신사가 "미국을 위해 건배합시다. 북쪽은 북극광으로, 남쪽은 춘분 행렬로, 동쪽은 태고의 혼돈으로, 서쪽은 심판의 날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라며 건배사를 했다. 심판의 날과 다름없는 것이 더 훌륭하고 위대한 정부를 배출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고 명시한 우리의 훌륭한 제도에 혁신이 없었으면 한다.

-----"종교 자유 회의," 네브라스카 주 저널, 1909년 3월 1일, 3.(부록 A, 3.7 참조)

1909년 후반에 미주리 주 하원에서는 룰루 화이트먼을 초청해서 "미국 내 종교 자유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부탁했다. 존 화이트먼은 "미주리 주 입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존 S. 화이트먼, "일요일 법안 부결," 미주리 사역자 기록, 1909년 4월 28일.)

룰루 화이트먼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데 보기 드문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녀와 남편이 모두 고위직 공무원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와이트먼 부인은 종교 자유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도 계속 해오던 전도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1909 년에서 1910 년에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서 집회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p.58]

초겨울부터 시작한 일요일 저녁 강의에서는 처음부터 고무적인 출석률을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자 와이트먼 부인은 매일 밤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 시리즈는 3 월 6 일부터 2 주 동안 집중적으로 열렸다. 마지막 날 밤에는 참석자 수가 400 여 명이었고, 입석으로도 75 명에서 100 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집회가 마치자 어른 13 명이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 달에는 다른 네 명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Jas. 코크란,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부흥 집회," 애드벤처 리뷰 앤 사바스 헤럴드 87. 1910 년 4 월 7 일: 16.)

이 무렵 와이트먼 부부는 종교 자유의 쟁점에 대해 교단과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와이트먼 부부는 일정 기간 동안 엘렌 화잇이 진술했던 여러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 때문에 그녀가 종교 자유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버트 할로비악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룰루와 존 와이트먼이 교단의 전도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반면, "와이트먼 부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역과 교인의 자격 내에서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했다.(할로비악, 14.) 와이트먼 부부는 종교 자유의 정의 부분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이렇게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 부부를 통해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버트 할로비악은 "룰루 와이트먼 부인이 복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의 뚜렷한 증거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실로 그녀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를 보면 그녀가 그 당시 뉴욕 주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자일 뿐 아니라 교단 내에서 전 기간을 통틀어 가장 성공한 전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할 것이다."(할로비악, 10.)

그녀의 목회에 대한 결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와이트먼 부인은 1896 년부터 1905 년까지 호네스빌, 가스 스프링스, 윌리스, 실버 크릭, 제네바, 앙골라, 고햄, 프레도니아, 아보카, 러시빌, 캐넌다이과,

펜옌에 교회를 세웠다. 남편이 1903 년에 인준 목사가 되자 그들은 에이번, 레이크빌, 험록, 사우스 리보니아, 베스에 공동으로 교회를 설립했다.²⁵

-----할로비악, 10

룰루 화이트먼과 남편은 마을에서 소도시와 도시로, 천막에서 입법회관과 교회로 두루 다니며 굉장한 활력과 헌신을 쏟아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과 독특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들의 사역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만끽할 수 있을지는 영원만이 밝힐 수 있다.

[p.59]

사례금 100 달러

1901 년 1 월 3 일 목요일 저녁 시청에서 열리는 복음 집회 중에

일주일의 첫날이나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점

혹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점을

성경에서 읽거나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한 가지 이상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룰루 화이트먼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일주일의 첫날입니까, 아니면 일곱째 날입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증거: 마가복음 2:27; 요한복음 1:3; 골로새서 1:16; 에베소서 3:9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하신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성경 강의 시리즈! 안식일에 관한 질문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고 있으며, 목요일 저녁 시청에서 시작됩니다.

범죄자라도 배심원단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에게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렵니까?

(로마서 10:17)

사도행전 28 장 27 절을 이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1 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룰루 화이트먼

성경 전도자

[p.60] blank page

[p.61]

"나는 기도하고 노력했다."
-----안나 나이트, 1952 년

4 혁신적 행정가

안나 나이트: 1874 년-1972 년

안나 나이트는 어렸을 때 지식에 대한 욕구가 대단했다. 그녀는 1874 년 미시시피에서 해방노예의 딸로 태어나 일의 추이에 따라 옮겨다니며 자라났다.

안나의 어머니는 제스퍼 카운티에서 소작인으로 근근이 살아갔다. 나이트 부인은 힘들게 일하며 절제가 몸에 밴 검소함으로 땅 80 에이커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후 그녀와 자녀들은 인접한 곳에 공여 농지 80 에이커를 더 구입해 농사를 지었다. 그다세대 가족은 쪼트, 말, 멧돼지를 쫓아 소를 활용해서 목화를 환금 작물로 재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먹을 식량작물도 재배했다. 하지만 적은 돈을 벌다 보니 늘 부족했다.

나이트 가족은 책이나 잡지 구독은 말할 것도 없고 펜과 종이 같은 "가의 물품"을 살 형편이 못 되었다. 나이트 부인과 많은 자녀들은 땅과 가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안나 나이트, 미시시피 소녀: 자서전 (내슈빌: 남부 출판협회, 1952 년). 이 장에 언급되지 않은 자료는 나이트 양의 자서전에 근거한다). 안나는 교과서나 필기도구도 없었지만 배움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장시간 일을 하는 중에도 일요일에 자유 시간이 생길 때가 있었다. 이럴 때면 슬그머니 나가서 책이 있는 잘 사는 친구를 찾아갔다. 안나는 그 친구에게 글을 가르쳐주면 그 대신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곤 했다.

안나는 배운 내용을 형제자매 및 조카들과 나누는 데 열심이었다. 안나는 못을 박아 널빤지를 맞붙인 뒤 젖은 검댕으로 검게 만들었고, 이 수제 칠판이 완전히 마르자 진흙더미에서 파낸 천연 분필을 가지고 썼다. 그녀는 칠판에 쓴 숫자와 글자를 모래에 베끼는 일을 다른 아이들에게 시켰다.

안나는 일요일마다 이웃에서 열리는 철자 맞추기 대회에 재미로 참가하고 준비하는 일을 즐겨 도왔다. 그녀는 대결을 아주 잘 했던 듯하다.

안나는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책을 읽다가 또래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잡지를 갖고 싶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설득해서 구독에 필요한 1 달러를 받아냈지만 그런 낭비와 사치를 하는 데 다시는 1 달러를 달라고 조르지 말라면서 단단히 주의를 받았다.

[p.62]

안나는 잡지에서 카탈로그, 신문과 때로는 책까지 무료 견본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필요한 신청서를 써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량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카탈로그에 필기체가 나오면 안나는 밖으로 가져가서 모래 위에 글씨 연습을 열심히 했다.

안나는 *위로*라고 하는 작은 신문의 견본을 받았다. 그 신문을 읽고 난 후 구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녀는 구독료 25 센트를 어머니에게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화 따는 일을 더 해서 구독료를 벌었다.

안나는 *위로* 신문의 어느 호에서 그녀의 필요에 딱 맞을 듯한 광고문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대체한 것만 빼고 그 광고문을 글자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녀는 이렇게 요청사항을 적었다. "독자들 중에서 좋은 읽을거리를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제 또래와 편지를 주고받고 싶어요." 이제 우편함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안나가 답장을 40 통이나 받았기 때문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여청년인 이디스 엠브리는 안나의 요청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청년 서적 통신단 회원이었다. 엠브리 양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나의 광고문을 보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다. 시조 잡지에서 일하던 그녀는 안나에게 여러 다른 전도지와 교리 서적은 물론 시조 잡지 몇 부도 보내주었다. 이디스는 일정 기간 동안 인쇄물을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편지도 쓰면서 안나에게 일부 기사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다.

안나는 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출판물을 6 개월 정도 읽고 이디스 엠브리와 편지를 주고받은 뒤 문서에서 찾은 진리에 따라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 읽어왔던 자료를 어느 단체에서 출판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안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제 첫째 날 대신 일곱째 날에 쉰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하자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상했다. 그들은 그녀가 많이 읽고 공부하더니 "정신이 나갔다"며 미심쩍어 했다.

안나에게는 일종의 저축한 돈이 있었다. 그녀와 남동생은 열심히 일해서 목화 한 더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안나는 그 중 자기 몫인 절반에서 번 수익금을 이용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고 채터누가로 옮겼다.

그녀가 배움을 위해 미시시피에서 테네시까지 갔다는 점을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세기 말 남부에서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교인들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널리 흩어져 있었다. 합회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교단에서 남부의 주들 전체를 "선교지"로 지정했다.

엠브리 양은 안나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다정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가정을 만나게 도와주었다. 어린 나이에 개종한 그녀는 좋은 가르침을 받은 뒤 채터누가에 있는 동안 침례를 받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었다.

안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채로 미시시피 고향에 돌아왔다. 그런데 곧바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안나가 줄을 맞춰 밭 가는 일을 즐겨 이끌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몇 년 동안이나 그녀에게 밭 가는 일을 믿고 맡겼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밭 가는 일이 잘못이라고 믿게 된 안나는 일요일에 일하게 해달라며 애원했다.

[p.63]

그녀는 양심상 안식일에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나이트 부인은 글을 읽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듯했다. 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그녀는 벌컥 화를 냈다. 그녀는 자신이 안나의 어머니이며 딸은 어머니를 가르치려 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나는 이렇듯 일요일을 위해 토요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든지 아니면 집을 떠나든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안나는 집을 떠나야 한다는 괴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채터누가에 있는 친구들이 그녀의 경비를 도와준 덕분에 그녀는 한 학년 동안 오하이오에 있는 마운트 버논 아카데미를 다닐 수 있었다.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시기였고, 그녀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안나는 그 다음 해에 배틀 크릭 대학의 전신이자 미시간 주 배틀 크릭에 새로 문을 연 직업훈련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활기찬 태도로 임했다. 안나 나이트는 1898년에 배틀 크릭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 선교사가 될 준비를 했다.

이 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틀 크릭 요양원의 원장 J. H. 켈로그 박사는 안나의 반 학생들에게 자급선교사역에 자원하라고 촉구했다. 안나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 고향인 미시시피 카운티야말로 자신의 사역이 필요한 선교지라고 결정했다.

안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신앙에 대해 반감이 사라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안도했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안나가 재스퍼 카운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교를 세우는 데 기꺼이 돕고자 했다. 다 허물어져가는 통나무집에 학교의 거처를 마련했다. 안나는 일주일에 1 달러를 받고 가르쳤으며 부모와 자녀들도 틈나는 대로 노동에 가세했다.

학교가 눈부신 발전을 하던 중에 거처로 쓰던 낡은 건물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안나는 이 재해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새 건물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갔다.

나이트 양은 4 에이커의 땅에 목화를 심었고, 이 용도를 위해 수익금을 헌납했다. 오하이오에 사는 친구는 50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후원자들과 친절한 이웃들에게 돈이나 노동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고 약속했다. 건물이 멋지게 완성되자 75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보러 올 정도였다.

나이트 양은 8 학년 학생 24 명을 가르쳤는데 2 년차 교사가 감당하기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교사일에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안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일요일에 두 반을 열었는데 한 반은 건물에서, 다른 한 반은 5 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행했다. 그녀는 성경수업 후 읽기, 쓰기, 계산, 건강 요리 및 저장, 절제 원칙에 따라 사는 법을 어른들에게 가르쳤다. 그 교사는 의료 선교사 사역을 위한 훈련을 실제로 활용했다.

안나의 절제운동 사역으로 인해 그 지역의 일부 "주류 밀조업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싸움을 걸러 학교까지 왔다. 그 맥주 양조업자들은 안나의 친척들과 싸운 뒤 적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떠났다.

나이트 양의 두려움 없는 선교사 활동에 대한 명성은 재스퍼 카운티를 훌쩍 넘어 퍼져 나갔다. 1901년 5월에 안나는 배틀 크릭에서 열리는 대총회 회기의 대표로 봉사해 달라는 J. H. 켈로그 박사의 초청을 받고 깜짝 놀랐다.

[p.64]

그는 예전 학생이 자급선교사역을 조직해 보라는 도전을 받아들인 점을 흐뭇하게 여겼고 그녀가 배틀 크릭 졸업생의 자급 및 의료선교사역을 분명히 대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미시시피에서 온 27세 시골 처녀는 2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해온 선교사역에 관해 대총회 회기에서 잘 보고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학생 24명이 다니는 학교를 세웠고 건강 및 절제 관련 강의를 수없이 했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간단한 치료를 해주었다. 그녀는 이렇듯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칭찬을 듣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며 겸허하게 대답했다.

나이트 양은 대총회 회기에 참석하는 동안 인도에서 간호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의논하고 있던 몇몇 간호사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안나는 몇 년 전 인도의 여성들을 돕는 일에 부르심을 느꼈던 일이 생각났다.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 뒤 미시시피에서 시작했지만 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부팀을 대총회에서 보내준다면 인도에서 봉사하겠다고 제안했다.

안나의 좋은 친구인 앳우드 부인과 그 남편은 미시시피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래지 않아 나이트 양은 인도로 향하는 선교사 일곱 명에 합류했다.

그녀의 첫 임지는 카르마타 훈련학교였다. 그녀는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고 선교 회계를 맡았으며 때로는 종기를 짜고 이를 뽑기도 하고 정원을 관리했다. 또한 안나 나이트는 미국에서 인도에 파송한 최초의 흑인 여성 선교사로 역사에 한 획을

그였다.(H. D. 싱글턴, "선구자의 선봉대," 북미 정보원 XXII. 1968년 3월-4월: 1-2에서 발췌.)

그녀가 카르마타에서 맛닥뜨린 최대 도전과제는 학문도 의료도 아닌 정원 관리였다. 안나 나이트는 농업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었지만 씨앗을 심기 위한 토양 준비법을 조력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자 그들은 주저했다. 그들은 인도에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들도 노련하기는 매한가지였다.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고구마 싹을 심는 일이었다. 안나는 남부에서 농사 지은 이력을 바탕으로 선교지의 굳은 땅에서는 고구마가 자라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꾼들에게 마대자루와 소달구지를 주며 강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정원에 필요한 모래를 실어왔다. 그녀는 모래와 퇴비를 흙과 섞으라고 지시했다. 일꾼들은 이 성분들을 곡괭이로 섞은 뒤 도랑을 파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금까지 나이트 양은 암암리에 반대 기류가 있었음에도 이 고된 일에 참여하도록 그녀에게 배정된 마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원 관리자가 헛간에서 미국식 회전쟁기를 본 기억이 나기에 한 인부에게 가져오라고 하자 일꾼들은 드러내 놓고 항의했다.

"미국에서는 팬찮을 지 몰라도 인도에서는 쓸데없는 일입니다."라며 우기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자 나이트 양은 곧바로 그 쟁기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미시시피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소들을 쟁기에 맨 다음 직접 손잡이를 잡았다.

[p.65]

그녀는 젓 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 비가 오는데도 끝까지 적당한 열을 마련하고 그 속에 고구마 싹을 심었다. 그녀는 너무 지친 나머지 씻고 저녁을 먹은 뒤 쓰러져서 며칠을 앓아 누웠다.

마음을 굳게 먹은 선교사는 여학생 두 명을 목발 삼아 의지해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의자에 앉은 뒤 남학생들이 토마토, 콜리플라워, 순무, 비트 심는 현장을 감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르마타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소를 수확했다. 그

마을 출신 노동자들은 선교사가 직접 그 이상한 미국식 쟁기를 작동하더니 기적을 이뤘다고 소문을 냈다.

물론 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그곳에 있어주는 요지는 학생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나이트 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싶었다. 안나는 성경시간과 간호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여학생들을 보며 기쁨에 넘쳤다. 이전에 말썽을 피웠던 남학생들은 안나의 지도 하에 새 과실수를 심을 구덩이를 파느라 바쁘게 일하는 데 전념하면서 더 올바르게 행동했다.

교내사역 외에도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 어느 날 나이트 양과 다른 직원인 화잇 양이 아픈 여성을 방문하려고 학교에서 이웃 마을로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던 중에 사람들이 달려오더니 꾸벅 절을 하며 아픈 친구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안나 나이트는 부르심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다. 그녀는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일꾼을 더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이트 양은 학교에서 안식일학교 연금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제일 어린 학생들은 수입이 있을 리 없었다. 안나 나이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일 어린 학생 다섯 명을 보내서 새 나무 밑에 뿌릴 거름을 찾아오라고 시켰다. 그들은 한 덩이당 돈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께 드릴 수입을 마련했다. 한 어린 남학생은 "우리가 백 덩이를 벌 거예요."라고 신나게 외쳤다.(안나 나이트, "카르마타 훈련학교," 이스턴 타이딩스, 1904년 3월: 10-11.)

안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잠언 22:6)는 경고를 믿었다. 그녀는 미시시피에서 맨 처음 이 책임을 받아들였고, 이제 인도에서 수락했다. 그녀는 모든 사역자들이 본국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맡았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영적 사역을 위해 교내로 찾아왔다. 어느 안식일 저녁에 사랑스러운 벵골 여성 다섯 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한 학생이 벵골어 성경에서 한 장을 읽었고 영어와 모국어로 기도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자 방문했던 여성들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안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노래와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청했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안나는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녀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도 여성에게 봉사하는 일이 실현되고 있었다.(안나 나이트, "카르마타," 이스턴 타이딩스. 1904 년 11 월: 42-43.)

나이트 양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일 외에도 그만큼 중요한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도왔다. 그녀는 수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했다. 일을 해서 학교를 마칠 수 있는 자체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p.66]

그녀는 그런 이유로 와치맨 출판부를 카르마타에 옮기도록 주선해서 배울 기회가 없을 뻔한 청년 여러 명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이트 양은 몇 년 동안 여름이 되면 휴양지인 심라에서 집회를 열고 성경공부를 가르치며 치료하고 수업을 가르치며 일했다.

1906 년 초에 나이트 양은 재림교인들이 몇 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던 라즈푸타나에서 친구인 해거트 양과 함께 기독교 서적을 팔았다. 일사병에 걸리고 음식과 물이 없어 불편한 시간을 보내며 공격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역경이 휘몰아치는 중에도 안나의 신앙의 등불은 깜빡이지도 않는 듯했다. 그녀는 "분명히 구름도 끼고 불모지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나의 좌우명은 '승리의 편'이며, 어두운 면을 보지 않기로 했다. 이 진리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도 그와 함께 승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안나 나이트, "외딴 곳에서 들려온 이야기," 이스턴 타이딩스 (1906 년 2 월): 2-3 에서 발췌. 원문에서 강조.)

한편 미시시피에서는 그녀가 설립한 학교에 대해 불행한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왔다. 새 교사들이 부임하자 주류 밀조업자들이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그녀는 슬펐다. 이렇듯 학교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은 결국 건물을 불태워버릴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학교는 문을 닫았다. 제스퍼 카운티에서의 사역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다.

안나는 대총회 지도부에 편지를 써서 그녀의 고향 주민들을 가르칠 사람을 미시시피에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갈 사람을 찾지 못하면 자신이 직접 가서 재건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나는 몇 달 동안 기다리며 기도한 후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미시시피에서 폭력 때문에 중단된 일을 재건하기 위해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휴가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미시시피와 인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떠났다. 그녀는 인도에 돌아오면 쓸 생각으로 믿을 만한 자전거와 다른 소지품을 남겨 두었다.

안나 나이트는 미시시피 고향에 도착하자 유명 인사급의 환영을 받았다. 그녀가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새 학교 건물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

안나와 후원자들은 그녀가 돌아온 후 첫 일요일에 새 건물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주류 밀주업자들 중에는 나이트 양이 지었던 학교를 불태우는 데 거들었지만 이제 신자들과 함께 앉아있거나 밖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다. 돌아온 선교사는 자신이 경험한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해 극적이고 실감나는 표현으로 묘사했다.

그때 안나 나이트는 주제를 바꿔서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 아닌 고향 아가씨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녀와 이후 앳우드 부부가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모여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그녀와 힘을 합쳐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면서 도전 의식을 북돋았다.

학교 조직자는 어린이마다 교과서를 구입해주고 어린이 독서용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년 지도자를 구독해주는 등 강력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나이트 양은 학교 규칙을 내세웠는데, 카드놀이, 춤, 혹은 기타 부적절한 형태의 놀이를 금지시켰다.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했다. 안나는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본인이 앞장서서 전적으로 발벗고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녀가 제시한 일에 협력할 사람은 일어서라고 요청하자 모든 후원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역은 제스퍼 카운티에서 활기를 되찾았다.

학교는 다음 날 학생 22 명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학교 건물 공사는 방과 후에도 계속되었다.

안나는 인도로 떠나기 전에 으레 그랬던 것처럼 주말에 두 곳에서 일요 종교 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일요일 대신 안식일 오후에 모이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회장이 6 개월 후에 방문했을 때는 침례 후보자가 아홉 명 있었다. 그 중에는 안나의 어머니와 자매 두 명, 다른 친척들과 지역 주민들이 있었다.

방학인 여름철에는 합회에서 교회 및 신자들 방문을 위해 나이트 양을 채용했다. 그녀는 성경 교과를 가르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침례 준비를 시켰다. 그녀는 흑인 사역자와 백인 사역자가 모두 참석한 빅스버그 사역자 모임에서 선교사역에 관한 강의를 했다.

안나 나이트는 남부에 남아있는 것보다 인도로 돌아가서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정은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다고 보는 조언자들도 있었다. 안나의 친구 중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네가 인도에 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이곳에는 네가 필요해. 백인들더러 인도에 가라고 하고 너는 여기 남아서 우리와 일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 이도 있었다. 실제로 흑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준비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안나는 당혹스러웠다. 그녀는 두 가지 큰 필요를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다행히도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불확실한 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유색 인종을 위한 사역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도의 필요가 훨씬 더 크다. 하지만 나는 기도하고 노력했다."라고 적었다.(나이트, 미시시피 소녀, 168, 강조 표시 제공.)

안나 나이트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노력하는 일이 지혜롭다는 점을 깨달은 적은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결국 퍼즐은 하나님의 영광과 안나의 만족을 위해 풀렸다.

나이트 양은 남동부 연합회로부터 애틀랜타 주의 흑인들을 위한 새 요양원을 개발하는 데 도와달라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다. 때는 바야흐로 그녀가 곧 인도로 돌아갈 예정이던 1910 년이었다. 안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큰 걱정을 끼치는 편지를 다뤘던 것처럼 초청 편지를 방으로 가져가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그녀는 열렬한 기도를 드린 후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인도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의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참이었다. 하지만 본국과 인도에서 그녀의 헌신적인 사역을 알고 있던 대총회 지도자들이 전달한 초청이라면 그들의 지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문의하려고 편지를 썼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계속 사역했다.

답장을 살펴보니 그녀의 해외 선교봉사에 대해 알며 가치 있게 여긴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었고, 이제 그들은 그녀를 애틀랜타로 파견하는 건을 승인했다. 교통편에 대한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다.

[p.68]

안나는 요청했던 신호를 받았다. 이내 그녀는 교회 지도부로부터 애틀랜타에서 흑인들을 위해 강력한 사역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 기획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훈련 받은 사람들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은 인도의 공석이 더 손쉽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트 양은 다시 한 번 기도한 뒤 애틀랜타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갈을 보냈다. 그녀는 며칠 후 그곳에 도착했다.

안나는 휴가 중 2 년 동안 사역한 끝에 재스퍼 카운티에 소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기고 갔다.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녀를 강하게 반대하던 이들도 있었다.

안나가 새 의료 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생각으로 애틀랜타에 도착했을 때 공사도 채 끝나지 않고 가구도 없는 집에 불과해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요양원을 보게 되었다. 게다가 새 의료 센터를 준비하는 동안 나이트 양의 거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듯했다.

안나는 삶의 많은 시간을 자급선교사로 살아온 탓에 물질적인 자산을 많이 쌓아두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도 그랬듯 이 위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요양원의 빈 방에서 자기로 했다. 그 진취적인 기획 담당자는 중고가구 몇 개를 찾아서 깨끗이 문질러 청소한 뒤 이사했다.

이웃 사람들은 나이트 양이 도착하기 직전에 탄원서를 돌려서 재림교인들이 확보해 놓았던 집에 요양원을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확보했다. 이 봉쇄를 피해 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한편 그 지역에서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책임이 그녀에게 넘어갔다. 많은 단체에서 인도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초청도 많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허물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아픈 이웃이 담당 의사의 온갖 노력에도 차도가 없자 안나는 수치료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했다. 의사는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한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허락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 환자는 바로 앉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했다. 그로 인해 여러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안나는 겨울 날씨가 될 무렵에 코트를 살 돈을 모으고 싶어했다. 애틀랜타가 미시시피보다 더 춥기 때문이다. 한편 그녀는 애틀랜타에 교사 두 명이 있는 교회학교의 이사장직을 수락했다. 나이트 양은 어려움에 빠진 학교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학교의 여러 문제를 공감하며 들었다.

더 큰 방에는 학생들을 앉힐 책상 여러 개가 당장 필요했다. 방을 제대로 따뜻하게 하려면 더 적당한 난로가 필요했다. 과연 합회에서 설비를 제공할 수 있을까? 나이트 양은 문의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합회에서 교사의 급여 50%를 이미 지급하고 있으니 행정자들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안나는 많이

필요한 설비를 할부로 구입한 뒤 등록금에서 지불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계획은 승인되었다.

이사장은 겨울코트를 사려고 저축해 둔 돈을 난로와 학교 책상 선금으로 쓰는 희생을 감수했다. 이사회에서는 난로와 책상이 준비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한편 빚을 걱정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p.69]

안나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도록 문을 열어 주신 주님께서 후원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학비를 내게 해 주시리라고 장담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데 정작 미시시피에서 새로 온 사람은 이제 애틀랜타의 차디 찬 겨울을 나게 해줄 겨울코트를 살 돈이 없었다.

몇 주 후 편지에 답장을 하던 안나는 친구인 이디스 엠브리 러널스가 보낸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이디스 엠브리는 *위로*라는 작은 잡지에 안나가 올린 광고문을 보고 그녀에게 답장하며 서적을 보냈던 여청년이었다.) 안나는 개종하는 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친절하고 친구와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 이제 안나는 이디스엑 애틀랜타에서의 사역을 설명하며 긴 편지를 썼다. 그녀는 외상으로 학용품과 사고 코트를 살 돈으로 난방 난로와 학교 책상 선금을 지불했다는 일을 언급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적시에 돈을 모았다는 자체로 정말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디스 러널스는 다니고 있던 교회의 선교사 자원봉사회에 그 편지를 읽어주었다. 그 협회의 회원들은 코트를 바꿔주기 위해 돈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그때 배틀 크릭 대학에서 안나를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이 거저 줄 수 있는 코트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이트 양은 코트도 받고 돈도 받게 되었다. 잘 만들어졌고 새 것이나 다름없는 멋진 검은색 브로드 코트는 안나가 직접 샀을 그 어떤 코트보다 더없이 좋았다. 그녀는 만족스런 마음을 만끽하며 그 코트를 입었다.

선교사 자원봉사회에서 보내준 돈으로 교실 난로 구입에 대한 빚을 충분히 다 갚았다. 안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이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다. 그때부터 빌립보서 4 장 19 절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되었다.

나이트 양이 한 가지 더 우려했던 점은 애틀랜타에 흑인들을 위한 기독교청년회(YMCA)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협회가 없다는 사실이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표하는 여성들과 만나자는 요청을 했고, 그들은 그 지역 흑인들을 위한 기독교여자청년회(YWCA)를 설립하기로 진행했다. 여러 교단의 여성들은 이 중요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했다.

새 기독교여자청년회에서는 건강, 절제, 사교상의 순결, 개인 위생에 대한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대중 집회를 열었다. 응급 처치와 간호 수업이 진행되었다. 전국 기독교여자청년회 모단체에서는 진행되는 일에 대해 칭찬했지만 그 당시에 애틀랜타 그룹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제후하지 않았다. 나이트 양이 총무직을 사임하겠다고 제의했지만 그 그룹에서는 그녀의 지도하에 독립된 지역 단체로 계속 운영하는 쪽을 선호했다.

나이트 양은 하고 있던 다른 모든 사역과 더불어 연평균 500 회의 성경낭독을 진행했다. 그녀가 애틀랜타에서 사역한 마지막 해에는 그녀의 사역 덕분에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신자의 수만큼 많은 새 신자들이 늘어났다. 이렇듯 안나 나이트가 주님께 인도한 개종자들 중에는 애틀랜타의 저명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H. D. 싱글턴이 메릴랜드 주 휘튼에서 1988년 12월 6일에 필자와 한 통화에서 발췌.)

[p.70]

또한 그녀가 청지기 직분에 관한 정통한 가르침과 더불어 희생적인 기부를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이끄는 동안 십일금과 연금이 두 배로 증가했다.

안나 나이트의 영성과 능력과 생산성 덕분에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1913년에 남동부 연합회의 국내 선교부 부부장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교회행정 부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조지아 주 및 테네시와 플로리다 지역을 아울렀다. 나이트 양은 흑인 교회와 학교일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아달라고 초청 받았다.(싱글턴, "선구자의 선봉대," 1.에서 발췌.) 합회 지도부에서 그녀에게 협조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해보겠다고 답하는 것만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사역을 위한 그 지역 교인들을 조직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맡은 구역의 다른 도시들, 즉 세인트 피터스버그, 찰스턴, 잭슨빌, 채터누가, 내슈빌, 버밍엄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각 장소에서 사역을 위해 교인들을 훈련하고 조직했다.

고된 업무량에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그녀는 학생들에게 연례 신체검사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맡은 구역의 각 교회학교를 자원해서 찾아갔다.

나이트 양은 정기 보고서의 일환으로 그해 맡은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편지 1,500 통 이상을 다 직접 썼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행정자들은 깜짝 놀랐다. 연합회장인 C. B. 스티븐슨 목사는 나이트 양에게 타자기를 제공하는 비용을 각 합회에서 나누자고 권장했다. 그 결과, 연합회들은 지칠 줄 모르는 이 사역자에게 코로나 회사의 휴대용 타자기를 증정했다. 그녀는 독수리 타법으로 시작해서 점점 상당한 타자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바쁜 국내 선교부장이 약속을 위해 탄 기차 안에서 편지를 많이 썼다.

그녀의 생활 방식은 여행으로 점철되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달치 일을 계획했고 다른 합회로 이동하기 전에 한 합회 전체를 포함시키려고 애썼다. 그녀는 여행 일정이 있는 삶을 전혀 성가시게 여기지 않았던 듯하다.

나이트 양이 남동부 합회에서 국내 선교부 부부장, 교육부장 및 선교자원봉사부장과 안교부장으로 섬길 때까지 다른 책임을 더 맡게 되었다. 그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안수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수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인준 선교사와 신임 선교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매년 그녀의 책임을 맡은 남성이라면 목회자로 지명되어 안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녀가 6년 동안 남동부 연합회에서 여러 다양한 책임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한 뒤 대총회 위원회에서는 1919년 12월 17일에 남부 연합회의 추천에 뜻을 같이 하여

안나 나이트 양을 그 광범위한 지역에 유색 인종을 위한 국내 선교 사역 담당자로 불렀다.(대총회 회의록, 1919년 12월 17일, 11-2, 496.)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한 후에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p.71]

[photo]

한 세기에 가까운 생애 동안(1874년-1972년) 미시시피에서 학교와 교회를 설립했고, 미국에서 인도로 간 최초의 흑인 여성 선교사로서 여정을 걸었으며, 남부의 연합회들에서 힘든 부서 책임을 맡았던 안나 나이트.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의 허가를 받아 사진 사용.

[p.72]

그녀의 새 구역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및 플로리다와 테네시 서부 지역을 아울렀다. 본부에 오래 머무르는 체질이 아니었던 나이트 양은 광범위한 관할 지역의 교회들과 학교들을 오가며 폭넓게 돌아다녔다. 이후 싱글턴 목사는 그녀가 "교회들과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일하면서 맡은 부서 세 곳의 일을 처리하려니 많은 시간을 기차에서 보내고 연일 여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업무를 계획해서 아주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해럴드. D. 싱글턴, "선구자의 선봉대," 북미 정보원(1968년 3월-4월), 2에서 발췌.)

그녀는 대개 가는 곳마다 이틀에서 일주일쯤 머물며 현명하게 시간을 썼다. 평신도 사역 부문에서는 국내 선교 사역을 위한 그룹을 결성하고 주말 협회를 열었다.

안나가 자신의 일과 지역 합회 임원들의 일을 통합하는 방식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담당 지역 순회를 마치면 늘 그 지역 지도부에게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보고를 했고, 여의치 않을 때는 서신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수많은 지도자들 및 하나님과 긴밀히 협력함으로 인상적인 결과를 창출했다.

1932년에는 남동부 연합회와 남부 연합회를 통합해서 현재의 남부 연합회가 되었다. 안나 나이트 양은 새로 조직된 남부 연합회의 유색 인종 부서 중 교육부, 청년선교자원봉사부, 국내 선교부의 부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부 전체의 흑인들을 위한 부서 세 곳을 짊어진다는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기간 힘들게 준비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책임의 무게로 겁먹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에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안나 나이트는 교육을 극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그녀가 지도부에 있는 동안 설립된 학교 수는 이전이나 이후의 성과를 훨씬 웃돌았다.(H. D. 싱글턴이 1988년 12월 6일에 필자와 한 통화에서 발췌.)

안나 나이트는 강연자로서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본문을 선택해서 강력한 기별로 전개시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러 오곤 했다. 그들은 솔직 담백하게 알려주는 그녀를 믿어주었고, 그녀는 평소에 "있는 그대로 말하"곤 했다. 그녀가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줄 때면 사람들은 넋을 잃고 몰두했다.

안나 나이트 양의 일은 대부분 대중적으로 알려졌지만 개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녀가 보살피며 돕고 북돋아주며 인턴십을 받도록 해준 남청년은 훗날 대총회의 H. D. 싱글턴 목사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나이트 양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 청년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알고 싱글턴 목사의 아내감을 찾아봐 주기까지 했다. 자신의 멘토가 추천해 준 사람이 마음에 든 목사는 담당 지역 내 학교에 그 선택된 여성을 교사로 초청했다. 그들은 결혼했고, 싱글턴 부부는 함께 주님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나이트 양의 중매를 감사히 여겼다.

1945년에 흑인 합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부 교회의 조직 체계가 바뀌자 안나가 13년 동안 일했던 연합회 차원의 유색 인종 부서는 자동으로 없어졌다. 그녀는 한 지역 합회에서 부서 일을 해 달라고 초청을 받기는 했지만 70세가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어했다.

[p.73]

하지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새로운 합회 두 곳에서 임시로 책임을 맡는 데 합의했다. 이리하여 그녀는 1946년 3월까지 남대서양 합회에서, 그해 11월까지 남중부 합회에서 계속 일했다.

안나 나이트는 은퇴 후 오크우드 대학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전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해였던 1971년 11월 17일에 98세의 나이로 대총회에서 수여하는 공로상 메달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12명에 불과했다.(L. A. 파스칼, "100세 생일을 맞이한 여성이 공로상 수상," 리뷰 앤 헤럴드 (1972년 6월 15일): 22.)

이듬해 6월 3일에 그 선구자적 선교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녀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미시시피의 시골 처녀는 가난과 문맹에서 벗어나 발전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일찍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거의 100년의 세월 동안 원칙을 따라 살았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기도 했다. 그럴 때 그녀는 하나님께 다음 행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생각지도 못했던 목표를 이루었다. 안나 나이트는 9,000회 이상 집회를 열었으며 인도를 오가고 인도 내에서 한 여행을 포함하지 않고도 전 세계를 23번 여행한 것과 맞먹을 만큼 돌아다녔다.(나이트, 미시시피 소녀, 223.(부록 A, 4.1 참조.) 그녀는 평생 동안 쌓인 월례 보고서를 다 더해보다가 "내 일을 하기 위해 편지를 48,918 통이나 써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 방문 횟수는 총 744번이었다.

그녀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 그녀의 지도하에 설립된 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 그녀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자 인류의 지도자를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안나 나이트는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인도의 수많은 원주민들과 남부 흑인 수백 명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p.74] blank page

[p.75]

와이즈 양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천막을 마련하고 두 남성의 도움을 받아 C. A. 스트로 농장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별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펜실베니아 주 헤이즐턴, 신문 기사, 1927 년

5 목회자들의 전도자이자 교사

제시 와이즈 커티스: 1881 년-1972 년

인준 목사 1945 년-1972 년

1927 년 여름에 펜실베니아 주 드럼스 소도시 근처 시골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밭에 큰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 큰 관심을 끄는 중이었다.

한 신문 기자는 어느 날 저녁 천막 근처 밭에 차 110 대가 주차된 모습을 보고 반경 20 마일에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기자는 "킹스턴 아가씨, 드럼스 인근에서 예배 개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에서 이 수많은 차 주인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와이즈 양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천막을 마련하고 두 남성의 도움을 받아 C. A. 스트로 농장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별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밤마다 사람들이 옛날식 준비찬미에 참여하려고 시간에 맞춰 도착했으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기사에서는 "와이즈 양이 오랜 연륜으로 다져진 성직자의 기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가르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그녀가 다루는 주제의 목록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킹스턴 아가씨, 드럼즈 인근에서 예배 개최," 펜실베이니아 주 헤이즐턴의 1927년 신문 기사에서 발췌. 부록 A, 5.1 참조.)

제시 와이즈는 첫 전도회를 마칠 무렵 침례 받을 준비가 된 개종자 80 명을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농부인 스트로 씨가 땅을 기증해서 천막을 설치했고, 그곳에 멋진 교회 건물을 세웠다. 제시 와이즈와 그녀의 형제는 아름다운 황색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기증했다.

월크스베리에서 걸출한 상인의 딸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이 여성은 어떻게 복음 전도의 길로 들어섰을까?

제시 와이즈는 펜실베이니아 주 라크스빌에서 1881년 12월 3일에 태어났다. 그녀는 올리브와 호머라는 자매와 형제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번창하는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p.76]

[photo #1]

1927년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즈 인근에서 첫 전도 활동을 열었던 천막 옆에 선 전도자 제시 와이즈. 개종자 80 명이 침례를 받았다.

[photo #2]

드럼즈 집회에서 제시 와이즈를 도왔던 전도팀.

사진 제공: 잭과 조앤 데이비스.

[p.77]

제시가 펜실베이니아 주 라크스빌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동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문서전도자 두 명이 찾아왔다. 생계를 위해 책을 팔던

이들은 하늘나라를 위해 영혼을 얻는 일에 더 열심이였다. 그들이 어느 집을 찾아가서 만난 여성은 그들의 책을 사지는 않았지만 사촌인 캐서린 와이즈가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면서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다. 제시의 어머니는 책 파는 사람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난 뒤 책을 샀다. 이후 그녀는 재림교인들이 월크스베리에서 장막집회를 할 때 그 문서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잭과 조앤 데이비스가 메릴랜드 주 몬로비아에 있는 자택에서 1984년 8월 24일에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발췌.(부록 A, 5.2 참조.) 이 장에 언급되지 않은 인용문은 이 인터뷰의 필사에 근거한다.)

제시 와이즈는 헬렌 스탠튼 윌리엄스(1장)와 안나 나이트(4장)처럼 배틀 크릭 대학에서 목회를 준비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제시는 14세에 최연소로 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명석한 생각과 진심 어린 열의 덕분에 조기입학을 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시는 대학에 입학한 뒤 간호학과에서 성경 교육자 및 목회자 양성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바꿨다.

제시는 학업을 마친 후 펜실베이니아 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할 수단으로 형제인 호머와 함께 공예유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자매 올리브와 남편 존 데이비스 뿐만 아니라 호머와 아내 바네타도 모두 재림교인이 되었다. 존은 1893년에 배틀 크릭에 있던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의 지배인이 되었다. 제시의 아버지 와이즈 씨는 생애 끝자락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었다.

제시 와이즈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도자였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목회자가 집회를 열기 위해 그녀의 지역으로 파견될 때마다 제시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H. M. 리처즈 목사와 기타 저명한 전도자들을 도왔다. 이와 같이 그녀는 대학에서 배운 성경 지식에 실제 경험을 보탬다.

얼마 후 제시 와이즈는 직접 전도집회를 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는 천막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동부 펜실베이니아 합회 행정자들은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녀는 다른 비용과 책임을 직접 부담했다. 그녀는 기량이 뛰어난 성악가 조카인 잭 데이비스에게 음악을 책임져 달라고 했으며 간호사 두 명에게 부탁해서 건강 기별을 전하는 데 도움을 받기로 했다. 제시는 밤에 할 설교를 직접 준비해서 전했다.

그 집회를 보도한 신문 기사의 제목은 "킹스턴 아가씨, 드럼스 인근에서 예배 개최"였지만 제시 와이즈는 전도회를 열 당시 45 세였다. 그녀는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가씨"로밖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하며 사역하는 그녀의 전도회를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셨다. 어느 날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제시는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시는 재빨리 주님께 지혜를 구한 뒤 이 멋진 부부에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설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p.78]

그녀는 주제를 바꾼 다음 다니엘서 9 장의 "70 주야" 예언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제시 와이즈는 관심을 보이는 청중에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메시아가 "끊어"지리라는 구약의 히브리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실례로 보여주었다.(다니엘 9:26, 27.)

제시의 기도는 유대인 부부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자가 되었을 때 응답 받았다. 새로 개종한 제이와 트루디 호프먼은 훗날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호프먼 목사와 사모는 20 년 동안 뉴욕 시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 센터에서 전도 활동을 총괄했다.

호프먼 목사에 따르면 제시 와이즈는 역동적인 설교자였다. 그와 아내 트루디는 제시 와이즈가 세운 드럼스 교회에서 함께 침례를 받았다.(J. M. 호프먼이 캘리포니아 주 밸리 센터에서 1989 년 10 월 4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부록 A, 5.3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그 집회의 결과로 어른 80 명이 침례를 받는 일을 통해 제시의 부르심을 확증하셨다. 제시는 예수와 같이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개종 시킨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안수 목사가 파견되었다.

제시 와이즈는 드럼스에서 전도회를 열고 두드러진 결과를 낸 뒤에 동부 펜실베이아 합회의 전도자 및 목회자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주로 천막에서 전도회

시리즈를 수차례 열었고 펜실베이니아 북동부 지역에 잇따라 교회를 세웠다.("제시 와이즈 커티스," 등사판으로 인쇄한 자서전.)

제시 와이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숙하게 설교했고 개인적인 사역에서도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다. 그녀는 인정이 많았고 사람들의 필요에 신경을 써 주었다.

존 커티스의 부인이 중병에 걸리자 와이즈 양은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커티스 부인은 아프기 전에 남편과 더불어 제시 목사의 전도 활동을 자주 도와주었고, 제시와 커티스 부인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후 커티스 부인의 병이 악화되자 와이즈 양은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다.

커티스 부인은 남편과 목회자와 친구들의 사랑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커티스 씨는 아내의 마지막 투병기간 동안 친구가 되어 준 제시 와이즈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존 커티스는 정중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뒤 제시 와이즈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제시는 유머 감각과 반듯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았다. 커티스 부인은 옷을 멋지게 입었다. 그녀는 양질의 정장, 드레스, 모자를 멋지게 차려 입었다. 머리가 길었던 시절에는 거의 땅에 닿을 만큼 길고 짙은 머리칼을 빗은 다음 머리 주위로 휘감는 그녀의 모습을 집안 아이들이 넋을 놓고 지켜보았다. 제시는 사람들 속에서도 돋보이는 외모의 소유자였다. 또한 강인하고 건강했다.

제시는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뒤 존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당시 그녀는 50 세였다.

1932 년 3 월 21 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커티스 씨는 운전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목회자 아내를 위해 가정부와 운전사를 제공했다. 성공한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시공자였던 존 커티스는 아내가 목회자라는 점을 반대하기는 커녕 제시가 부르심을 따를 수 있도록 전폭적인 격려를 보냈다.

[p.79]

[photo #1]

드럼스에서 전도회 시리즈의 건강 측면을 도와준 간호사 두 명과 함께 한 제시 와이즈.

[photo #2]

펜실베이니아 북동부에 있는 교회들의 설립자 제시 와이즈 커티스. 젊은 목회자들이 그녀의 지도 아래 인턴을 했다.

사진 제공: 잭과 조앤 데이비스.

[p.80]

제시 와이즈 커티스는 펜실베이니아 북동부의 보몬트, 텅크해녹, 몬트로즈에서 신자들을 모으는 일에 성령의 매개체로 쓰였다. 그녀는 천막에서 설교하는 동시에 수차례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그녀는 집회소가 생긴 후에 교회 건물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감독했다.

커티스 부인은 1943년 4월 10일에 텅크해녹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열린 1분기 모임과 성만찬예식을 집례했다.(1975년 10월 11일에 텅크해녹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헌당 예배 순서에서 "텅크해녹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역사적 개요"에서 발췌.)

몬트로즈 지역사회에서 조앤 데이비스는 제시 와이즈 커티스의 설교를 통해 부모와 함께 재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데이비스 부인이 강조한 바로는 커티스 부인이 명확하고 아이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구원의 진리를 전한다고 했다.

성경 서적상들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커티스 부인에게 자주 전달했고, 그녀는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충실히 후속조치를 했다. 그녀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한 집에 모아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더 높일 수 있었다.

몬트로즈에 세운 교회는 제시 커티스가 세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재림교회의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가 개종한 사람들에게 남긴 유산은 보통 교리적 정확성으로 이해되는 것 그 이상이었다. 그 전도자이자 목회자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사랑과 인정을 가르쳤다. 우선 첫째로 그녀는 교인들의 필요에 늘 맞춰주었다. 그녀가 몬트로즈에서 전도자이자 목회자로 섬기던 당시에는 신자들이 주로 가난한 농부였다. 커티스 부인은 예배 후 문에서 악수할 때 재정적 위기로 믿음이 위태로운 교인의 손에 10 달러나 20 달러 지폐를 슬그머니 쥐어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내 공과금 액수를 어떻게 정확히 아셨지?"라며 깜짝 놀라곤 했다.

그래도 그녀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끔 신중한 방법으로 자신의 너그러운 마음을 발휘하는 일에 조심스레 임했다.

제시 커티스는 사람들을 재림교회의 진리와 실천으로 양육할 때 지혜와 배려심을 발휘했다. 그녀가 고기와 달걀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엄격한 채식을 하라고 즉시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끗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주었고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었다. 하지만 "당장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라거나 "달걀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주 선하고 신실한 재림교인으로서 극단주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1984년에 잭과 조앤 데이비스가 필자와 한 인터뷰.

제시와 존 커티스의 행복하던 결혼생활은 커티스 씨의 죽음으로 5년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사별한 어느 연합회장이 집에 자주 찾아오면서 제시와 결혼하고 싶어했지만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제시 와이즈 커티스는 절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커티스 부인은 남성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여성 목회자들을 괴롭히는 재정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펜실베이니아 주 리먼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선교사업 시설로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다.

[p.81]

우울증이나 불행한 일로 집을 잃은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를 품을 만큼 집과 마음이 넓은 이 목회자와 함께 살 집이 필요했다. 그녀의 집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겁다."라는 좌우명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녀는 돌보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사주고 진료비와 치과 진료비까지 내주었다. 수많은 청년들은 이 너그러운 목회자의 도움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제시의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을 받은 청년들 중에 그녀의 조카인 잭 데이비스가 있었다. 그녀는 약속장소에 태워주고 환등기를 설치하며 도표를 거는 등 장비 담당을 위해 그를 고용했다. 그는 커티스 부인의 성경공부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피우다 차를 환기시키기는 했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녀가 잭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지원을 베풀어준 결과, 그는 개종하고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설교와 삶에서 보여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

커티스 부인은 펜실베이니아 북동부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1964년 9월과 10월에 킹스턴에서 장막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시리즈를 위한 예산은 5,000 달러였는데, 그 중 2,000 달러는 부지 임대료에 썼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시 커티스를 다시 한 번 쓰셨다.

제시 와이즈 커티스가 보살폈던 사람들 중에 여성 목회자를 두는 일을 부적절하다고 여겼다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를 사실상 존경했다.

제시 와이즈 커티스의 강점은 설교의 은사였다. 그녀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가 설교단에 설 때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회상한다. 마가렛 포츠에 따르면 커티스 부인의 설교는 "활기가 넘쳤으며,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동부 펜실베이니아 장막집회에서 마가렛과 다른 사람들은 그 전도자의 삶과 설교에 대해 감화를 받았다. 커티스 부인은 야영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그녀가 개종시킨 사람들이 많았던 듯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엄격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돌아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청중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기별을 준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저 낯을 익고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츠 부인은 "제시 와이즈 커티스가 말할 때면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였습니다."라며 힘주어 말했다.(마가렛 포츠가 메릴랜드 주 하이츠빌에서 1985년 6월 22일에 필자와 한 통화에서 발췌.)

그녀가 효율적으로 설교하며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였다. 잭 데이비스는 설교문을 읽는 이모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회상했다. 이렇게 즉석에서 기별을 전하니 시선을 사로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녀의 설교는 너무도 이해하기 쉬웠다. 절대로 "사람들이 버거워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직접 설교했다.

데이비스 부인의 말에 따르면 커티스 부인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설교할 때 계속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했다. 그녀는 지진, 허리케인, 열차 사고나 비행기 추락 사고에 관해 오려 낸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이 사건들을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와 곧 재림하실 주님과 연관 지어 이야기했다.

[p.82]

그녀는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지는 않았지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곤 했다. 조카인 잭 데이비스는 그녀의 설교를 듣다 보면 주님께서 당장 그 다음 날에라도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모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닭살이 돋고는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커티스 부인은 전도사역을 위해 장비를 잘 갖추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 심판, 성소, 일곱 인, 십계명, 안식일 등 성경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形形色색의 생생한 침대 시트 크기의 포스터와 도표를 사용해 총 42개의 도표를 만들었다. 그 여성 설교자는 가난에 허덕이는 재림교인 화가들이 그녀의 설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듯 눈에 띄는 시각 보조교재를 창작하는 동시에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돈을 지불했다.

커티스 부인은 도표 외에도 그녀의 시대에 가장 성공한 일부 전도자들의 관행이었던 대규모 환등기 및 슬라이드 영사기 수집품을 이를 보여줄 장비와 함께 모았다.

제시 커티스는 교회를 세우고 침례자 수를 센 다음 자신이 개종시킨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차 그들을

찾아갔다. 혹은 그들이 슬그머니 떠난 경우에 그들을 다시 양육했다. 그녀가 이전에 세웠던 교회에 목회자가 없을 때는 잠시 동안 기꺼이 목회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신자들을 지탱해 주는 동시에 새 신자가 늘어났다. 이런 방법들을 살펴보면 개종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사라질 때 그녀가 세웠던 교회들은 여전히 건재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면 알수록 동부 펜실베이니아 합회장들이 이처럼 연륜 있고 유능한 목회자에게 인턴들을 보내 훈련을 시킨 이유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 대총회 목회부장인 N. R. 다우어 목사는 커티스 전도자 밑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N. R. 다우 목사가 포토맥 야영지에서 1973년 6월에 필자와 한 대화에서 발췌.)

또한 합회 행정자들은 일부 교리나 교회 권위에서 멀어지는 듯한 목회자들이 있으면 커티스 부인과 사역하라며 늘상 보냈다. 때때로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사역자가 이 지혜롭고 경건한 여성 목회자와 어울리고 상담을 받으며 다시 기반을 찾았다.

커티스 부인이 주로 사실상 혼자 전도집회를 열고 교회들을 성장시키기는 했지만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목회자의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턴 교회 건축을 돕기 위해서 건축업자들에게 건축 자재를 요청했다. 그녀는 월크스베리 교회를 짓기 위해 일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시 커티스와 호머 커티스가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기증할 때 존 커티스는 건물 지을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제시 와이즈 커티스는 전도, 목회, 요청, 기증 등 폭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역이 성장하는 일에 끊임없이 기여했다.

커티스 양은 개인적으로 체계적이고 특별히 강인한 지도자였다. 그녀는 품성과 인격 면에서 관심과 존경을 받았다. 커티스 부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p.83]

제시 커티스는 우선순위를 명심할 줄 아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신문을 읽고 시사에 밝으며 전용 서재가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설교 자료를 모았다.

커티스 부인은 1959년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린 컬럼비아 연합회 회의 같은 교회 회의와 비즈니스 회의에 충실히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회원들과 함께 가운데서 사진을 찍었다.

커티스 부인과 메리 월시는 친한 친구이자 인준 목사였다. 제시는 엘렌 화잇을 직접 만나는 특권을 누렸다.

제시 커티스에게 안수를 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녀가 반대한 것 같다는 일화를 가족이 들려주었다.(바네타 와이즈, 자넷과 찰스 맥킬이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1985년 7월 27일에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발췌. 부록 A, 5.4 참조.)

제시 와이즈 커티스는 1945년부터 1972년까지 25년 이상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인준 목사로 섬겼다. 그녀는 은퇴한 뒤에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했다. 생의 마지막 해에는 병마로 기력이 쇠했고, 1972년 9월 6일에 펜실베이니아 주 마운틴 탑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거의 91년 동안 사역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대중과 두려움 없이 교류하는 일을 독특하게 아우르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희망을 품고 생을 마감했다.

커티스 부인은 자신이 발견한 세상을 사뭇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그녀의 부고를 살펴보면 "그녀는 동부 펜실베이니아 합회에서 장막집회를 열었고 수많은 교회를 조직했다."라고 명시했다.("제시 W. 커티스," 리뷰 앤 헤럴드, 1972년 11월 2일.)

생의 끝자락에서 커티스 부인은 다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전과 똑같은 사역을 하겠노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이 침례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나는 맡은 역할을 다하고 영혼들을 기별로 인도할 수 있는 한 계속 살면서 마음을
맑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일이다.
진정 유일한 일이다!

-----메리 월시, 1984 년

6 그 작은 검은 책

메리 E. 월시: 1892 년-1997 년

인준 목사 1921 년-1981 년

유럽에서는 제 1 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뉴욕 시에서는
전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문화와 설렘과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아일랜드 출신의
메리 월시는 간호사 일을 마치고 뉴욕 시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와 간호복을 벗고
저녁에 입을 맵시 있는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장신구를 하고 밤에 볼 오페라를
위해 곧 채비를 마쳤다. 20 대 초반의 가녀리고 늘씬한 메리는 지성과 강인한 성격의
내적 미를 풍겼다.

메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단정해 보이기는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는 "나의 복되신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아실까?"라며
자문했다. 그분께서는 그러시지 않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녀는 저녁에
집에서 입을 옷으로 갈아입었고 오페라와 경마장이나 무용 교습에 다시는 가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포기했다. 그녀가 그날 밤 뉴욕 시에서 옷과 오락에 대한 기준을
갑자기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그녀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줄 것이다.

메리 월시는 1892 년 아일랜드 북부 지역에서 영국인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10 대
시절에 뉴욕 시에 있는 이모를 만나러 여행을 떠났다. 메리는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남을 만큼 그곳에서의 삶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뿌리는 뉴욕 시로 확장되어서 이모 및 삼촌과 함께 살며

아일랜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녀의 삼촌이 팔리 추기경과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메리는 일요일에 대성당에서 추기경이 집례하는 11시 미사에 보통 참석했다.(메리 월시가 미시간 주 스프링스에서 1984년 7월 13일에 필자와 한 인터뷰; 메리 월시가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서 1989년 7월 20일에 필자와 한 전화 인터뷰. 이 장에 나오는 메리 월시의 모든 인용문은 따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인터뷰에서 발췌.)

메리는 교육을 마친 후 아일랜드에서 받았을 법한 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간호사 일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집에 살면서 우아한 옷을 입고 뉴욕 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즐겼다. 그녀는 재미를 위해 오페라를 봤고 깨우침을 위해 강연장에 갔으며 자기 계발을 위해 무용 교습을 다녔다.

[p.86]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에 한 친구가 메리에게 다음 날 밤에 있을 강연 광고를 건네주었다. 그 친구가 떠난 뒤 메리는 그 광고를 손에 쥐고 굵은 활자로 된 제목을 읽고 또 읽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지 전에 사라질 것인가?** 그녀는 그 질문을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지만 이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강연은 월시 양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시 구역의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저녁 정시에 그곳에 확실히 도착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그 장소를 찾으려고 바로 출발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는 정시에 도착해서 앞자리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메리는 문화 강연회(교육적 발표. 뉴욕 주 차우타우쿠아에 설립된 여름학교를 본떴으며 주로 강의와 오락이 결합된 시리즈)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작은 검은 책"이라고 설명한 책을 들고 들어와서 무대 중앙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강연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화 강연회의 강연자가 기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그 "작은 검은 책"이 알고 보니 성경으로 드러나자 메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가 양심상 회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로 자란

탓에 성경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평신도가 성경을 공부하면 특히 위험하다고 배웠다. 월시 양은 자신의 아파트에 성경을 가져온 친구에게 그 작은 검은 책을 치우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며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메리는 극장에 남아 있었고, 이내 강연자의 말을 납득하게 되었다. 메리는 강연자가 이야기하는 시사와 역사적 자료에 친숙함을 느꼈는데, 이는 그녀가 총명한 마음의 소유자이며 폭넓게 독서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역사와 시사에서 인용했던 바로 그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성경에서 보여주었다. 젊은 월시 양은 "저렇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수백 년 전에 미래가 모두 펼쳐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밤 극장을 떠나면서 강연자의 작은 검은 책이 이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행동파였던 메리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가게문이 열리지 마자 자신을 위해 작은 검은 책을 사려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녀는 두에판 성경 한 권을 찾아서 목마른 나그네가 큰 물잔을 기꺼이 받아들이듯 읽기 시작했다.

메리는 목요일 밤에 두 번째 강연을 들으러 극장에 갔다. 전형적인 지도자였다면 성경에 대한 메리 월시의 편견을 뚫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녀는 적합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다. C. T. 에버슨 교수는 정통한 학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유창하게 생각을 잘 표현하는 그를 보고 "맑은 혀"를 가졌다면서 감탄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기 영사기가 없이도 극장 곳곳에 퍼질 만큼 듣기 좋았다. 메리 월시는 유능하고 능숙한 에버슨 교수를 존경했다.

하지만 그런 면이 다가 아니었다. 에버슨 교수는 학식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마음을 겸비했다. 그는 예언 성취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보여주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그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갈릴리 사람"을 언어적으로 흥미롭게 그려냈다.

[p.87]

활발한 상상력의 은사를 받은 메리 월시는 일요일과 목요일 밤에 예수에 관한 에버슨 교후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의 모습을 마음속에 정확히 그릴 수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새롭고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했다.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메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을 그분과 나누기로 하면서 자신의 생활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 거울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과연 주님께서는 하실지 묻게 되었던 것이다. 그분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곧바로 바꿨다. 이내 여전히 품질은 좋지만 더 수수한 옷을 샀다. 장신구를 치웠다.

그녀에게 이렇게 변화하라고 제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다양한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발행한 서적 및 책자와 함께 성경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혼자 읽었다.

월시 양은 소중한 새 성경을 펴서 둘째 계명을 읽고 또 읽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을 읽고 당혹스러웠다. 이에 대해 3 주 동안 계속 공부한 후 자신의 예배 대상이었던 성상을 가져다가 부숴버렸다.

월시 양은 독서를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아무 고기도 먹지 않고 차나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난로에 늘 커피포트를 두던 그녀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전날 제칠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녀는 일요일 아침에 고기와 차와 늘 있었던 커피 등 모든 것을 단번에 포기했다.

메리는 배우고 있던 성경의 진리에 대해 팔리 추기경과 상의해야 할지 고려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완전히 확인했으며 그런 상황에서 사람과 진리를 의논하는 일은 하나님께 모욕적일 수 있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최고의 권위였다.

메리 월시가 에버슨 교수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었던 안식일은 개종자와 전도팀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었다.

물론 그 재능 있는 젊은 간호사의 결정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뉴욕 시에 사는 그녀의 이모는 종교적 소속을 바꾼 메리를 보고 굉장히 분개했다. 분명히 나머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이모는 메리에게 아예 바다 건너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모는 메리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메리가 합류한 이상한 종파의 집단을 설명했다. 사실 그 가족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마태복음 10:37) 성경절은 메리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을 더없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모는 그녀와 관계를 끊었고 다른 가족들은 연락을 단절했다. 그들의 생각에는 메리가 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었다. 그나마 제일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라면 이 불쌍한 아이가 공부를 하더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정도였다.

[p.88]

이렇듯 가족과 헤어지는 십자가는 메리 월시의 삶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만 그에 대해 주님께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가족들 중에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종교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은 현재 모두 영국에 있고 교육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며 "내가 그들을 수치스럽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족과 헤어지는 일도 모자라 다른 고통도 따랐다. 그 젊은 개종자는 주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설렘을 감출 수 없었지만 식습관, 예배일, 복장 등 그녀의 가치와 행동이 변하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이내 헤어지면서 실망하게 되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들은 그녀를 저버렸고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에 사무쳤다.

반면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그들은 메리를 북돋아 두면서 뜻밖의 진료 변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된 메리 월시는 교단의 대학에 대해 듣자 진학을 고려했다. 모아 놓았던 돈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전도팀의 사역을 통해 그녀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자마자 직접 전도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좀더 준비하고 잠시 시간을 가지라는 충고 대신에 침례를 받은 직후 전도팀에 합류하라는 초청을 받는 일은 그녀의 개종이라는 놀라운 상황과 연관이 있었다. 메리 월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공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혼자

읽고 다양한 교리를 도출해 냈다. 그녀는 해야 하는 일을 보면 보통 바로 해냈다. 그녀는 특출한 개종자였다. 그래서 합회장과 전도자와 성경 교육자 두 명은 메리에게 바로 전도에 나서라며 강력히 권고했다.

갓 재림교인이 된 메리는 자신을 알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의 확실한 초청과 하나님의 더없이 분명한 부르심에 부응하여 A. E. 샌더슨 목사가 이끄는 전도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1970 년에 메인 주로 옮겼다.

그녀가 전문 교육을 받고 높은 임금을 받았던 간호 업무와는 달리 전도사역은 그녀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했고 급여도 적었다.

월시 양은 전도집회에 한 번 참석한 적 외에는 전도집회를 열거나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샌더슨 목사가 그녀에게 "실지"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

월시 양은 새로운 부르심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어느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일만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일랜드에서 제대로 가정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절대로 다리를 꼬지 않으면서 "그대로" 앉아있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녀의 타고난 영국식 내성적인 면 때문에 거만하다는 오해를 종종 받았다.

메리 월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명민한 마음을 부지런히 적용하면서 새로운 사역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한 성경낭독 및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유사 자료를 모두 얻었다.

그녀의 임무는 사람들의 집에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녀는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상담하며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개종자를 교회로 이끌었고, 그들이 교리와 실천을 모두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p.89]

샌더슨과 월시 전도팀은 여러 도시로 옮겨 다녔다. 그들은 너무나 빠듯한 예산으로 사역하면서도 수많은 침례자를 배출했다. 그들은 총 예산 1,000 달러로 뉴욕 시

전도를 위해 파송되었을 때 미국의 제일 큰 도시를 전도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했다. 월시 양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께 도와 주시라고 간구하며 며칠 동안 금식했다.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월시 양은 나이 지긋한 부자 여성 두 명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들은 성경의 기별을 받아들였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후한 헌금을 드렸다. 한번은 그들의 주님의 사업에 쓰라면서 은행에 넣은 15,000 달러를 메리에게 건넸다. 메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헌금했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목격했다.

월시 양은 보스턴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로버트 S. 프라이스 목사가 이끄는 전도팀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경험을 더해가면서 맡은 책임도 상당히 늘어가고 다양해졌다. 우선 첫째로 프라이스 목사의 본 저녁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월시 양은 선택된 주제에 관해서 늘 짧은 설명을 해주었다. 그녀는 이른 저녁에 짧은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녀의 강연을 들으러 제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객석은 만원이었다. 어느 날 저녁에 강단에 오르던 프라이스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녀를 보고 "이런, 당신이 제 몫의 관심을 가져가 버렸습니다!"라며 콧속말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응수했다. "글쎄요, 그랬다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제 몫의 관심을 가져가셨으니까요." 이는 그녀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수긍의 표시였다. 그 전도자와 그의 조력자는 편안하고 서로 보완해주는 사역 관계를 유지했다.

메리 월시는 프라이스 목사를 훌륭한 전도자고 여기며 존경했다. 그는 덴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로버트 S. 프라이스, 부고, 리뷰 앤 헤럴드(1946년 10월 24일): 20.) 월시 양은 공공 전도집회에 건강 전도를 능숙하게 포함시키는 그의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월시 양은 질문 상자를 처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사람들은 전도회가 시작하기 전에 성경 주제에 대한 질문을 상자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 다음 예배가 끝날 무렵에 질문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방으로 모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절과 문제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다. 목회자가 그런 문의를 "있는 그대로"

대답할 성경지식, 믿음, 침착성을 갖추는 일은 엄청난 시험이었다. 하지만 메리 월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메리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되기 직전에 실제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과연 쓰러지지 않고 즉석에서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주님께 간구했다. 그녀는 첫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결국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초부터 그녀를 전도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녀는 침대맡에서 어떤 보증이나 약속을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늘 아버지께 그녀의 곁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성경을 대충 훑어보다가 이 약속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누가복음 21:14, 15). 메리는 간구했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은 뒤 침대로 다시 들어가 잠을 청했다.

[p.90]

메리 월시의 질문 상자는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 전도집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여러분의 질문을 가져오세요."라는 광고가 신문에 실리자 참석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가져왔다. 월시 양이 내놓은 답변 덕분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집회의 참석률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녀가 계속 연구하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랄 만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다. 그녀가 주제에 관련된 성경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만큼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적수가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실망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효율적으로 기량을 발휘하자 힘든 임무를 또 맡게 되었다. 보스턴 커먼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소를 예약하고 선택한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쇼핑몰 한 칸에

있는 특정 나무 옆에 자리를 배정받았다. 가톨릭 신자들은 다른 편에 자리했다. 그 사이에는 다양한 개신교회 교단들이 각자 배정된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듯 종교적 논쟁이 열띤게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인들 사이에 신랄한 분위기가 상당할 때도 종종 있었다.

프라이스 목사와 월시 양은 일요일마다 커먼즈에서 강연하고 질문에 답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을 피했을 것이다. 월시 양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메리 월시에 따르면 프라이스 목사는 커먼즈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의 달인이었다. 그녀가 설명하기를 "그분은 재림교인이 되기 전에 군인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분은 나무랄 데 없이 옷을 차려 입은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어설 때면 저는 그분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월시 인터뷰, 1984년 7월 13일에서 발췌.) 메리 월시도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 입고 예상밖의 상황에 흔쾌히 대비하며 커먼즈를 걸어갔다.

제일 큰 침례교회의 목회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교리에 반대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 공격적인 방식으로 신문을 광고를 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그는 만원 관객을 이끌어냈다. 재림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회자처럼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매도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었다.

메리 월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 공격자의 집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있던 프라이스 목사와 다른 사역자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사무엘상 17:26.)

그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망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프라이스 목사는 교회 뿐만 아니라 보스턴 커먼즈에서도 비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메리 월시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광고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그분에게 간청하고 애원하며 놀리고 눈물을 흘리며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신문에 냈습니다. 보스턴 커먼즈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p.91]

메리 월시와 동역자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님을 찾으면서 그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월시 양은 성경의 진리를 훌륭하게 변호했다. 그녀는 성경의 진리를 들은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청중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 그 도전자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메리 월시는 전도자들이 자주 옮겨 다녀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분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작은 검은 책에 나오는 그리스도 중심의 기별을 나눈다는 자체에 만족했다.

그녀는 처음에 주당 7 달러를 받고 일했다. 그 당시에는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생활비가 더 든다고 여겼기 때문에 같은 자격을 가진 남 청년들은 급여를 더 받았다. 하지만 메리는 씹쓸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녀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는 태도를 취했다.

월시 양은 간호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옷과 기타 비용에 쓸 돈이 많았다. 다행히 그녀는 전도 활동에 입문하면서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절대로 "싸구려" 옷을 입을 수 없었던 그녀는 늘 최고급 옷을 샀고, 그로 인해 그녀의 옷은 몇 년 동안 오래갔다.

월시 양은 수많은 공공 사역을 해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초기에 인준 목사가 되었다. 그녀는 전도집회 시리즈로 강연한 덕분에 친숙한 인물로 각인되었고 이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월시 양은 목회 신임서 이외에도 교단의 정기간행물에 자주 기사를 썼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자용 출입 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용 출입 허가증 덕분에 런던 의회당에 입성하기도 했다.

월시 양은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기사 6 편을 연재했다. 이렇듯 도움이 되는 기사들은 1947 년 4 월 3 일에서 5 월 8 일까지 리뷰 앤 헤럴드에 게재되었다. 그녀는 시리즈의 첫 기사인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임무"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 서서 소위 첫 교황이라는 베드로의 검은 형상 앞에 절하는 남녀들과 아이들을 지켜본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온 발가락에 깊은 존경심을 담아 입을 맞추고, 키가 작은 다른 사람들이 오른손을 뻗어 같은 발가락을 살짝 만진 다음 그 손에 입술을 바짝 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목격하고 이 기별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다!

-----메리 E. 월시,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임무," 리뷰 앤 헤럴드(1947 년 4 월 3 일): 7.

메리 월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녀의 영혼에서 슬픔의 샘이 솟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런 부담을 느끼고자 로마에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이며 볼티모어의 가톨릭 교회에서 거대한 십자가상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사람들을 보고 우려를 표했다.

[p.92]

월시 양은 가톨릭 신자들과 일하면서 듣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며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미리 기록한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권장했다. 에버슨 교수가 메리 월시에게 설교할 때 효과적으로 썼던 방법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언급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해 태어나시고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뒤 묻히시고 부활하신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가톨릭 신자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리라고 했다.

메리 월시는 학술지에 기고하는 일 외에도 학습 안내서 (메리 엘렌 월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성경 교과" (내슈빌: 남부 출판협회, 1967), 낱장, 그리고 "평신도를

위한 교리 성경연구,")인 외경(메리 E. 월시, 외경 내슈빌: 남부 출판협회, 1968)과 바벨론의 포도주(메리 E. 월시, 로마 바벨론의 포도주 내슈빌: 남부 출판협회, 1945)를 준비했다. 몇 세대에 걸친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지 불과 하루만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메리 월시는 교황권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녀는 외경의 마지막 단락에 이런 기도를 남겼다. "주님께서 옛적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개신교도와 가톨릭 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상동, 104.)

메리 월시는 모든 공개 발표, 질문 상자, 기사 및 책 집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집에서 개인 사역에 참여했다. 현재 많은 교인들은 메리 월시의 사역을 통해 부모가 재림교인이 된 계기에서 그들의 재림교회 신앙에 대한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예: 메릴랜드 주 벨츠빌에 사는 발레리 랜디스 박사는 어머니가 1939년에 뉴욕 시 브루클린 음악 아카데미에서 열린 메리 월시의 사역을 통해 개종했다.)

월시 양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덕분에 그 방면으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1943년부터 1953년까지 컬럼비아 연합회 소속으로 일하면서 평신도와 교회 직원에게 전도를 위한 훈련을 시켰다. 그녀는 지역교회 교인들이 평신도 전도자로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동역자들은 컬럼비아 연합회에서 10년을 사역하는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일평생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그녀를 회고했다.(젤라 홀버트가 메릴랜드 주 타코마 파크에서 1989년에 필자와 한 통화에서 발췌.) 어느 동료는 메리 월시에 대해 흥미로운 강연자이자 성공적인 성경 교육자이며 사람들을 가톨릭의 지배에서 풀어주는 일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M. E. 로웬 목사가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에서 1989년에 필자와 한 통화에서 발췌.)

월시 양은 1953년에 태평양 연합회 국내 선교부에서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1960년 연감을 살펴보면 그녀가 태평양 연합회 국내 선교부 및 민방위부 부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1965년에는 그녀의 직함이 평신도선교부, 민방위부, 가정연구원의 부부장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활동적인 삶을 고려하면 1963년 70세의 나이에

"은퇴" 신청을 했다는 점을 알아내기 힘들었을 듯하다.(부양료 신청, 1963 년 1 월 28 일에 제출. 대총회 기록보관소.)

[p.93]

메리 E. 월시(1892 년-). 재림교회의 신앙으로 개종한 아일랜드인, 작가, 강연자, 개인 사역자, 평신도 목회자를 위한 강사. 인준 목사 1921 년-1981 년.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의 허가를 받아 사진 사용.

[p.94]

메리 월시는 1921 년부터 1981 년까지 인준 목사로 사역했다. 그녀는 남성들과 함께 60 년 동안 인준 목사로 섬긴 후 주로 목회직 여성들과 비목회직 남성들에게 수여하는 라이선스를 가진 위임 목사로 옮겨갔다.(신임서에 관련해서 이런 변화에 대한 논의는 210 페이지 각주 2 참조.) 그녀는 이 일로 심란해 하지 않았다. 기별을 나누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계속 온 힘을 쏟았다.

그녀는 과거에 해냈던 무겁고 광범위한 책임과 넓은 지역을 여행했던 일에 비해서 90 대에 들어선 뒤 한 사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작은 구석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내게 맡겨진 역할을 하며 영혼들을 기별로 인도할 수 있는 한 계속 살면서 또렷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그것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일이다. 내가 이 세월을 살 동안 무엇을 위해 일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였다.

-----메리 월시가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서 1989 년 7 월 20 일에 필자와 한 통화.

주님의 재림은 늘 그녀의 생각에서 중심을 차지했다. 그녀가 수백 명의 개종자들에게 전한 기별은 세상 끝날까지 위풍당당하게 승리를 거두며 행진하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개종했던 때부터 사랑하는 예수를 예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변함없이 평생을 바쳤다.(메리 월시는 1997 년 9 월 21 일에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서 105 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p.95]

남녀를 물론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엘렌 G. 화잇, 1901 년

7 교회 설립자

엘렌 굴드 하몬 (제임스 부인) 화잇: 1827 년-1915 년

안수 목사 1884 년-1915 년

5,000 명(엘렌 G. 화잇 외, 엘렌 지 화잇 자서전(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 1915), 221-22.)에서 20,000 명("엘렌 굴드(하몬) 화잇,"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백과사전, 해설 참고 문헌 시리즈, 10 권(워싱턴 D.C.: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 1410.)에 이르는 청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강연한 여성이 전에는 열 명이나 20 명 앞에서 간증할 생각에 몹시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점은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남편과 함께 설립한(상동, 1406.) 엘렌 하몬 화잇의 경험담이었다.

어린 시절, 예민하고 종교에 대해 고민하던 엘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고군분투했다. 10 대가 된 그녀는 꿈을 꾸 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셨다고 확신하는 경험을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희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화와 이해심을 나눠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1840 년대 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여기는 재림운동의 시기였다. 엘렌은 전에도 자주 그랬듯 재림집회에 참석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기회가 주어지자 엘렌은 일어나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렌을 비롯한 하몬 가족은 재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리교회에서 제명되었다. 하몬 가족은 이 일로 실망했지만 엘렌이 재림 신자들에게 온 힘을 쏟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844년에 예수께서 예상대로 재림하시지 않자 대실망을 겪은 후 엘렌 하몬은 재림 신자들의 영적 여정과 하늘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장면을 본 첫 번째 계시를 경험했다. 일주일 즈음 후에 경험한 두 번째 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나누실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하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할 시련을 보았다.

[p.96]

그녀는 끝까지 지탱하게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다.

엘렌은 이 계시를 보고 난 뒤 마음이 괴로웠다. 그녀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가 화김에 던진 돌에 얼굴을 맞은 뒤로 너무 허약해져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이제 17세가 된 그녀는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너무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라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괴로운 경험이었다.(화잇, 자서전, 69에서 발췌.)

짐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엘렌은 오히려 그녀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지시를 감지했다. 그 도전이 너무 불가능하게 보이고 그녀가 보기에는 실패투성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엘렌은 기도시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신호로 입증된 일을 통해서(상동, 69-71. 부록 A, 7.1 참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이후 그녀는 종교적 상황에서조차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때 교만해질까봐 두려워서 힘들어했다. 그녀는 구원과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전하러 나가야 한다면 자만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요청을 들어주신 주님께 흠족한 마음을 가진 엘렌은 어디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엄숙히 약속했다.

그녀는 30 마일 떨어진 메인 주 포틀랜드와 동부 메인 주에서 간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힘이 없었지만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힘차고 또렷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1844 년 대실망으로 너무 쓰라린 경험을 한 나머지 한때 참여했던 그 운동을 이제는 망상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강연하려고 뉴햄프셔로 갔다. 광신주의가 여러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링턴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을 통해 그녀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제임스 화잇을 만났다. 제임스와 엘렌은 그릇된 관행과 신념을 함께 폭로하며 청중에게 성경의 진리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함께 사역하다가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엘렌 하몬과 제임스 화잇은 1846 년 8 월 30 일에 결혼했다. 주님을 위한 그들의 사역은 결혼생활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애썼다. 이내 그들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진리를 그들의 가르침과 삶에 포함시켰다.

엘렌은 1847 년 8 월 26 일에 아들 헨리를 낳았다. 제임스와 엘렌이 재림 신앙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주 여행하고 옮겨 다니는 사이에 홀랜드 가족은 5 년 동안 헨리를 돌봐 주었다.(상동, 120. 부록 A, 7.2 참조.)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고 가끔씩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엘렌에게는 당연히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다.

제임스와 엘렌의 둘째 아이 제임스 에드슨 화잇은 1849 년 7 월 28 일에 태어났다. 부모는 6 주 된 그를 데리고 메인 주 파리에 가서 광신주의에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집회에 참석했다.

[p.97]

화잇 부부는 뉴욕 주 오스웨고에서 동료 신자들에게 빌린 가구로 임시 살림을 꾸렸다. 이곳에서 엘렌이 제임스와 함께 오류와 싸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동안 제임스는 집필하고 설교했다.

화이트 부부는 1850년 봄 버몬트와 메인 주를 방문하기로 했을 때 9개월 된 에드슨을 본포이 자매에게 맡기고 신체적 고통을 자주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엘렌 화이트는 버몬트에 있던 중 집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가족들을 보면서 메인 주에 있는 두 살배기 아들과 뉴욕 주에 있는 9개월 된 아기를 떠올렸다. 엘렌 화이트이 속 편하게 여행을 다니니 꽤 즐거웠겠다는 견해를 밝힌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젊은 설교자의 마음은 자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꿈에 그녀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며 이런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린 섭리를 따르라고 북돋아주는 천사를 보았다.(상동, 131-32. 부록 A, 7.3 참조.)

화이트 부부는 버몬트에서 캐나다 동부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폄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렌은 목상태가 다시 도졌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분명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또렷한 목소리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다. 신자들은 힘을 얻었다.

5주 만에 뉴욕으로 돌아와 어린 에드슨을 본 화이트 부부는 "매우 허약"한 아기의 상태를 보고 심란해졌다. 그 시점에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적었다. "불평스러운 생각을 억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상동, 135.) 제임스와 엘렌은 아기를 위해 기도했고, 아기는 상태가 호전되어 오스웨고에서 열린 회의에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 이사와 여행을 하던 중 1854년 8월 29일에 윌리를 낳았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을 비방하는 이단 간행물인 진리의 사자를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를 아기 덕분에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어서 기뻐다.(상동, 155.) 제임스와 엘렌은 모두 중병치레를 하기도 했다.

제임스가 시작한 출판 사업이 엘렌의 강력한 격려에 힘입어 미시간 주 배틀 크릭에서 유리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부부는 1855년에 그곳으로 옮겼다. 엘렌은 세 아이를 다 데리고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제임스가 건강하지 않은데도 과로하는 기질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 없이 남겨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다. 새로운 교단을 세우는 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다.

화이트 부부가 미시간으로 옮긴 뒤 상황은 더 나아졌다. 1856년 11월에 배틀 크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이트 부부가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출판물에 대해

후원을 받았다. 얼마 후 경쟁 상대였던 진리의 사자는 막을 내렸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불협화음은 흩어졌다. 제임스 화잇은 출판을 위해 진 빚을 갚을 수 있었고 건강이 회복되어 안식일에 세 차례 정도는 거뜰히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배틀 크릭은 형성되고 있던 교단의 본부가 되었고, 1860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엘렌 화잇은 육아와 사역을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에 통합시켰다. 그녀는 가족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데 시간을 쪼개서 썼다. 그녀의 예언적 은사에 동반되는 무거운 책임감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짊어졌다.

[p.98]

엘렌은 주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닐 때 계속 설교했다. 그녀는 새로 설립된 교회를 방문해서 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조언했다. 그녀는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드러나는 계시를 경험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현재와 다음 세상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는 기쁨에 대해 설교했다.

넷째 아들 리틀 허버트는 1860년 9월 20일에 태어났지만 그해 12월 14일까지밖에 살지 못했다. 생명을 약속하며 갓난 아기를 떠나 보내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16세였던 장남 헨리가 1863년 12월 8일에 죽은 일은 여전히 감당하기가 더 어려웠다.(화잇, 자서전, 165-66.) 엘렌과 제임스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에드슨과 윌리는 만형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다. 하지만 화잇 부부는 부활의 날에 자녀를 만나 질병과 죽음이 없는 삶 속에서 그들과 살리라는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속 진행했다.

엘렌 화잇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심에 따라 받아들인 역할이 바로 공공 사역이었다. 그녀는 41세에 이렇게 기록했다.

비록 처음에는 연사로 나서기가 쑥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내 앞에 기회가 열리므로 나는 많은 청중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었다. 우리는〔화잇 목사와 화잇 부인〕함께 메인 주에서 다코다 주로, 미시간 주에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로 동분 서주하며 장막 부흥회와 다른 큰 집회에 참석하였다.

화잇 부부는 1877년 봄에 제임스의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와 배틀 크릭 대학과 요양원의 이사회 참석차 배틀 크릭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밤 늦게까지 설교하고 집필하며 일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렸다. 부부는 이후 휴식을 취하러 콜로라도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화잇 부인은 배틀 크릭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있었다.

화잇 부인은 배틀 크릭에 머무는 동안 배틀 크릭 대학 학생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과 일요일 저녁에 집회를 열며 일주일을 보냈다.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화잇 부인의 초청에 기도하러 앞으로 나온 학생들이 많았다. 그 집회와 성령의 역사하심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화잇 부인은 이후에 여성기독교절제연합회와 배틀 크릭 개혁클럽이 주관하는 절제 대중 집회에 참여했다. 그녀는 많은 기획자들의 영적 영향력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바넘의 서커스가 마을에서 열렸는데, 절제 사역자들은 서커스에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술집을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음식 서비스를 야심차게 조직했다. 이 절제 식당은 미시간 합회의 캠프 미팅 천막에 있었다.

화잇 부인은 1877년 7월 1일 일요일 저녁에 대형 천막에서 강연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주제로 5,000명이 넘는 청중에게 강연했다.(동서, 221.)

그 다음 달에 엘렌 화잇은 며느리인 메리 화잇과 함께 인디애나 주 코코모에서 캠프 미팅에 참석했고, 제임스 화잇은 배틀 크릭에 남아서 맡은 일을 처리했다.

화이트 부인은 야영지에 모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과 손님들에게 설교했다. 그녀는 6년 전에 같은 곳에서 대부분 가난하고 무지한 소규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을 때 비해 늘어난 참석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 기뻐했다.

일요일 오후에 열린 절제 집회는 분명 홍보가 잘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유람열차 세대에서 쏟아져 나와 야영지로 갔기 때문이다. 엘렌 화이트는 대규모로 모인 사람들에게 제시한 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곳 백성들은 절제 문제에 대하여 매우 열성적이었다. 오후 두시 반에 내가 약 8천 명의 군중들에게 도덕적 및 그리스도인적 견지에서 절제 문제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나는 축복을 받아 매우 명료하고 유창하게 말하였으며, 거기에 운집한 많은 청중들은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하였다.

우리는 당시의 유명한 연설가들이 따르던 격식을 떠나, 가정과 가족과 어린이들 사이에 편만한 식욕의 방종의 근원을 추적하였다.... 절제개혁의 큰 사업이 완전히 성공하려면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상동, 222-24.

엘렌 화이트는 다음 날 밤 청중들에게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라고 호소했다. 50여 명이 특별 기도 요청을 위해 앞으로 나왔고, 엘렌 화이트와 와고너 목사의 설교로 인해 15명이 침례를 받았다.

화이트 부인은 배틀 크릭으로 돌아와서 치료차 요양원에 들어갔다. 같은 기간 즈음에 화이트 목사가 탈진으로 병이 났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한 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매사추세츠 주 그로브랜드에서 하는 캠프 미팅에 참석하기로 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요일에 배와 기차를 타고 왔다. 엘렌 화이트는 바깥쪽을 뻗뻗이 채운 수천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대형 천막에 꽂 찬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받아들였다. 그녀는 처음에 폐와 목에 통증을 느꼈지만 강연하는 동안 불편과 피로를 잊었다. 그녀는 한 시간 넘게 그리스도인의 절제에 관해 말했다.

어느 날 저녁에 화이트 부인은 특히 죄인들과 타락자들을 향해 언급했고, 아이들로부터 백발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200 명의 청중이 특별 기도를 위해 앞으로 나왔다.

오후에는 개종자 39 명을 위한 침례식을 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침례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녀는 이번이야말로 일부 청중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에 준비하도록 외치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오리건, 콜로라도, 뉴잉글랜드, 중서부 등지로 계속 여행했다.

엘렌 화잇의 설교 준비방법에 관해서는 여행하는 중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주제에 대해 종종 생각하고 기도하는 듯했다. 때로는 주님께서 특정 집단에게 전달할 구체적인 지시를 그녀에게 주셨다.(상동, 111.) 그녀는 주로 청중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즉석으로 강연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즈니스 회의에서 발표할 때는 기록해 두었던 원고를 읽고 난 뒤 즉석에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상동, 422.)

[p.100]

그녀는 한 번에 5,000 명에서 8,000 명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크고 명료하게 낼 수 있었다.(상동, 221-22.) 뉴스보도에 따르면 화잇 부인이 1870 년대에 캠프 미팅 중 강연했던 대규모 청중이 무려 15,000 명에서 20,000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엘렌 굴드(하몬) 화잇,"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백과사전, 1410.) 그녀의 강한 목소리는 증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펼쳐진 들판과 큰 건물을 가로질러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엘렌 화잇은 목회자인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권장했다. 남성 행정자들이 계속 둔감하게 대응하고 묵묵부답일 경우, 그녀는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십일금에서 기금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내비치면서까지 이 사역을 위해 여성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라고 교회의 남성 행정자들에게 권고했다.(엘렌 화잇이 1898 년 4 월 21 일에 어윈, 에반스, 스미스, 존스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부록 A, 7.4 참조.)

화잇 부인은 S. M. I. 헨리 부인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 앞에 수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마다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이스트를 식사에 넣을 수단이 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세요. 남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과시를 넘어서서 제일 단순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과 성화를 이룰 것입니다.

-----엘렌 화잇이 1899 년 3 월 25 일에 S. M. I. 헨리 부인에게 쓴 편지; 리뷰 앤 헤럴드 출판(1899 년 5 월 9 일).

그녀는 2 년 후 리뷰에 실린 기사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남녀를 물론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엘렌 화잇, 리뷰 앤 헤럴드, 1901 년 1 월 15 일).

제임스와 엘렌 화잇은 결혼 35 주년인 1881 년에 배틀 크릭에서 몇 주 동안 여름을 함께 만끽했다. 제임스 화잇은 이전에 병을 앓았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60 세의 삶에 들어섰다. 그런데 제임스 화잇은 아내와 여행 중에 극심한 오한이 났고, 8 월 6 일 안식일에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해서 잊을 수 없는 공동 목회가 막을 내렸다.

화잇 부인은 그해 가을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아들 윌리(W. C. 화잇)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새크라멘토와 그 지역교회들이 주최한 캠프 미팅에서 강연했다. 이듬해에 힐즈버그 대학이 개교하자 그녀는 근처에 집을 구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 주제를 밝혀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분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자세히 쓰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많이 여행하기도 했다. 1883 년 8 월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미시간 주 배틀 크릭의 대형 태버너클 및 미국 동부의 여러 장소에서 설교했다.

엘렌 화잇은 남편이 죽은 후 신임서를 받았고 안수 목사의 급여를 받았다. 교단에 안수 목사를 위한 두 가지 범주, 즉 엘렌 화잇을 위한 범주와 모든 다른 안수 목사를 위한 범주가 있지 않는 한 엘렌 화잇은 안수 목사였다.(연감, 1884 년-1915 년. 부록 A, 7.5 에서 엘렌 화잇의 신임서에 대한 필자의 노트 참조; 부록 B 에서 목회자들의 명단 참조.)

1884 년에 화잇 부인과 아들 W. C. 화잇과 그녀의 비서 사라 맥인터퍼 양은 그 당시 교단의 선교지였던 유럽 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역을 방문하러 갔다. 엘렌 화잇은 런던 지역 신자들에게 바로 강연하고 공관에서 기별을 전했다. 그녀는 유럽에서 2 년의 대부분을 보내며 사역했다. 1885 년 9 월에 스위스에서 개최한 유럽선교사 위원회에서 그녀는 이른 아침 집회 시간에 시리즈로 설교했다. 또한 비즈니스 회의에서 강연했다. 그녀는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의 서적을 계속 판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청년들은 화잇 부인의 책망을 듣고 감동을 받아 다시 한 번 자급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문서전도인들을 위한 훈련학교를 열었다.

화잇 부인은 이탈리아의 발덴시아 계곡에 즐겁게 방문하는 동안 몇 안 되는 신자들에게 설교했다.

1886 년 가을에 영국의 그레이트 그림스비에서 열린 제 4 차 유럽선교사 위원회에서는 유럽에서 재림교회의 신앙을 전파하는 일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화잇 부인은 전진하라고 격려했다. 일부 사역자들은 투지와 믿음으로 응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당 지역 특유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낙관론의 근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화잇 부인은 받은 계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는지 확실하게 들려주었다: 세상은 옅은 안개와 구름과 어둠에 뒤덮여 있는 듯했다. 그때 그녀는 어둠 사이로 희미하게 나타나는 작은 빛줄기를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빛줄기는 점점 더 밝아졌고 이미 있던 빛을 비추면서 더 많은 광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쳤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서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높이 쳐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좀더 높이 드십시오. 다른 등들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큰 빛이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작은 촛불일지라도 그것을 높이 들어서 비추게

하십시오. 그대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엘렌 화잇, 자서전, 295.

그녀는 스칸디나비아를 방문해서 설교하고 절제 강의를 했다. 그녀는 독일의 몇 안 되는 신자들에게 통역사를 통해서 강연했다. 그녀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자아 단련, 겸허한 자세로 함께 상담하는 일의 중요성, 황금률에 따라 사는 일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화잇 부인은 중대한 시기에 유럽에 있는 사역자들을 격려했고, 이 목회는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살아 생전에 유럽에서 교인수가 놀랍도록 증가하고 기독교 서적의 연간 판매율이 크게 느는 상황을 보게 되었다.

[p.102]

화잇 부인은 집필과 더불어 합회들에서 설교하고 교회협의회에서 권고하는 일에 전념하며 미국에서 또 다른 시간을 보냈다. 그때 교회 지도부에서 그녀에게 요청하기로는 이번에 다시 해외인 호주로 가서 그곳의 교육사업 성장을 위해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다. 엘렌 화잇과 아들 W. C. 화잇은 1891년 11월 12일에 그녀의 집필 및 개인 조력자 네 명과 함께 세상을 반 바퀴 도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에 탔다. 이번 여행은 선교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1891년 대총회 회기에서 S. N. 하스켈 목사가 호주에 훈련학교를 설립하여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배출해 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화잇 부인은 호놀룰루에서 잠시 19시간을 머무는 동안 기독교청년회(YMCA) 회관에서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그녀는 1891년 11월 26일에 사모아로 가는 배에서 64번째 생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업에 자신의 삶을 다시 헌신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적도 남쪽에 세울 첫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다. 며칠 후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교회에서 두 번 강연했다.

멜버른에서 출판사의 책임자인 조지 테니 목사는 자신의 새 집에서 나온 후 화이트 부인과 그녀의 조력자들이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학교 설립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에 즉시 착수했다. 엘렌 화이트는 멜버른 교회에서 안식일에 이따금씩 설교했다. 그녀는 때로 부축을 받으며 교회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강연하는 동안 의자에 앉기도 했다.

1892년 8월 24일에 호주의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서 건물을 빌려 성경 훈련학교를 열었다. 처음에는 등록자수가 25명이었지만 6월까지 56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지역에 부지 구입을 권장했고, 쿠란봉에서 1,450 에이커의 부지를 찾았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과 농업 전문가들이 위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화이트 부인은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었다. 1895년에는 그곳에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아본데일 대학,"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백과사전, 91.) 엘렌 화이트는 근처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집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쿠란봉에 있는 아본데일 부지에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를 두고 "양지"라고 불렀다. 그녀는 소유한 66 에이커의 땅 일부를 치우고 과일나무를 심기 위해 쟁기로 갈아달라는 지시를 즉시 내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학교 건축에 쓰기 위해 5,000 달러를 빌리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화이트 부인은 금융 자산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촉진하는 데 쓰일 때만이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관점을 반복해서 밝혔다.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된 한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엘렌 화이트, 자서전, 206.) 그녀는 호주에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기 위해 향후 책 인세를 기부하기로 했다. 그녀는 1896년 10월에 대망의 여 기숙사인 베텔 홀의 기초 시공을 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 학교는 1897년 4월 28일에 두 건물이 부분적으로 완공되고 학생 열 명이 입학한 가운데 개교했다. 그 학교는 믿음의 사역으로 내내 이루어졌다. 학기가 마칠 무렵에는 등록생이 6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엘렌 화잇은 자신의 책 실물교훈의 판매 수익금을 대학 부채 23,000 달러를 줄이는데 쓰도록 허락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채 20,000 달러 이상을 청산했다.

엘렌 화잇은 잠시 동안 "어떤 면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 켈리빌과 프로스펙트와 파라마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겼다." 버트 할로비아, "여성 안수로 가는 길," 18.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책 시대의 소망을 완성하며 개인적인 간증을 내보내고 있었다. 화잇 부인은 목회자로서 호주에 극심한 불경기가 닥쳤을 때 개인과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 힘겨운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에 화잇 부인의 강연을 들은 어느 비 재림교인은 이렇게 외쳤다. "제 생전에 저 여성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진리의 완전한 중심이요 체계로 만듭니다."(엘렌 화잇이 1894 년 10 월 25 일에 J. H. 켈로그에게 쓴 편지; 엘렌 화잇이 1894 년 O. A. 올슨에게 쓴 편지.)

설교하고 지도하며 재정적으로 기부했던 엘렌 화잇은 교육사업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호주에 남기고 1900 년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화잇 부인은 배틀 크릭에서 열린 1901 년 대총회 회기로 돌아오는 동안 미국 남부를 여행했다. 그녀는 그 지역에 학교와 의료 사업을 설립해야 한다면 촉구했고 새로운 남부 출판협회를 준비하기 위해 적합한 서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책의 표지는 화잇 부인이 배틀 크릭 태버너클에서 열린 1901 년 대총회 회기 중에 강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당시에 그녀는 미국 남부 뿐만 아니라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에 훈련센터를 세우는 일을 지지했다.

1903 년 대총회 회기에서 엘렌 화잇은 그곳에 있던 대총회 및 리뷰 앤 헤럴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에 교단의 본부를 배틀 크릭에서 옮기는 건을 찬성하는 쪽으로 설득력 있게 말했다. 이후 그녀는 교회의 본부와 출판사를 위해 워싱턴 D.C. 지역을 주의 깊게 고려해 보라고 권장했다.

엘렌 화잇은 1909 년 대총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직접 강연했다. 그녀는 교회에 대한 책망과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81 세의 나이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세인트 헬레나 근처에 있는 집에서 워싱턴 D.C.의 집회 장소까지

8,000 마일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동안 27 곳에서 72 차례의 강연을 소화했다.(화잇, 자서전, 416.)

화잇 부인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나파 밸리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자택 "엠스헤이븐"으로 돌아와서 지구의 역사 전반에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쟁투 시리즈를 완성하기 위해 집필에 바빠 매진했다. 그녀는 사도행적을 1911년에,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을 1913년에 완성했다.

엘렌 화잇은 생의 마지막 몇 해 동안 쾌활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 그녀는 성경의 한 구절을 묵상하거나 마차를 타고 자연 속에서 여러 명소를 누비는 일을 만끽했다.

[p.104]

그녀는 1915년 2월에 엠스헤이븐 자택에서 쓰러졌다. 이후 검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로 밝혀졌다. 고관절 골절로 낙상한 것인지 낙상해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진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2층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보냈다. 관심을 보이는 청중들과 함께 교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았고, 부활의 때에 그녀의 구세주를 만나기를 고대했다.

엘렌 화잇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글을 쓴 뒤 1915년 7월 16일에 8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의 위대한 모범으로 남아 있다.

[p.105]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십니다.

-----헤티 허드 해스켈, 1884년

8 과거의 다른 여성 목회자들

약력

첫 일곱 장에서 소개한 인물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나오는 여성 목회자들의 명단을 절대로 철저히 다루지 못했다. 이번 장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사례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장은 연대순이 아닌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준을 받은 첫 여성 목회자들 중에 사라 린지(1872년), 엘렌 레인(1878년), 줄리아 오웬(1878년)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1878년에 대총회에서는 교리에 밝고 정통한 사람들에게 목회 신임서를 발급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 여성들 중 두 명은 지역 합회에서 더 빨리 신임서를 받기까지 했다.(버트 할로비악,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여성 안수로 가는 경로: 두 가지 길," 1985년 3월 18일, 미출판 논문에서 발췌.) 그들은 선두에 있었다.

그 외에도 교회의 과거를 풍요롭게 만든 기타 여성 목회자들은 부록 B에 이름만 언급되어 이 책에 등장한다. 추가 연구를 위한 여지가 충분하다.

헤티 허드 (S. N. 부인) 하스켈:1857년-1919년

인준 목사 1901년-1919년

하스켈 부인의 사망 당시에 J. N. 러프버러 목사가 쓴 그녀의 약력은 리뷰 앤 헤럴드에서 거의 세 칼럼을 차지하는데(J. N. 러프버러, "S. N. 하스켈 부인의 약력," 리뷰 앤 헤럴드, 1919년 11월 20일, 대총회 기록보관소에서 버트 할로비악이 제공한 정보와 더불어 이 장에 나오는 자료의 출처.) 이는 하스켈 부인이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는지 알 수 있다. 수년간 그녀와 엘렌 화잇은 둘 다 대총회에서 신임서를 받은 목회자로 연감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엘렌 화잇은 안수 목사(7장과 부록 A, 7.5에 나오는 안수 논의 참조.)로, 하스켈 부인은 인준 목사로나와 있다. 헤티 허드 하스켈은 34년에 걸쳐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헤티 허드는 재림교인이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월급 75 달러를 받는 성공한 지역 학교 교사였다. 눈에 띄게 유능하고 독립적이었던 그녀는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말과 마차를 구입했다.

[p.106]

학교 관계자들은 그녀의 능력에 아주 만족하면서 종신 계약을 제안할 정도였다.

1884 년에 그녀는 언니와 형부인 그레이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재림교회의 캠프 미팅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그저 캠핑을 즐기기 때문이었지 어떤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티는 음악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음악을 들으려고 별관 밖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음악은 물론 예언과 성경의 진리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마침내 어느 목회자가 구원 받은 자들의 미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헤티는 "내가 그곳에 있겠다."며 스스로 결심했다. 허드 양은 성경공부에 등록했고 자신이 들은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고향인 캘리포니아 주 르무어에 있는 재림교회에 다녔다.

캠프 미팅 후 러프버러와 잉스 목사는 르무어에서 집회를 열고 교인들에게 개인 서신과 함께 시조 잡지를 보내라고 초청했다. 헤티 허드는 직접 우편으로 보내려고 정기구독 10 부를 신청했다. 러프버러 목사는 허드 양이 깊이 감동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기되었다가 창백해진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앞에 있던 의자를 짊 잡았다. 그러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간절하게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집회가 끝난 후 초청 설교자들은 그레이 부부와 허드 양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왔다. 식사 전에 헤티는 잉스 형제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금시계줄, 반지 몇 개, 기타 장신구를 손에 쥐어 주었다. 그는 헤티에게 감사인사를 하며 주문한 잡지 값을 지불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합회 선교회를 위한 성금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성경낭독법을 가르치는 훈련 프로그램을 곧 시작할 예정이었다. 허드 양은 이 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봄 학기가 끝날 무렵 그녀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34 년간의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성경낭독을 하고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 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명성을 쌓기도 했다. 그녀는 영국, 아프리카, 호주에서 일꾼들을 훈련시키라는 부름을 받았다.

호주에서 일하던 그녀는 스티븐 N. 하스켈 목사를 만났다. 두 사람은 1897 년에 결혼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목회했는데, 첫 사역지는 아본데일 학교였다.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성경훈련학교 잡지를 발행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꾼을 교육하는 사역을 도왔다.

헤티 허드는 인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기도 했다.

엠마 송거(G. R. 부인) 호킨스: 1870 년-1926 년

인준 목사 1901 년-1911 년

아이오와 주 출신인 엠마 플로렌스 송거는 1893 년에 G. R. 호킨스와 결혼했다. 그들은 아이오와 주에서 함께 전도사역을 하며 여러 교회를 세웠다.

[p.107]

그녀가 아이오와 합회에서 10 년 이상 인준 목사로 섬긴 사실은 호킨스 부인이 혼자 힘으로 교단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엠마 호킨스와 미니 사이프(2 장)는 아이오와 합회에서 동시에 몇 년 동안 안수 목사로 섬겼다.

호킨스 형제는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에 이렇게 썼다. "지난 밤에 호킨스 부인이 강연할 때 그["부자 농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집회가 끝날 즈음에 일어나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말했다."(G. R. 호킨스, "와펠로,"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 1907 년 7 월 30 일.)

호킨스 부부는 함께 성공적인 전도집회를 열었다. 그들이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키오컬 교회는 교인이 두배로 늘었다.("키오컬," 아이오와 사역자 회보(1907년 4월 16일): 163.) 호킨스 씨는 곧 안수를 받았다.

호킨스 부부는 아이오와 주에서 목회한 이후 네브라스카 주, 콜로라도 주, 일리노이 주에서 전도했다. 그들은 일리노이 주 덴빌에 대형 교회를 세웠다. 이후 그들은 조지아 주로 옮겼다.

호킨스 부인이 어머니들을 가르치는 시리즈 뿐만 아니라 캠프 미팅에서 청소년부를 빠르게 준비하던 중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 그녀의 사역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자 그녀의 친구와 가족과 동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엠마 호킨스를 개인적으로 애도했고 교단의 손실을 슬퍼하기도 했다.(부고, 엠마 플로렌스 호킨스, 애드밴트 리뷰 앤 사바스 헤럴드(1926년 9월 16일):22.)

사렘타 아이리쉬(S. M. I. 부인) 헨리: 1839년-1900년

인준 목사 1898년-1899년

어렸을 때 사렘타 아이리쉬는 선구적인 감리교회 목회자이자 다정하고 현명한 아버지와 함께 변경 일리노이 준주를 여행했다. 아버지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앉은 그녀에게 성경을 교과서 삼아 종교든 독서든 수학이든 가르쳤다. 사렘타는 10대 후반에 록 리버 신학대학을 다녔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녀는 22세에 제임스 헨리 부인이 되었다. 8년 후 남편이 죽자 사렘타는 두 살에서 일곱 살 사이의 세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끈끈하게 이 책임을 다했다.

절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은 헨리 부인은 미약하게 시작해서 여성기독교절제연합의 전국적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활동적이던 여성이 질병으로 인해 점차 쇠약해졌고 1895년에는 완전히 병약자가 되어버렸다. 이듬해 그녀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미시간 주의 배틀 크릭 요양원에서 회복했다. 그곳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1896년 말에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그녀는 치유를 경험했다. 이를 계기로 헨리 부인은 여성기독교절제연합의 일을 재개할 수 있었다.

사렘타 헨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내에 여성전도부를 설립했다. 이는 부모를 훈련하고 그들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회 최초의 조직적인 노력이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는 헨리 부인의 설교와 조직 사역을 돕기 위해 1898 년과 1899 년에 목회 신임서를 발급했다.

[p.108]

헨리 부인은 리뷰 앤 헤럴드에 자주 글을 기고했다. 그녀가 저술한 책과 책자의 제목을 보면 임재하시는 성령, 바른 예법과 그리스도인의 예의, 대리석 십자가와 기타 시들, 가정과 자녀 생활에 관한 연구, 응답 받지 못한 기도 등 주제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1900 년에 이렇듯 재능 있고 활동적인 목회자가 죽자 그녀가 여러 방식으로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다. 문상객들이 그녀의 장례식을 위해 배틀 크릭 태버너클을 가득 메웠다.

이후 그녀의 영향력은 그녀가 어머니들을 위해 설립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들이 임명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E. D. 딕 박사가 대총회에서 열린 유니온 대학 동창회에서 1985 년 6 월 30 일에 한 강연에서 발췌; "S. M. I. 헨리 자매," 애드밴트 리뷰 앤 사바스 헤럴드(1900 년 1 월 30 일): 64-69.)

안나 M. 존슨

인준 목사 1881 년-1884 년

A. M. 존슨 부인이라는 인준 목사에 관해서는 기록보관소에 있는 여성 목회자 명단과 그녀의 손녀가 보낸 편지를 통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저의 할머니는 1881 년에 미네소타 합회에서 인준 목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신임서 사본을 동봉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전도 집회를 여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찬양을 이끄시고 기도하시는 등 도움을 주셨지만 설교는 할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지역교회에서 가끔씩 설교를 하셨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매

퀘다 B. 반센 드림

-----퀘다 B. 반센이 오리건 주 그레샴에서

1984 년 8 월 1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

엘렌 S. 에드먼즈(E. B. 부인) 레인

인준 목사 1878-1889

미시간 주 입실란티에 있는 주립 사범학교에 다니던 중 엘렌 S. 에드먼즈와 E. B. 레인은 교제하게 되었고 그 후 결혼했다. 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부부는 베드포드 타운십의 한 농장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평생 살 생각을 했다. 그런데 헌신적인 재림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긴급하게 호소하는 리뷰 앤 헤럴드의 글을 반복해서 읽었다. 레인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작은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고,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 특히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심산이었다. 화이트 부부는 레인 부부의 신념대로 따르라고 조언했다.

[p.109]

레인 부부는 집을 팔고 목회를 시작했다. 레인 씨는 그 즉시 설교 허가서를 받았다.

2 년 후 레인 부부는 인디애나 대회로 옮겼다. 그들의 삶에는 아픔이 있었다. 갓난아기가 죽었고 레인 부인은 심각한 장티푸스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이어갔다. 그들은 여러 주에서 사역한 뒤 미시간으로 돌아왔다.

1878년에 미시간 합회에서 레인 부인에게 목회 신임서를 발급했을 때 그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여성 중 그런 신임서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되었다. 같은 해 10월 7일에 미시간 합회 회의에서는 그녀의 설교 허가서를 갱신했다. 같은 장소에서 대총회 회기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설교 허가서를 발급한 일이 신생 교단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엘렌 레인은 안수 목사의 아내로서 목회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 증거했다.

레인 부인은 혼자서 집회를 연 적도 있었다. 다른 때는 남편을 도왔다. 레인 목사는 오하이오 주 볼링 그린에서 전도 캠페인을 시작하기 직전에 심한 디프테리아 발작을 일으켜 아내를 불러오려고 사람을 보냈다. 레인 부인이 집회를 열었고, 남편은 회복 중에 할 수 있으면 강연했고 아내는 다른 예배에서 설교했다.

레인 씨가 중병에 걸렸을 때 레인 부부는 오하이오 주의 다른 지역에서 각각 전도 시리즈를 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집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아내에게 알릴지 말지 망설였다. 결국 그는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병세가 심각했고 거의 즉시 사망했다.

레인 부인은 동반자의 죽음을 슬퍼한 뒤 자신의 목회 직무를 홀로 계속했다. ("안내문--E. B. 레인 목사," 리뷰 앤 헤럴드(1881년 8월 23일); 버트 할로비악,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여성 안수로 가는 경로: 두 가지 길," 1985년 3월 18일, 미출판 논문에서 발췌.)

사라 A. 할록(존 부인) 린지

인준 1872년

재림교회의 신앙으로 개종한 젊은 사라 할록은 사려 깊은 신학적 질문을 리뷰 잡지에 써서 보냈다. 그녀는 남북전쟁 중이거나 직후에 재림교회의 젊은 평신도 목회자 존 린지와 결혼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단의 지도자들은 평신도 목회자들의 더 폭넓은 참여를 긴급히 요청했다.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사라 린지는 1867년부터 설교를 시작했다. 그녀가 연 첫 집회의 결과로 여섯 명이 침례를 받았다. 1869년 초에는 사라와 존이 함께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1860년대 말에는 재림교회의 조직이 변질과 도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라 린지와 존 린지가 역동적인 부부 설교팀의 형태로 새 힘을 불어넣자 교회 지도부는 용기를 얻었다.

[p.110]

브라이언 스트레이어는 사라 린지의 사역에 관해 쓴 기사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그들은 1월에 뉴욕 주 웰스빌에서 네이션 폴러와 협력하여 세 안식일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집회 시리즈를 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16인치나 쌓인 눈발을 헤치고 플레전트 밸리까지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사라는 시대의 징조, 그리스도의 재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예언에 대해 23번 설교했다. 이 엄청난 대중강연 일정은 엘렌 화잇을 제외하고 그 어떤 재림교회 여성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이었다. 5월에 사라는 웨스트 유니온에서 여섯 차례 강연했다. 이 집회를 리뷰 잡지에 보고한 그녀의 남편 존은 본인의 설교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스트레이어, "사라 A. H. 린지: 서던 티어의 재림교회 설교자," 애드벤티스트 헤리티지(1986년 가을): 16-25.

사라는 남편과 함께 뉴욕 서부와 펜실베이니아를 여행하면서 설교하고 장례식을 집례하며 성경공부를 시키고 가르쳤다.

목회자가 부족한 관계로 린지 부부는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정착지에 구원과 고대하는 예수의 재림을 전하기 위해서 1870년-1871년 겨울 동안 훔날리는 눈 사이로 끈질지게 나아갔다. 다음 여름에 사라와 존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녹스빌, 알바, 아르메니아 산, 로렌스 빌 뿐만 아니라 뉴욕 주의 혼비, 캐틀린, 비버 댐에서도 설교했다.

뉴욕 주 비버 댐의 우체국장 및 다른 많은 사람들이 린지의 설교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리뷰 잡지에 썼다. 1872년 8월에 린지 부부 모두 인준 목사가 됨으로 그들의 사역이 인정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서던 티어"로 알려진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발견한 부흥의 정신을 간증했다.(버트 할로비악,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여성 안수로 가는 경로: 두 가지 길," 리뷰 앤 헤럴드(1878년 11월 14일), 158; 리뷰 앤 헤럴드(1899년 1월 3일).

줄리아(G. K. 부인) 오웬: 1840년-1898년

인준 1878년-1895년

엘렌 레인이 미시간 합회에서 신임서를 받았던 같은 해 1878년에 줄리아 오웬은 켄터키-테네시 합회에서 그와 비슷한 설교 허가서를 받았다. 따라서 대총회의 조치에 따라 교단에서 목회 신임서를 시행한 첫 해에 두 여성 목회자가 신임서를 받았다.

줄리아 오웬은 안수 목사인 G. K. 오웬과 결혼했다. 하지만 교회 지도부는 그녀를 개인으로서 사역의 부름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20년 이상 복음 사역자로 일했으며 1878년부터 1895년까지 목사 신임서를 받았다. 1898년에 사망했다.(할로비악, 5.)

[p.111]

L. 플로라(프랭크 부인) 플러머: 1862년-1945년

인준 목사 1893년

플로라 플러머는 아이오와 주 네바다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젊은 기혼 여성이었는데, 1885년에 A. G. 다니엘스가 개최한 전도집회에 참석했다. 이듬해 영적 투쟁 후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었다. 그녀의 활발한 성격에 걸맞게 그 즉시 교회의 열정적인 일꾼이 되어 서적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아이오와 안식일학교협회의 활발한 회원이었던 플로라 플러머는 1891년에 협회장이 되었다. 4년 후 그녀는 미시간 주 배틀 크릭에서 열린 안식일학교협의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안식일학교 사역은 탄력을 받고 있었고, 플로라 플러머는 이 사역에 대한 열의를 보이며 주도적 입장을 취했다.

플러머 부인은 1897년에 아이오와 합회의 총무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1900년 중 아이오와 합회장이 캘리포니아로 떠날 때 일부 기간 동안 합회장 대행을 맡았다. 그녀는 행정능력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그해 말에 그녀는 미네소타 합회의 안교부장이 되었다.

플로라 플러머는 일반 대표로 1901년 대총회 회기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대총회 안교부가 처음 조직되었고 플로라 플러머는 그 부서의 서신 비서가 되었다.

1905년에 플러머 부인의 부서를 워싱턴 D.C.로 이전했을 때 남편은 부득이하게 그 지역으로 사업을 옮겼다. 프랭크 플러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아니었지만, 이 사려 깊은 남자는 아내의 직업을 따라 함께 옮겼다.

1905년에 플러머 부부는 두 아이를 입양했다. 이제 플로라는 안식일학교 대가족 외에도 자신의 가족을 꾸리게 되었다.

1904년에 안식일학교 사역자 잡지의 편집장이 된 플러머 부인은 1936년에 은퇴할 때까지 몇 달을 제외하고 그 책임을 계속 수행했다.

서신 비서로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결과, 플러머 부인은 1913년에 오늘날 부장에 해당하는 대총회 안교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이 직책을 23년 동안 역임했다.

H. D. 싱글턴 목사는 플로라 플러머에 대해서 "당대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정각에 안식일학교에 데려오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드, 현수막, 리본을 사용했다고 회고했다. 싱글턴 목사는 "그녀가 책임을 맡은 동안에 안식일학교는 활기가 넘쳤다."라고 회상했다.(H. D. 싱글턴 목사가 메릴랜드 주 휘튼에서 1988년 12월 6일에 필자와 한 통화에서 발췌.)

플러머 부인은 안식일학교를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교사 출신으로서 안식일학교 강사 양성을 장려했다.

선교를 위한 안식일학교 헌금은 그녀가 대총회 안교부와 함께 한 첫해에 연간 거의 22,000 달러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연간 2,000,000 달러로 증가했다.

[p.112]

플러머 부인은 광범위하게 저술활동을 했다. 30 년 동안 안식일학교 사역자 잡지에 기고한 사설 외에도 리뷰 앤 헤럴드에 자주 글을 기고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사, 교사의 정신, 영혼을 구원하는 안식일학교, 1904 년부터 1936 년 안식일학교의 역사 등의 책을 저술했다.

그녀는 1936 년에 건강 문제로 은퇴한 후에도 그녀는 계속 활발하게 일했다.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어린이를 위한 캠프 미팅 교과를 집필했으며 사도행전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장년 안식일학교 교과 두 집을 저술했다.

36 년 간의 사역 기간 동안 플러머 부인의 신임서는 대부분 선교사 라이선스였다. 그녀는 1893 년에 아이오와 합회에서 목회 신임서를 발급받았다. 그녀의 부서장 급여는 안수 목사의 급여였다.

플로라 플러머는 1945 년 4 월 8 일에 숨을 거두었다. 대총회 지도자 네 명이 집례한 그녀의 장례식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안교부를 지도하고 발전시킨 그녀의 훌륭한 업적에 높은 찬사를 보냈으며, 이는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영향력을 남겼다. 그녀가 안식일학교에서 이룬 업적은 20 세기의 첫 3 분의 1 동안 교단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리뷰 앤 헤럴드(1945 년 5 월 24 일); R. A. 앤더슨, 콜롬비아 연합회 방문자(1945 년 8 월 9 일): 5, 그리고 H. D. 싱글턴과의 통화.)

우라 조이 스프링: 1873 년-1971 년

인준 1910 년

1873 년에 인디애나에서 태어난 우라 조이 스프링은 젊은 목회자와 결혼하여 서인도 제도에서 함께 봉사했다. 이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스프링 부인은 특히 어린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전문성을

개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통합했다. 그녀는 콜로라도, 아칸소, 네브래스카에서 사역했다.

스프링 부인은 네브래스카 합회의 인준 목사로 1910 년 연감에 기재되어 있다. 그녀는 1971 년 3 월 1 일에 캘리포니아 주 실마에서 난 지진으로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리뷰 앤 헤럴드(1971 년 5 월 6 일): 46; 태평양 연합회 기록관(1971 년 5 월 13 일): 7.)

메이블 엘리스 브릴랜드: 1895 년-1985 년

이 유명한 여성 목회자는 수년 동안 뉴욕 주의 아디론닥 지방 전체에서 목회하며 침례를 제외한 모든 목회 직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설교하고 직원회를 주관했으며 남성 목회자들과 함께 캠프 미팅을 위한 천막 설치를 도왔다.

메이블 엘리스 브릴랜드는 1895 년에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매사추세츠 주 버나드스톤에서 유니테리언교회 목회자인 마가렛 버나드 양을 위해 일했다. 그녀가 맡은 일 중 하나는 버나드 양을 수많은 약속장소에 태워주는 것이었다. 메이블 브릴랜드는 여성 목회자와 일했던 이 초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목회를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받아들였을 지도 모른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었던 메이블은 한동안 버나드스톤에 있는 침례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

[p.113]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현 애틀랜틱 유니온 대학인 랭커스터 주니어 칼리지에서 공부한 뒤 1920 년에 졸업했다. 재학 중이던 메이블과 다른 헌신적인 젊은 여성들은 제 1 차 세계대전 중 클린턴과 랭커스터를 휩쓸었던 끔찍한 독감 유행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24 시간 내내 자원봉사를 했다.

졸업 후 메이블은 보스턴, 피츠필드, 스프링필드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강사로 봉사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평생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1924 년에 뉴욕 북부로 이주하여 1960 년에 은퇴할 때까지 뉴욕 합회에서 일했다. 성경 교육자였던 그녀는 알바니, 로체스터, 버팔로, 엘미라, 코틀랜드, 시러큐스, 워터타운에서 개종자들을 교인으로 준비시켰다.

메이블 블릴랜드는 워터타운에서 일하던 중 그 지방에서 목회해 달라는 합회 행정부의 요청을 받았다. 데이비드 노트는 "메이블의 용기와 체력과 신앙은 항상 강인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뉴욕의 이 대설 지역에서는 그러한 자질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합회에는 다른 여성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메이블은 여러 의미에서 선구자였다."("영면: 메이블 엘리스 브릴랜드," 데이비드 노트, 애틀랜틱 유니온 대학 악센트(여름, 1985 년): 26.)

1951 년에는 사라낙 호수 주변의 추운 노스 애디론덱 지방 목회에 관심을 보이는 남성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합회 지도자들은 메이블에게 그 임무를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기꺼이 수락했다. 충족해야 할 많은 필요와 용감하게 맞서야 할 위험 요소 및 기후로 인해 그녀의 독창성과 헌신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지방에는 66 마일 떨어져 있는 교회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메이블은 기계치였지만 영하 40 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에 고립된 도로에서 바람에 날려 쌓인 깊은 눈더미를 중고차와 타이어 체인으로 버티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때로는 인가나 도둑의 손길에서 수 마일 떨어진 외롭고 눈 덮인 도로를 여행하는 모험을 겪기도 했다. 천사들이 그녀의 여행 동반자였을지도 모른다.

교회 세 곳을 목회하는 일에는 설교를 비롯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빵 바자회를 열고 페인트칠과 수리 작업을 하면서 교인들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 등을 포함했다.

브릴랜드 양은 암으로 건강 문제가 생겨 1960 년에 은퇴할 때까지 이토록 힘들게 기량을 계속 발휘했다. 그 후 그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흙을 일구고 그 흙에서 건강한 식물을 재배해 식량을 마련했다. 그녀의 쾌활한 마음과 건강한 식단 덕분에 몸상태가 극적으로 나아졌다. 그녀는 건강이 회복된 후에 농장에 살면서 25 년의 삶을 누렸다.

은퇴 후에도 메이블 브랜랜드는 교회 사역에 참여했다. 뉴욕 합회가 뉴욕 유니온 스프링스에서 매년 열흘간 개최하는 캠프 미팅에서 그녀는 81 세까지 기쁜 마음으로 숙소를 담당했고 많은 친구와 개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삶에서 사랑과 믿음과 기쁨의 모범을 보여주며 아주 활동적이었던 이 선구적 목회자는 이전 교회 신자들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추억을 남겼다.

[p.114](메사추세츠 주 사우스 랭커스터에서 오틀리 스탠포드 박사와 필자의 인터뷰; 메사추세츠 주 사우스 랭커스터에서 데이비드 W. 노트와 뉴욕 주 맨해셋에서 베티 쿠니가 필자에게 보낸 편지; 데이비드 W. 노트, "영면"에서 발췌.)

[p.115]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르심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었다. 이는 내 삶의 사건과 내 마음의 묵상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었다."

-----페니 셀

9 현역 및 은퇴 여성 목회자들

간략한 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목회하는 여성의 수는 이 책이 처음 출판된 1990 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북미지회 목회부 부부장인 듀안 슈나드는 컨택 잡지 2003 년 6 월-7 월-8 월호에 이렇게 썼다. "현재 북미지회에는 여성 목회자가 425 명 있다. 이 중 237 명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다른 19 명은" 병원, 요양원, 교도소, 말기환자 병원, 산업체 등 "비 재림교회 장소에서 봉사하고 있다."¹

북미지회 소속인 이 여성 사역자들 외에도 전세계 재림교회에는 주님을 섬기는 여성 전도자, 목회자, 행정가들이 있다.²

이 여성 목회자들 개개인의 기록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책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나는 (2003 년 9 월 14-17 일에 코후타 스프링스

회의장에서 열린 북미지회 목회자협회에서 개최한) 제 2 차 재림여성목회자학회에 참석하고 그 당시에 배부한 기재양식을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 장의 자료를 모았다.³

레베카 브릴하트

레베카는 TEAM⁴을 통해 목회하는 여성들과 프로젝트 담당자로 일하면서 차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제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10 년 넘게 저를 준비시키신 일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브릴하트 목사는 1997 년부터 메릴랜드 주 타코마 파크에 있는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제자훈련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전에 베키는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제자훈련 분야에 평신도 사역을 담당했다.

그녀는 침례를 준비시킨 약 15 명의 후보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좌절감은 없었을까? 있었다. "그저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는 일대일 사역에 더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베키는 슬라이고 교인들과 수많은 손님들이 축복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p.116]

브릴하트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서 특히 어떤 점에 보람을 느낄까?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고 목회자로서 살피거나 상담하며 방문하는 일입니다. 새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슬리 헬퍼 범가드너

레슬리 헬퍼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재림교회의 신앙으로 개종했다.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은 그녀는 워싱턴에 있는 왈라왈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종교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목회직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녀는 가정학을 두 번째 전공으로 추가했다.

레슬리는 미국 하원의원 토마스 폴리의 입법부 보좌관 겸 사무장으로 일했고 메릴랜드에 있는 셰이디 그로브 재림병원에서 급식 관리자로 일했다.

레슬리 뱀가드너는 오하이오 주 워딩턴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목회자와 대화하다가 목회를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을 다시 가졌다. 하지만 교회 사무실에 시간제 비서 자리밖에 없어서 그 일을 하기로 했다. 레슬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차기 담임목사와 논의한 뒤 전임 성경 교육자로 채용되었다. 일년 후인 1985년에 레슬리는 세 번째 목회자의 지도하에 워딩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부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레슬리는 1990년에 핵심 그룹과 더불어 오하이오 주 더블린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녀는 1994년에 왈라왈라 대학교회의 목회자로 합류했다. 다섯 명의 목회자 중 한 명인 그녀는 기타 목회적 돌봄 봉사와 더불어 교구 간호사 프로그램과 보건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몇 년 동안 뱀가드너 목사는 교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녀는 목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위해 그녀를 적합하게 만드신 증거를 되풀이해서 보고 있다.

매기 M. 컴튼

매기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릴 때(예닐곱 살 무렵)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1970년대에는 여성이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영적 돌봄을 제공했지만 1990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매기는 1995 년에 오크우드 대학에서 신학 학사학위를,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목회사역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준비했다. 1998 년에는 미시간 주 칼라마주에 있는 브론슨 감리교 병원에서 원목 인턴십을 했고, 이후 1999 년에는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에 있는 세인트 조셉 지역 의료센터에서 원목 레지던트를 마쳤다.

컴튼 원목은 미시간 주 앤아버에 있는 앤아버 보훈청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개신교 원목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는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서 원목 및 말기 암환자 돌봄에 관련한 다른 직책을 맡기도 했다.

매기 컴튼은 여성 목회자에 대한 무례와 무시를 맞닥뜨릴 때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고결한 기회를 주시면서 제 사역을 계속 북돋아 주셨습니다." 컴튼 원목은 병원 사역과 완화치료를 통해 보람을 느낀다.

[p.117]

매기는 1983 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보훈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남성의 침대맡에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에게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받아들였고, 20 분 뒤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인공호흡으로 소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도착해서 그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1990 년에 오크우드 대학에서 목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경험을 잊고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를 오크우드 대학에 데려온 이유다."

린다 팔리

린다 팔리는 현재의 사역을 위해 종교학 학사학위와 전문사역(목회 및 상담) 석사학위를 받으며 준비했다. 케터링 메디컬센터에서 원목으로 일했으며 현재 그곳에서 목회적 돌봄 담당자를 맡고 있다.

그녀는 한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그녀에게 좌절감은 안겨주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 여성 목회자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이다. 팔리 목사는 그런 주장을 들을 때 더는 침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 목회자는 즐겨 방문하고 양육한다. 그녀는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라고 한다.

마를린 메이라 페레라스

마를린 메이라 페레라스는 캘리포니아 주 로마린다에 있는 활기찬 캠퍼스 힐 교회에서 청년 목사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그녀는 2003년 6월에 라 시에라 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성서언어학을 부전공으로 하며 졸업했다. 2003년 7월에 마를린은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의 캠퍼스 힐 교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기쁨을 누렸다. 그녀는 남동부 합회에서 "안수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합회에서는 입증되고 준비된 남녀 후보들에게 안수-위임 신임서를 동일하게 수여한다.(166 페이지 참조)

마를린은 16세에 집사로, 18세에 장로로 안수를 받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은사를 일찍부터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니 제 모든 것을 사로잡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실히 대하셨고 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녀가 제일 좌절감을 느낄 때는 (라틴아메리카계인 그녀가)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싶지만 그 문화 내에서 강한 반발에 맞닥뜨리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내할 힘과 할 말과 치유할 위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 목회자가 제일 만끽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나누는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내면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겸허해지고 신명이 납니다."

[p.118]

복음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도 적었다. "삶은 놀라우며 사역은 그보다 더 좋습니다!"

페레라스 양은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다. 마를린은 시력을 잃어가는 남성을 위해 기름부음 예배를 인도하다가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을 느꼈다."고 말한다. 2 주 후 그 남성은 교회에서 마를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앞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칼라 고버

칼라 고버는 독일을 여행하던 중 마틴 루터의 동상을 보다가 루터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변하는 일에 그녀도 부르시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18 세였다.

그녀는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칼라는 간호사로 일하던 중 어느 순간에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느꼈지만 자원할 기회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클라렌스 쉘트 목사가 칼라에게 전화를 하더니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칼라는 놀라서 물었다. "왜 저인가요? 어느 부서 간호사일 뿐인데요."

"글쎄요," 쉘트 목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제가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칼라는 클라렌스 목사를 대신해서 두 번 설교한 후 친구들의 요청으로 케이 쿠즈마가 강사로 나선 여성 수련회에 참석했다. 수련회가 끝나갈 즈음에 케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강연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와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칼라가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케이에게 다가가자 케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다음 수련회에 당신을 강사로 초대하고 싶어요." "저를 아세요?" 칼라가 물었다. "제 강연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케이는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해 하는 젊은 여성에게 간단히 말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듬해 칼라와 또 다른 젊은 여성은 케이 쿠즈마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 수련회를 진행했다. 칼라 고버는 클라렌스 쉘트와 케이 쿠즈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녀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멘토를 발견했다. 칼라는 자신을 대하는 쿠즈마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아 그 이후로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이 강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칼라는 서던 애드밴티스트 대학교에서 종교학과 간호학 학사학위를,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보건교육과 결혼, 가족, 아동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2004 년 가을에 다시 로마린다 대학교로 돌아와 종교학부에서 가르칠 예정으로 에모리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로마린다 대학교로부터 안식년을 가졌다.

칼라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킨 후보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켄드라 할로비아

메릴랜드에 있는 타코마 아카데미를 졸업한 켄드라 할로비아는 1989 년에 컬럼비아 유니온 대학에서 신학과 영문학을 복수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다.

켄드라는 이후 오하이오에 있는 케터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인턴 목사로 일년을 보냈다.

[p.119]

그녀는 케터링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담당했다. 1990년에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켄드라는 앤드류스에서 재학하는 동안 미시간 주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올 네이션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부목사로 섬겼다.

켄드라는 1991년에 메릴랜드 주 타코마 파크에 있는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목회자로 초빙을 받았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청장년 사역과 예배 기획을 맡았다. 1993년 1월에 컬럼비아 유니온 대학의 종교학과에 합류하여 재림교회의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양과목 학점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켄드라는 교회 사역과 강의실 사역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사에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있는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이러한 관심사를 추구하여 전쟁 중인 세계, 노래하는 국가들: 요한계시록의 찬미에 나오는 대화적 상상력과 도덕적 계시라는 논문을 썼다.

켄드라는 박사학위를 마친 후 2002년에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 있는 라시에라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왔다.

6 대째 재림교인으로 자신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켄드라는 성경의 마지막 초청 속에서 목회에 대한 동기와 희망을 담고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요한계시록 22:17.)

카르멘 이바네즈

카르멘은 "열 다섯 살 즈음에 목회로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르 힐스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 중이다. 이전에 카르멘은 인랜드 스페니시 교회, 리버사이드 스페니시 교회, 로마린다 스페니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다.

카르멘은 최소 여섯 명의 후보자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녀는 일대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청장년 교회와 어린이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낀다.

이바네즈 목사는 일부 히스패닉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지지해주지 않고 폄하할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이바네즈 목사를 돕고 계실까? 그분께서는 우선 그녀를 "백인" 교회로 부르셨다. "제가 목회하던 청장년들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통해서 저를 온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브렌다 존슨

브렌다 로저스는 보스턴 대학교에 다니며 삶에서 평화와 만족 이외에는 "모든 것"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소속의 젊은 여성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기쁜 교제에 대해 전해주었다. 그날 밤 브렌다는 자신의 삶에 구주를 영접하라는 초청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때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적인 목회를 통해 여생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 대학교의 대학생 선교회장이 된 뒤 커피하우스 전도팀에 합류했다. 그녀는 마약과 주술에 빠진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p.120]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한 젊은 신학대학원생에게 간증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유일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청년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녀를 따라서 단순한 죄인의 기도를 기꺼이 반복했다. 3개월 후 그는 브렌다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목회자의 아내가 될 예정이었다! 이는 그녀에게 "부르심"이었다.

브렌다는 1972년에 필립 존슨과 결혼했다. 그녀는 필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가정부로 일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다니지 못했지만 필은 배운 내용을 그녀에게 전했다. 그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할 교단을 선택해야 했을 때 그들은 곤경에 처했다. 침례교인들은 존슨 부부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회 교인들도 부부가 방언을 하긴 했지만 모든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방언이 원칙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국내 선교사가 되어 아름다운 메인 주에서 자신들만의 카리스마파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메인 주에 온지 불과 몇 주 만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정통한 교리를 달라며 간구하게 되었다. 바로 그날 필은 생전 처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을 만났다. 그와 브렌다의 입장에서 제칠일 안식일은 완전히 납득이 갔고, 넷째 계명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죽음, 지옥, 건강, 재림에 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도 납득이 갔다. 그들은 1974년 가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었다. 그들은 재림교회에서 목회할 자격을 고려하기 전에 "진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존슨 부부는 삼 년 동안 적응한 후 어린 아들 두 명을 데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학대학원으로 향했다. 재정적 후원은 없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영적으로 자극을 받았던 6개월 만에 노스다코타에서 목회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필과 브렌다는 모두 목회를 사랑했고 두 교회가 있는 지역에 온 힘을 쏟았다. 4년 후 필은 안수를 받았다. 브렌다는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 필과 함께 사역하며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일은 제일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이 안수를 받은 후 부부는 뉴햄프셔 주 웨스트 레바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브렌다는 취업에 대해 고민할 때였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목회였다. "이 일이 부르심이며 다른 일을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녀가 자녀교육에 보탬 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애틀랜틱 유니온 대학에서 성인학위과정을 통해 신학 전공 학사학위를 마치기로 결심했다. 애틀랜틱 유니온 대학에서 개인 사역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곧바로 급여를 받는 성경 교육자로 채용되었다. 1990 년에 부부가 뉴욕 시로 옮겼을 때 브렌다는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총회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급여의 절반을 받고 목회자의 급여 전액을 받는 조건으로 합회에 발탁되었다.

[p.121]

그들은 2 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며 50 명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브렌다와 함께 공부했다.

1990 년 대총회 회기에서 브렌다는 여성 안구에 대한 토론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 여성 안수는 브렌다가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다. 하지만 투표가 시작되자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사실, 즉 안수를 받고 싶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교회가 발표했음을 깨닫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결심했다. 1995 년 대총회 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인해 모든 것이 기억났고, "저는 그제서야 제 부르심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슨 부부는 뉴욕 주 리빙스턴으로 이사했고, 브렌다는 그곳에서 시간제 원목 및 시간제 성경 교육자로 일했다. 그녀는 대뉴욕 합회에서 여성선교부장으로 섬겼다. 그녀는 전임 원목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편은 그녀에게 두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한 달에 두 번 설교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런 일정을 10 년 동안 계속 소화했다.

브렌다는 임상목회교육 레지던트를 마쳤고 북침례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

현재 브렌다는 여전히 한 달에 두 번 설교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말기 암환자 원목과 더불어 남편과 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존슨 부부가 목회하는 교회는 일리노이 주 글렌 엘린과 노스브룩이다.

브렌다는 2005 년 봄에 임상목회교육 위원회의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필은 그녀가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한다.

에스더 램하락싱 노트

에스더는 세 살 때 예수를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교 1 학년생이 된 후 처음으로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에스더는 감격했다. 대학에 들어가 세 번째 여름에 전도팀과 일했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모습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녀의 간증 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에스더가 신학 전공인 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목회로의 부르심에 맞서 싸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4 학년 때 결국 전공을 종교학으로 바꿨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에스더는 종교학 전공에 체육과 보건학 부전공을 추가하여 성경공부와 침례로 이어지는 목회에 이 부가적 훈련을 사용했다.

에스더는 1980 년에서 1983 년에 브로드뷰 아카데미에서 교목으로, 1985 년에서 1987 년에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부교목으로 섬겼다. 그녀는 북미지회 교육부에서 일했고 성경 캠프와 리더십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텍사스에 있는 벨리 그란데 아카데미에서 기도주일을 주관했다.

[p.122]

에스더 램하락싱은 1990 년에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목회자로 합류했다. 론 노트와 결혼한 후에도 목회 경력을 쌓아갔다. 1997 년에 앤드류스 대학교 교내에 있는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로 옮겨 목회 돌봄과 훈련, 소그룹, 제자훈련을 담당했다.

1996년에 에스더는 컬럼비아 연합회 뿐만 아니라 포토맥 합회에서 안수 승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포토맥 합회에서 열린 연례 안수예배 중에 에스더는 모든 상황이 다른 남성 동료들과 똑같았지만 "다른 증서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말에 따르면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승인할 경우 그녀는 또 다른 안수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와니타 크레치마

와니타는 수년간 많은 자원봉사자와 자발적인 헌금을 모은 믿음의 사역인 뉴욕 시 승합차 사역을 이끌었다. 와니타는 대뉴욕 합회의 보건질제부, 지역사회봉사부, 도시선교부 부장이었다. 그녀는 지역교회와 캠프 미팅 및 수련회에서 설교했다. 와니타는 남편인 멀린 크레치마(대뉴욕 합회장)와 함께 기도 수련회를 이끌었다.

은퇴 후 멀린과 와니타는 플로리다 키스로 이주하여키 인카운터 자연극장 및 천체 투영관이라는 독특한 사역을 설립했다. 현지 방문객 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성경공부를 포함하여 대처할 수 있는 힘 책자와 필요에 따라 기타 서적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방문하고 기도할 수 있다.

태미 로시

태미가 18 세에 느낀 목회로의 부르심은 "제가 섬긴 사람들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미는 라 시에라 대학교에서 신학 학사학위를 받고 난 즉시 쌍둥이를 낳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 함께 집에 머물렀다. 그런 다음 자신의 교육 및 직업적 목표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목회사역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목회학 석사과정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다.

태미 로시는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마운틴 뷰 교회의 행정 목사이다. 이전에는 성경 교육자, 교회성장 및 전도 목사, 청년 목사, 부목사의 직책을 맡았다. 그녀는 준비시킨 30 여 명의 후보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특권을 누렸다.

곤란한 경우의 원인에 대해 묻자 "저는 여성 목회자로서 좌절할 때가 많았지만 전임으로 목회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에 비하면 모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에 관련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p.123]

태미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즐겨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데서도 만족감을 느낀다. 그녀는 감정이 상하고 영적, 신체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다.

로시 목사는 남녀 목회자가 나란히 성직자로 봉사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 희생한 여성과 남성의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비어트리스 쇼트 닐

비어트리스 닐은 조정된 신학을 전공했지만 목회자와 결혼하는 길 외에는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목회자 남편과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봉사했다. 비어트리스는 간호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베트남에서 목회자 훈련을 실시했으며 1971년부터 1974년까지 동남아시아 유니온 대학에서 성경교사로 일했다. 휴가 중에는 많은 신학대학원 과목에 등록할 기회를 가지며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종교교육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닐 박사의 저서 왕자와 반란군은 대쟁투 이야기를 다루면서 캄보디아 내 투쟁을 암시하고 있으며 12 개국어로 번역되어 약 50,000 부가 캄보디아 난민수용소에 배포되었다.

닐 박사는 1977년에 네브라스카 주 링컨에 있는 유니온 대학에서 신학과 성서언어학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03년에 재림여성협회에서 영적 리더십 상을 수상하며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크리스 오버그

오버그 목사는 2005년 4월에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의 칼리메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수락했다. 그 교회의 교인수는 1,200명이다. 그녀는 라 시에라 대학교회에서 4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다.

노마 키오 오스본

교회학교 교사이자 어머니인 노마 오스본은 이전에 교육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어린이 사역 부목사로 초청을 받았다. 오스본 목사는 1989년부터 딸을 포함해 자신이 준비시킨 후보자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메릴랜드 주 타코마 파크에 있는 교인 3,000명 규모의 슬라이고 교회에서 노마는 자신의 목회를 만기하며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때때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더 많아져서 기쁨과 환멸을 느낄 때 이해해 주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특히 주효할 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노마가 그 소망을 표현하고 이 책이 처음 출간된 후 5년 동안 더 많은 여성들이 재림교회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 기쁘다.

노마는 뉴저지 주 호보켄에서 교회 개척을 도운 후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커뮤니티 프레이즈 센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이 역동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에서 "헨리 라이트의 놀라운 설교와 활기찬 음악"을 만끽했다.

[p.124]

오스본 부부는 2001년에 퍼시픽 유니온 대학으로 옮겼고, 남편이 대학의 학장이 되면서 오스본 목사는 대학교회에서 가정사역 목사로 직무를 맡게 되었다.

노마는 자신의 직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온 마음 다해 믿으며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를 향한 그분이 뜻이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헤더 리폴리

헤더는 목회로의 부르심에 맞서 싸우다가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분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렇게 인정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는 설교에도 열정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그녀는 사우스웨스턴 어드벤처스트 대학교에서 신학 학사학위와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책으로 배운 지식"과 함께 학생 시절 목회 경험과 텍사스 합회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 준비했다. 그녀는 현재 조지 폭스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영성 형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헤더는 또한 목회자 부모로부터 많이 배웠다.(이 장에서 린 리폴리 참조.)

헤더는 현재 텍사스 주 브라운우드와 콜먼 카운티에 있는 두 교회 구역의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다. 지도책을 보면 콜먼 카운티는 적정 인구 9,710 명이 거주하며 텍사스의 넓은 땅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헤더가 "소 목사"라는 별명을 얻은 일의 배경이 된 농장과 목장 자치군이다. 그녀가 성경공부를 가르치던 여성은 거위와 칠면조를 십일금으로 기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그녀는 헤더에게 "나의 십일금 소"를 보여주었다.

리폴리 양은 "모든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설정하도록 그녀를 도와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

이 젊은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보람을 느낄까? 설교, 방문, 청장년 예배, 세속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전도, 어린이 교회, 동시대 전도 등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서 영성을 실제로 느끼게 해줄 때이다. 그녀는 약 열 명의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는 특권을 누렸다.

린 리폴리

린 리폴리는 세인트폴 제일교회의 부목사이며 미네소타 합회의 여성선교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남편인 데이비드는 합회의 목회부장이다.

린은 사우스웨스턴 어드벤처스트 대학교에서 신학과 성서언어학 학사학위를,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목회사역 석사학위를 받았다. 린은 한때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목사로 섬긴 적이 있으며,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텍사스 합회에서는 그녀를 노스웨스트 휴스턴 교회의 부목사로 고용했다.

[p.125]

리폴리 부부는 이전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합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으며, 데이비드가 목회부장으로 섬기는 동안 린은 유치원에서 10 학년 대상의 교목과 여성선교부장을 역임했다.

리폴리 부인은 약 15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거룩한 예식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녀는 여성, 가족, 청소년을 활발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멘토 역할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

산드라 로버츠

산드라 로버츠는 학생 시절부터 청소년 및 여름 캠프 사역에서 수년간 목회했다. 그녀는 5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로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공동 목사 겸 부목사로 사역했다. 2000 년에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의 청소년부 부부장이 되었다.

로버츠 양은 2004 년 11 월 7 일에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의 총무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태평양 연합회 소속 합회들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첫 여성이다.

미리암 살세도-곤살레스

미리암은 "진정한 소명과 부르심에 완전히 되돌아오기까지 대체로 22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화이트 메모리얼 교회의 부목사이다. 2000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양육 및 전도 담당 목사로 일하고 있다.

미리암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을까? 그녀가 여덟 살 때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녀는 방문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아버지의 설교를 보고 들으며 자신도 같은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부모 외에 영감을 준 또 다른 롤모델은 아무 직함 없이도 목회자로 섬겼던 성경 교육자 아나 로사 알바라도였다.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확신한 미리암은 1985년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안틸리안 대학에서 신학 학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학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이후 앤드류스 대학교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제공하는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988년에 종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상담과 학교 리더십 및 행정 석사학위도 가지고 있다.

살세도-곤살레스 목사는 전도,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모두에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열정으로 꼽았다. 그녀는 설교, 성경공부, 필요 중심 세미나와 서번트 전도와 소셜스 투 세이브와 같은 전도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일을 즐겨 한다. 또한 교인들을 방문할 때 보람을 느낀다. 미리암은 여성 수련회에서 강연하는 일을 만끽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미리암은 15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두안 슈나드

1995년 대총회 회기 후 북미지회장 A. C. 맥클루어는 여성 목회자에 관한 북미지회장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북미지회 총무부장인 해롤드 밥티스트가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1997년 북미지회 연말 총회에 포괄적인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는 북미지회 목회자협회에 여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p.126]

두안 슈나드는 북미지회 목회자협회의 부부장 세 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두안은 1998 년 8 월부터 테네시에 있는 칼리지데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영적 양육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 전에는 플로리다 합회에서 목회했으며 플로리다 병원에서 7 년 간 원목으로 봉사했다. 애틀랜틱 유니온 대학에서 신학 학사학위와 정신건강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슈나드 목사에게는 장성하여 결혼한 아들과 딸이 있다.

슈나드 목사는 세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성 목회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두 차례의 전국적 회의를 조직했으며, 현재는 2005 년 대총회 회기에서 북미지회 여성 목회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진 셸던

진 셸던은 퍼시픽 유니온 대학 2 학년생이었을 때 기숙사 방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학자로 부르셨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회상한다. 그녀는 이렇게 적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 모두가 그 일을 위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비슷한 방식으로 제게 기름을 부으시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2 년에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종교학 학사, 1984 년에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성서학), 2002 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와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동으로 발급한 근동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셸던 박사는 현재 퍼시픽 유니온 대학교에서 종교학과 부교수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조언해주며 일반 및 학구적 독자를 위해 글을 쓰고 세미나와 설교를 하며 매주 안교반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 그룹을 이끄는 일을 즐겨 했다.

그녀는 1984 년부터 1987 년까지 홍콩삼육대학에서 종교학 강사로 일했다.

페니 셀

페니는 배틀 크릭 요양원의 여성 원목인 발레리 필립스와 연락하면서 여성이 원목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녀와 발레리가 비슷한 은사를 받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페니는 1년 만에 암으로 사망한 부모를 돌보던 중 목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었다.

페니는 준비의 일환으로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와 종교교육학 교육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채플린 칼리지에서 연구비를 받는 대학원생으로 자격증을 교부 받았다.

페니는 시카고에 있는 토렉 병원 및 의료센터의 초대 원목이자 목회 돌봄 책임자였다. 그녀는 메릴랜드에 있는 세이디 그로브 재림병원 원목으로 자리를 옮겨 목회 돌봄 책임자가 되었고 대형 부서와 함께 일했다. 페니는 병상 돌봄 외에도 장례식과 결혼식을 집례했다. 그녀는 목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래, 나는 목회자다."라고 믿게 되었다.

세이디 그로브에서 11년간 목회한 페니는 1999년에 라 시에라의 여성자원센터로 자리를 옮겨 부소장으로 일했고, 2002년에는 소장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라 시에라 대학교회의 방문 목사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하고 있다.

[p.127]

헤더-던 스몰

헤더-던 스몰은 2001년부터 대총회 여성선교부에서 일했으며, 부부장으로서는 교회의 여러 세계 지회들을 여행했다. 현재 그녀는 2005년 대총회 회기에서 부장을 선출할 때까지 여성선교부 부장 대행을 맡고 있다. 그녀의 사역 중에 여성을 위한 리더십 훈련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인 헤더-던은 카리브 연합회의 여성 및 어린이부 부장으로 5년 동안 봉사했다.

아르디스 스텐바켈

아르디스 스텐바켈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총회의 여성선교부장으로 말 그대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성들도 전세계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행정 능력을 주셨다! 2003년에는 스텐바켈 목사의 지도력 아래 여성선교부에서 100,385 회의 전도집회를 열었고 여성들의 목회로 인해 96,288 명이 침례를 받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스텐바켈 목사는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서 목회하는 여성들이 고립과 배척으로 인해 가슴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요청했다.

스텐바켈이 여성선교부 부장으로 은퇴하면서 남편인 딕 스텐바켈은 재림채플린사역의 책임자에서 은퇴한다. 부부가 사랑하는 콜로라도로 돌아가 목회를 계속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캐롤린 J. H. 스트라이시코프스키

캐롤린은 열 살배기 가톨릭 신자였을 때 처음으로 부르심을 경험했다. "저는 고요하고 텅 빈 교회에서 커튼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았던 것처럼 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실현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캐롤린은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13 마일 떨어진 미시간 주 세인트 조셉에서 자랐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베리언 스프링스에서 재림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 성령께서는 청년들이 인도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의 드와이트 넬슨 목사와 그의 아내 카렌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양육하고 그녀의 많은 질문에 답해 주었다. 이전에 가톨릭 교회의 열혈 신자였던 그녀는 1990년 부활절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었다. 그 후 아버지는 9개월 동안 그녀와 말하지 않았다.

캐롤린은 자원봉사, 목회사역 석사, 임상목회교육 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녀는 미시간 주 세인트 조셉의레이크 랜드에서 자신이 시작한 프로그램인 목회 돌봄 책임자, 올랜도 플로리다 병원에서 원목, 인디애나 주 미샤와카에서 당직 원목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시카고 지역의 애드벤처스트 헬스 미드웨스트에서 원목으로 일하고 있다. 캐롤린은 정신과 병동, 조산아 산모들을 위한 산부인과 병동,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영적 성장 그룹을 매주 기꺼이 인도한다.

[p.128]

그녀는 규모가 큰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에서 수석장로로 섬겼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지된 듯한 경험은 캐롤린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곳이다. 그녀는 삶의 비극인 "슬픔, 상실, 질병을 사람들과 헤쳐 나가는" 일을 사랑한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준다.

타라 빈야드 빈크로스

타라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청년 및 청장년 여름 사역에 부담당자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전임 목회로 부르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 평화, 사랑, 온전함을 나누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을 영혼 속에 느꼈습니다. 제 힘으로는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멘토들과 지도자들은 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타라는 2002 년에 사우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워싱턴 합회의 청년 및 청장년부 부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창의력을 활용해 청년이 청년에게 전도하는 성공적인 교리 시리즈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타라는 자신의 첫 번째 온전한 전도회 시리즈용 설교를 준비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시킨 여덟 명에게 침례를 주는 축복을 받았다.

워싱턴 합회는 2005 년에 빈크로스 양의 신학대학원 교육을 후원할 계획이다.

타라는 목회에서 예수를 위해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언을 받으며 전세계와 현장에 퍼져 있는 우리 대학과 신학대학원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대표한다.

키트 와츠

키트 와츠는 1973 년에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출판 목사로 합류하면서 목회에 발을 디뎠다. 그녀는 자신의 은사가 그 직책에 잘 맞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개척을 하다 보니 여성들을 위한 자리를 지키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목회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슬라이고를 떠났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비슷한 직책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키트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8 년간 연속간행물 사서로 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종교학 석사학위를 위해 교육적으로 준비했다.

키트는 1987 년에 애드벤처스트 리뷰의 부편집장으로 갔다. 그녀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확신이 세상에 더 잘 들리도록 돕고 싶은 의미에서" 부르심을 느꼈다. "제가 스스로 발견한 은사는 글쓰기, 강연, 프로그래밍과 구조로도 나타나는 언어였습니다."

키트는 10 년 동안 리뷰에서 일한 후 라 시에라 대학교에 위치한 여성자원센터의 담당자로 절반을 일하고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의 대내홍보부 부장으로 절반을 일하기 위해 떠났다. 2002 년에는 합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대내홍보부 합회장 보좌로 일했다. 그녀는 여성자원센터의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p.129]

키트는 1973 년, 1985 년, 1988 년, 1989 년에 여성 안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치된 모든 공식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유일한

여성이다. 그녀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다른 여성들의 은사가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젠 화잇

젠 화잇은 조지아에 있는 칼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양육 및 전도 담당 부목사이다. 그녀는 2003 년에 조지아-컴벌랜드 합회에서 여성 최초로 위임 목사가 되었다. 남편인 필 화잇은 칼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있다.

화잇 목사는 이전에 워싱턴 합회의 여성선교부 부장과 가정사역부 부장을 역임했고, 노스 캐스케이드와 오번 애드벤처스드 아카데미 교회의 부목사로 일했다.

젠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하며 "대학을 졸업한 후 가르칠 때 처음으로 침례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는 특권을 누렸습니다."라고 했다.

젠은 알라발라 대학에서 종교학 학사와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젠 화잇 목사는 활동적인 교인들과 소극적인 교인들을 모두 방문하고 소그룹 성경공부를 이끌며 설교하고 기도모임을 갖는 등 목회의 다양한 면을 만끽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전도부 팀과 함께 필리핀에서 전도회 시리즈를 개최하는 등 전세계에서 예수를 전했다. 400 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젠은 현지인들이 전도회 시리즈를 위한 준비 작업을 대부분 했다면서 그들에게 겸손히 공을 돌린다.

미국에서 젠의 영향력은 여성 수련회의 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화잇 목사는 20 명 이상의 후보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하이베스 윌리엄스

하이베스 윌리엄스는 1996 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로마린다에 있는 로마린다 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부목사 다섯 명이 그녀와 함께 포괄적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윌리엄스 양은 이전에 보스턴 템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목회했다. 이는 쉽지 않은 임무였다. 역사적인 건물이 너무 낡은 관계로 합회에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다. 참석자는 50 명 정도로 줄었다. 18 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던 상황에서 하이베스는 간절히 기도한 후 1989 년에 쇠락해가는 교회를 섬기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윌리엄스 목사는 특유의 에너지로 사역을 시작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지역 내 대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했다. 하이베스는 예수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영감을 불어넣었다. 교인들과 친구들은 헌금하고 고장난 의자와 새는 지붕을 수리했으며 낡은 카펫을 교체하고 벽을 페인트칠했다.

[p.130]

애드벤처스트 리뷰 편집장인 윌리엄 G. 존슨 목사는 재헌당예배에서 설교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감사, 기쁨, 경이로움, 기적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다고 썼다.⁵

하이베스의 자서전 내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⁶에서는 개종하기 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썼는데, 많은 개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녀는 1979 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이베스는 컬럼비아 유니온 대학에서 (아들 스티븐은 타코마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학생 목회 인턴으로 섬겼고 1985 년에 컬럼비아 유니온 대학을 졸업했다.

하이베스는 1985 년 가을에 미시간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한 여성 일곱 명과 남성 450 명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합회의 후원 없이 신학대학원에 조건부로 입학했다. 그녀는 목회로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이베스는 메릴랜드 주 타코마 파크에 있는 대규모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전도 담당자로 섬기며 신학대학원도 번갈아 다니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슬라이고에서 보스턴 템플과 캠퍼스 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하이베스의 또 다른 저서 행복한 마음의 비밀: 산상수훈에 대한 새로운 시각⁷이 출간되었다.

¹ 분포도는 목회자 73 명, 성경 강사 47 명, 의료기관 원목 43 명, 부목사로 섬기는 목회자 사모 2 명, 대학원생 39 명, 성경교사 26 명, 신학교 교수, 교내 교목 등이다.

² 전세계에 퍼져 있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총회 여성전도부에서 발간하는 모자이크 사본을 참조하라.

³ 기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여성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연감에서 알아볼 수 있다.

⁴ 재림교회의 사역에서 평등을 위한 때(Team).

⁵ 윌리엄 G. 존슨, "성장을 위한 탄생," 애드벤처스트 리뷰 (1990 년 3 월 22 일): 4.

⁶ 하이베스 윌리엄스, 내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 (메릴랜드 주 헤이거즈타운: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 1996 년).

⁷ 하이베스 윌리엄스, 행복한 마음의 비밀: 산상수훈에 대한 새로운 시각 (메릴랜드 주 헤이거즈타운: 리뷰 앤 헤럴드 출판협회, 2004 년).

[p.131]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금하리요." -----사도행전 10:47

10 "누가 능히 ... 금하리요.":

성서적 비유

나는 작가의 목소리로 이야기한 뒤에 이 마지막 장과 결론에서는 "설교자"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10 장과 11 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함께 되새겨보고 현재 상황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나는 1973 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초기교회사의 이 부분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

가이사랴에 있는 어느 집 지붕에서 점심식사를 기다리던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졌다. 그는 하늘에서 큰 돛천이 네 모퉁이를 맨 채 드리워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 안에는 성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명시한 짐승과 파충류와 새가 있었다. 동시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들렸다.(사도행전 10:13.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성경 인용문은 별도의 출처가 없는 한 개정표준역(RSV)에 나오는 사도행전 10 장과 11 장에서 인용했다. 번역자 주: 이 책의 모든 성경 인용문 번역은 개역개정판에서 인용했다.)

베드로는 항변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대답이 바로 돌아왔다. 그 대화를 세 번 반복한 후 동물을 실은 돛천이 하늘로 올라갔다.

베드로가 황홀경의 의미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동안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백부장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가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베드로에게 보장했다. 황홀경을 통해 받은 기별이 혼치 않은 이 초청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의 집으로 갔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가 부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처럼 어울리는 일에 대한 반대가 거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를 위법이라고 여겼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을 때 교회 지도자들과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고, 이런 이유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언해 줄 동료들을 데려왔다.

동료들의 증언과 함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판과 죄사함에 대해 설교하던 중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성령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의 말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있었다.

[p.132]

베드로와 동료들은 잠시 함께 의논했다. 그들은 방언하며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 개종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금하리요."(사도행전 10:47) 베드로와 동료들은 개종자들을 믿음 안에 세운 후 성령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곧 베드로는 사도들의 심문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왜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법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어 했다.

교회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방인 개종자들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우리과 같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침례 받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증거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반대를 멈췄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원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정책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1970 년대에 부목사의 직무를 맡았던 나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목회에 부르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의 이러한 행동이 곧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더 이상 위업으로 여기지

않았듯이 그 시점에는 교회가 여성 목회자의 안수를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생각을 분명히 멈출 것이다.(실제로 여성 목회자의 안수를 찬성하는 결의는 일찍이 1881년에 이루어졌다. 부록 C, 235 페이지 참조.)

그러나 연례협의회와 대총회 회기가 몇 년 동안 번갈아 열리면서 "추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여성 목회자들과 나는 당황스러웠다. 우리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향한 조치를 보지 못한 채 오래 동안 목회한 모습을 본 나는 그 성경적 모범에서 비롯된 희망이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처음에 생각했다.

그 비유가 맞기는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교단은 지리적으로나 수적으로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의 목회에 대한 진전은 전세계적인 범위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러한 많은 경우에 지도부는 여성들을 목회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목회하고 있는 포토맥 합회와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는 공식적으로 여성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오하이오 합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89년에 연합회 두 곳(5월 4일에 콜롬비아 연합회 집행위원회와 6월 7일에 태평양 연합회)에서 자격을 갖춘 여성들의 안수를 승인하는 결의를 일반 또는 특별로 표결에 부쳤다. 이 교회 단체들은 1990년 7월 대총회 회기 이후로 안수를 연기하기는 데 합의했다.(1990년 대총회 회기에서 취한 관련 결의에 대해서는 부록 C 참조.)

[p.133]

성서적 비유는 여성이 목회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수용을 인정하는 일이 교회 지도부의 수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부합한다.

교단이 여성 목회자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은 전도, 목회, 상담, 성경교육 사역의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젊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과 같이 성령을 받"은 이 여성들을 목회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누가 능히 ... 금"하겠느냐고 질문할 그날이 오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

[p.134]

blank page

[p.13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닫는 글

미래의 정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현재를 굳건히 붙들려고 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몸 중에 최소한 목회하는 여성들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인 합회와 지역교회 단위에서 인정한 현상, 즉 목회로의 부르심을 경험한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 다양한 여성 목회자들 상황에는 표면적인 차이가 있었다: 미니 사이프 전도자는 40년이 넘는 목회 기간 동안 가난과 자주 싸웠고, 제시 와이즈 커티스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교인들에게 편안하게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여성 모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꼈다는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다른 많은 여성들도 비슷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책의 각 장에 몇몇 여성들의 목회를 언급했다.

개별 사례를 연구한 결과 수년 동안 여성의 신임서 발급은 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 기간 동안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급여는 인식된 "필요" 또는 결혼 상태에 따라 수도꼭지를 끄거나 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단이 성숙해짐에 따라 여성 목회자에 대한 처우는 크게 개선되었다. 여성 목회자, 전도자, 사목, 성경교사들은 이제 미혼, 기혼, 사별,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 급여를 지급받는다. 1989년에 열린 연례회의에서 190대 46의 찬성으로 승인되어 즉시 발효된 결의에 따라 여성 목회자도 남성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비 안수 목사의 결혼 집례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침례를 베풀고 결혼을 집례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카를로스 메들리, "여성들의 역할, 스포츠 탑 연례회의 토론, 애드벤처리스트 리뷰(1989년 11월 9일): 6에서 발췌.) 이는 놀라운 진전이다.

그러나 한 가지 측면에서 여성 목회자들의 지위는 악화되었다. 안수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더 이상 신임서를 받지 못한다.(1970년대 미국 국세청의 요구 사항 때문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인준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 침례를 포함하고 안수를 향한 확실한 단계가 되도록 재정의했다.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 목회자가 그렇게 지명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목회 신임서를 받은 여성은 거의 없다.(이전에는 많았다; 부록 B 참조.)

[p.136]

남성들이 아주 바람직한 목회직 수당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인준 목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이 얻을 수 있었던 목회의 최고 지위를 빼앗는 선택을 한 점은 유감스러운 듯하다. 100년 전 교단이 목사 신임서를 부여하기 시작한 이래(8장 참조) 여성들이 목사 신임서를 받을 수 있었다. 미니 사이프는 안수 목사가 여덟 명에 불과했던 합회에서 이준 목사 18명 중 한 명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오늘날 목회 및 전도사역에서 남성 목회자들과 구분되는 불특정 부류인 신임서 혹은 라이선스를 가진 위임 목사로 분류되는 여성 목회자보다 목회의 주류에서 더 중심적으로 활동했다.

오늘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여성으로서 동시에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은 보람과 좌절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과 협력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보람된 일이다. 목회자와 하나님, 섬기는 교인들, 동료와 상사 사이의 유대감이 강화된다. 일부 교회 행정가, 목회자, 신학대학원생, 교인들이 여성 목회자들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인해 좌절감이 생기고 있다.

잠시 여성 목회자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디모데후서 1 장 6 장과 7 절의 기별은 남성 목회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 하기 위하여."(디모데후서 1:6.) 디모데는 권면을 받았다. 여성 목회자 여러분, 지역교회 목회자에게만 안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살아있는 불꽃을 일으키시기에 충분하다.

인간적으로 미래가 암울하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는 7 절의 영광스러운 확신을 읽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제임스왕 역에서 "건전한 생각"으로 나타나는 헬라어 $\sigma \omega \varphi ρ ο ν ι σ μ ός$ 는 개정표준역에서는 "자제력"으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절제" 뿐만 아니라 "냉철한 선의"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불확실한 직업적 미래에 직면한 여성 목회자를 나타내는 세 가지 특성이다.(이는 남성 목회자에게도 분명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함과 대조되는 담대함, 삶과 섬김의 강인함, 하나님의 주요 특성인 사랑, 필요할 때 "굳센 사랑"을 포함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 절제와 자제력을 특징으로 하는 건전한 생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프레드 게일리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는 담대함과 용기, 자신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 필요하지만 능력의 행사는 사랑과 자제력이 완전히 결합될 때만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한다.(프레드 E. 게일리, "주석," 디모데후서, 인터프리터 바이블, 디모데후서 1 장 7 절에서 발췌.)

안나 나이트는 미시시피에서 교육기관, 전도성경학교, 성인반을 시작하여 무지와 가난에 맞서고 인도의 개척선교사로 멀리 모험을 떠나며 남성들만 일하는 곳에서 홀로 부장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p.137]

그녀의 길고 헌신적인 삶의 결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제시 와이즈 커티스는 두 남성의 도움을 받아 천막 사용을 확보했으며 배틀 크릭 대학에서 배우고 H. M. J 리처즈 목사의 설교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천막 안에서 기별을 전하는 능력을 경험했다. 그 결과 오늘날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설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초기 재림교회의 여성 목회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요엘 2:28-32 절을 인용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1890 년대에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1990 년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성령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하고 자제력의 구속하에 충만한 사랑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여성 목회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들을 볼 수 있다. 그들 안에 있는 은사를 부정하라고 요구하지 말기 바란다. 오히려 추수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더 많은 헌신적인 남녀 목회자를 그분의 사업으로 불러 주시도록 기도하자!

[p.138]

blank page

[p.139]

부록 A

문서와 주석

철자법과 구두점에 관해서는 일부 편지가 약간 편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집으로 인해 자료의 논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헬렌 윌리엄스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문서(1 장)

1.1 휴 윌리엄스 목사(헬렌 윌리엄스의 아들)가 녹음한 기억에서 발췌

아버지 유진 윌리엄스는 ... 제가 태어났을 때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헬렌 메이 스탠튼이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셨습니다. 두분 다 배틀 클릭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어머니 헬렌 메이 스탠튼은 연설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외워서 낭독하셨고 재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텔레비전과 쉽게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주가 더 많지는 않아도 재능을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 성공하셨기 때문에 강연자인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유로 목회자가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목회의 문이 더 쉽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셔서 그 당시에 극소수에게만 주어졌던 목사 신임서를 받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목회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벨스 코너스라는 아늑하고 작은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실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1897년 초에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동안 교회 건축을 감독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구세주에 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휴야, 거기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그 아름다운 느낌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 항상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p.140]

아버지는 그 당시에 합회 소속이 아닌 관계로 선교지였던 어퍼 미시간 반도의 일을 감독하는 관리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수세인트마리에서 일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906년에는 아버지도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머니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시카고로 부르심을 받아 그곳의 교회 두 군데를 인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카고의 서쪽에 사는 동안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학교에 다녔습니다.... 링컨 파크에는 지치지도 않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최고의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험블 파크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거북이와 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뱀을 일곱 마리나 키운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1.2 필리스 빈야드가 1985년 7월 22일에 필자에게 보낸 녹음 편지에서 발췌

안녕하세요! 휴의 딸이자 헬렌 윌리엄스의 손녀 필리스입니다.... 할머니는 애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며 많이 안아주는 분은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온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듣기 좋았고 그녀의 매력은 눈부셨습니다....

아버지는 윌리엄스 할머니의 말씀씨와 다채로운 전달 방식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씨가 있으셨기 때문에 늘 강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 그분은 아주 겸손하고 너무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품위가 넘쳤으며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 "너희 할아버지가 다른 일로 너무 바쁘시다 보니 사람들은 내 강연을 듣기 좋아하곤 했고 이내 할아버지의 강연만큼 내 강연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했지. 할아버지가 강연을 하실 수 없을 때는 내가 대신 했고, 알다시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저 끝내시지 못한 내용을 계속 이어 가시거나 할아버지가 강연하실 수 없을 때 대신 하시는 일에 꽤 익숙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수월하게 강연하셨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헤매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목자이신 분을 아시고 있다는 느낌을 풍겼고 그분의 임재와 보살핌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립심이 상당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모험을 겪으셨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남편을 잃으셨으며 홀로 걷는다는 의미를 아셨습니다....

할머니는 설교하실 때 똑같은 단조로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시다....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충격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을 좋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다." 사람들의 생각을 유발하고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조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신 후 이틀 동안 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현지인이 계속 울면서 "부인, 제발 떠나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었고 할머니는 남아서 임무를 마치셨습니다....

[p.141]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나 청년이나 그 누구도 할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 대해 기억하고 싶은 바는 바로 그 점입니다.

1.3 헬렌 윌리엄스의 설교 노트

겸손

1. 하나님은 어디 사시는가? 이사야 57:15
2. 우리는 천성적으로 겸손한가? 로마서 8:7
3.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2:17, 3:6
4.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는가? 로마서 12:1
5.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3:15
6.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삶을 사셨는가? 요한복음 14:8, 9, 1:14
7.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2:7
8. 모든 육체란 무엇인가? 이사야 40:6-8
9.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시편 103:13, 14
10. 모든 사람은 언제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이사야 55:6, 7
11.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요한일서 1:9
12.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시편 103:11, 12
13. 우리가 주님을 찾은 후에 그분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오래 함께 하실까? 역대상 15:2
14. 이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호세아 2:19, 20
15.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사야 40:9
16.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6, 7

17. 그 때는 언제인가? 이사야 40:10, 11, 요한계시록 22:12

1.4 캐서린 윌리엄스의 편지, 1985 년 8 월 3 일

벤튼 박사님께:

선구적인 설교자이자 교사로서 충만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신 저희 시어머니 헬렌 스탠튼 윌리엄스를 연구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헬렌 스탠튼은 지역사회 지도자, 레슬링 챔피언(!), 교회 장로였던 부유한 농부의 딸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보다 더 특권을 누리며 젊은 숙녀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두 자매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헬렌 스탠튼은 평균보다 조금 큰 키에 체격이 크고 당당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 헬렌 메이"라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았고 당시 여성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설교자로서의 성공에 틀림없이 기여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p.142]

1907 년 경에 가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들을 돌며 여행하던 가장은 일사병에 걸렸고, 부인과 10 대 아들 세 명과 젓먹이 아들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헬렌 메이는 가르치고 설교하며 아들들을 기숙학교에 보낸 뒤 아장거리고 걷는 아이를 줄루 족 여성에게 맡기고 씩씩하게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1914 년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댁이었던 저는 부엌일에 서툴렀고 남편[루이스]는 식단을 계획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저를 보며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의 요리 공식이 있어서 특정 음식을 위해 장을 보고 요리하는 최고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음식을 고수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처럼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시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캐서린 D. 윌리엄스

미시간 주 세인트 조셉

미니 사이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문서(2 장)

2.1 W. A. 하우 목사가 1989 년 8 월 5 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헨더슨빌에서 필자에게 보낸 편지

조세핀에게:

... 사이프 부인에 관해서는 제가 여섯 살에서 열살 즈음에 그분이 아이오와 주 디모인 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강연을 하셨던 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제가 보기에 아주 흥미롭고 유쾌한 강연자였습니다. 그분은 많이 웃으셨고 디모인 교인들에게 늘 가족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인턴으로 아이오와 주에 돌아갔는데, 당시 사이프 부인과 함께 일했던 옛 사역자들이 아이오와 합회에서 그분께 안수를 주기로 의결했지만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께 이유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성 설교자가 있다는 자체를 이상하게 느끼기는 커녕 그분이 계셔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흥미로운 분이었고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분이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불평의 소리가 없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느 남성 설교자와 똑같이 강단에 올라 늘 좋은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합회 내에서 그분의 공식 직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집권츠에서 실제로 인정받으셨습니다.(미니 사이프는 아이오와 합회의 국내 선교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트

W. A. 하우

[p.143]

2.2 로렌 무어의 편지

워싱턴 주 알링턴

1984 년 7 월 7 일

조세핀에게:

... 제가 열살 무렵에 계셨던 여성 목회자 미니 사이프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기사를 태평양 연합회 회보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워싱턴 주 엘렌스버그에 있는 루터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계를 옷에 차고 다니시던 모습은 늘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체인을 빼서 시계를 보시곤 했는데 그 시계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분의 시계만이 아닙니다. 그분도 그랬지요. 제가 어리기는 했지만 계속 그분께 관심이 갔고 그분은 제가 들어본 그 어떤 남성의 설교만큼 설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미니 사이프는 1926 년부터 1929 년 사이에 엘렌스버그에 계셨습니다....

조셉 S. (로렌) 무어 부인

2.3 M. J. 소렌슨 박사가 1984 년 7 월 15 일에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서 필자에게 보낸 편지

벤튼 박사님께:

기록관에 올리신 공지와 미니 사이프 부인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이오와에서 보낸 제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니 사이프 부인은 제가 기억하는 한 합회에서 활동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방문하고 부흥회를 열며 침례를 교인을 늘리시느라 항상 바쁘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목회자 안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논란은 아무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헌신적인 봉사는 개인 사역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M. J. 소렌슨 박사 드림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2.4 토마스 E. 더스트가 1984 년 5 월 28 일에 필자에게 보낸 일반 편지

관계자 분께:

제 어머니 릴리안 더스트 부인은 어린 시절이었던 1908 년이나 1909 년 즈음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전임 목회자인 미니 사이프 부인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오랜 세월 저에게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침례를 받으신 장소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사우스다코타 주 하위든의 가축 탱크에서였던 듯합니다.(아이오와 주 하위든은 사우스다코타 주의 경계 쪽에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침례를 받으셨다는 어머니의 간증이 진실하다고 확실히 보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날짜와 장소 등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모든 친구와 이웃의 생일과 기념일을 기억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실 수 있었습니다.

[p.144]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사이프 부인에게 침례를 받으신 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이프 씨가 어떻게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하고 사이프 부인이 어떻게 설교와 목회 임무를 했는지에 대해 어머니는 회상하셨습니다....

토마스 E. 더스트 드림

2.5 에블린 로브슨 파우스트가 캘리포니아 주 세리토스에서 1984 년 7 월 27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

조세핀 벤튼에게:

제가 일곱 살 즈음이었던 1914 년 경 아이오와 주 캐롤에 살았을 때 미니 사이프 부인은 집회 시리즈를 열기 위해 캐롤로 오셨습니다.

제 아버지 오스카 W. 로브스는 매일 밤 세 딸인 제네비브, 비비안, 에블린(저는 에블린입니다)을 집회에 데려갔고(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집회에 끝날 즈음에 재림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재림교인이셨고 딸들은 평생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에블린 로브슨 파우스트

2.6 마리엘 진 블레인이 캘리포니아 주 레드랜드에서 1984 년 7 월 28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

벤튼 박사님께:

... 제 시어머니인 도로시 펠멜더 블레인 키슬러는 열 두세 살이던 1913 년이나 1914 년에 아이오와 주레이크 시티에서 있는 라쿤 강에서 미니 사이프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이오와 주 그랜트 시티에 있는 가족 집의 뒤뜰에 붙어 있는 교회 마당에서 장막집회를 열었던 미니 사이프를 기억하십니다....

마리엘 진 블레인 드림

(시릴 블레인 부인)

2.7 C. 조이 에스테스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1989 년 1 월 16 일에
필자와 한 통화

벤튼: 키슬러 부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에스테스: 저는 도로시의 딸입니다.

벤튼: 어머니가 미니 사이프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에스테스: 네. 사이프 부인은 범상치 않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어머니에게
침례를 주셨어요.

벤튼: 어머니의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요?

에스테스: 도로시 펠멀더였고, 아이오와 주 그랜트 시티라는 작은 마을
출신이셨어요....

2.8 힐다 웨스트 부인이 워싱턴 주 사우스 클 엘룸에서 1984 년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

... 사이프 자매님은 50 년 전 클 엘룸에서 저희의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목회자들의 월급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밖에 나가 저희 책을 파셨습니다. 차가 없던 그분은 몇 마일을 걸어서
수확운동에 가신 뒤 그곳에서 수마일에 걸쳐 저희 신문을 가져다 주려고 걷거나 남의
차를 얻어 타셨습니다.

[p.145]

그분은 아주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라도 평판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클 엘룸을 떠나실 무렵에 아테베리 씨와 결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의 자매

힐다 웨스트 부인

2.9 미니타 사이프-브라운이 플로리다 주 키라고에서 1984 년 10 월 29 일에
필자에게 쓴 편지

... 잭과 저는 로스와 거트루드 헌트 사이프의 자녀입니다....

할머니는 아주 영향력 있고 역동적인 강연자셨습니다....

할머니는 은퇴하셨을 때도 자신이 사랑하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늘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세인트클라우드에 사시는 동안에는 9 마일쯤 떨어진
키시미에서 작은 예배소를 조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 오후마다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예배소 장소로 모이던 오래 된 상점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키시미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잭은 그분이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셨던 실례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접시와 같습니다. 가장자리가 깨지면 접시는 깨집니다....

미니타 사이프-브라운 드림

룰루 화이트먼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문서(3 장)

3.1 J. W. 레이몬드가 룰루 화이트먼의 고용에 대해서 교회 재무 P. 힌네에게 보낸
편지

뉴욕 주 알레가니 카운티 쿠바

1996 년 6 월 16 일

힌네 형제에게:-----

이 편지에서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10 달러를 갖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제가 10 달러를 갖도록 허락하거나 내어주는 일이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라서 제가 요청해야 한다면 유감입니다....

저는 롤라[원문 그대로임](그녀와 남편은 이제 호넬스빌에 있다)에게 그녀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경우 그녀의 봉사에 대한 일부 보수를 받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남편이 올 경우 합회에게 아무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건이라고 썼습니다....

J. W. 레이몬드 드림

[p.146]

3.2 J. W. 레이몬드가 롤루 화이트먼의 편지를 인용하여 P. 힌네에게 보낸 편지
뉴욕 주 로마

[다음은 롤루 화이트먼이 J. W. 레이몬드에게 보낸 편지인데, J. W. 레이몬드가 P. 힌네에게 편지를 쓰며 인용했다:]

레이몬드 형제님:-----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즉시 답장하겠습니다. 저희는 형제님의 천막팀과 함께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남편이 갈 수 없다면 잠시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여름 내내 한가로이 지내며 숙식을 해결할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받을 보수로는 저희 부부가 숙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일요일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잘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천막팀과 기꺼이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저희 사역을 위해 성대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끝; J. W. 레이몬드가 P. 힌네에게 보낸 편지가 계속됨:]

그래서 그녀는 목회직을 시작한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웬지 그러한 절차에 대해 반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같은 편지의 앞부분:]

스토우 자매는 내일 이곳에 올 예정입니다. 천막팀을 오가는 그녀의 여행 경비를 합회에서 부담하는 건에 관해서는 우선 찬성하고, 그런 경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가 사역을 위해 목회자와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합회가 최소한 여행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금룰"은 그 정도까지 요구할 터입니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이 편지는 위에 나온 1896년 6월 16일 편지를 뒤이어 나왔다.]

3.3 화이트먼 부부의 호넬스빌 전도회에 관한 1896년 8월 12일자 뉴욕 인디케이터 기사

호넬스빌

우리는 6월 4일에 이곳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진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 도시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무기력해 보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방향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열심히 일했다. 화이트먼 부인은 20여 차례에 걸쳐 사람들에게 강연했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우리가 확보한 회관이 딱 찼다. 정직한 영혼 세 명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다른 영혼들도 아주 촉망되는 상태이다....

존 S.와 룰루 화이트먼.

3.4 1898년 10월 12일자 인디케이터에 실린 룰루 화이트먼의 소식지

저희는 이번 주에 실버 크릭 마을의 중앙에 있는 G.A.R.[번역자 주: 남북 전쟁 참전 북군을 위한 군인 공제회] 회관에서 새로운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당 2달러에 난방과 전기가 포함되고 널찍하고 카펫이 잘 깔린 회관입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희 남편은 문서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 신문과 소책자를 저희 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내줄 형제가 있으면 이곳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도울 것이며 그들도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p.147]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곳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룰루 화이트먼

3.5 1898 년 11 월 16 일자 인디케이터에 실린 기사

실버 크릭에서 기별을 전한 결과, 두 형제와 두 자매 등 네 영혼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다른 많은 영혼들도 유망한 상태에 있다. 일요일 저녁에 제일 큰 교회에서 연합집회가 열렸고 어느 감리교인이 안식일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나는 참석한 뒤 다음날 저녁에 그 설교를 논평하겠다고 허락하에 알렸다. 우리 회관은 붐볐고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지 못해 돌아갔으며 참석자들은 진리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이제 "죽은 자의 상태"를 소개할 예정인데, 이미 그랬듯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도 분명하다. 거의 설득을 당할 뻔한 사람들은 이 길이 선한 길이며 그 안으로 걸어갈 수 있게 빨리 온전하게 설득 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바란다.

룰루 화이트먼 부인

3.6 존 화이트먼이 뉴욕 주 에이번에서 1904 년 9 월 2 일에 뉴욕 주 로마에 있는 합회장 S. H. 레인 목사에게 보낸 편지

(원문에서 강조)

형제님께:

에덴 센터에 계실 때 화이트먼 부인에게 주당 9 달러의 급여를 주당 7 달러로 자진해서 내리라고 제안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주당 9 달러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당 7 달러를 합회에서 받고 있으며 우리가 한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03 년 감사위원회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서로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의 급여를 더 낮추자고 제안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그 문제를 적절한 시각에서 다루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서너 개의 위원회에서는 와이트먼 부인의 개인적인 사역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안수 목사의 사역으로 간주했지만 그들(언더우드 목사와 다른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낸 다니엘스 형제와 톰슨 형제)이 최소한 지금은 여성이 안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급여를 가능한 한 "안수" 비율에 가깝게 정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 받았고 전반적인 적합함이 모두에게 알려졌으며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주당 9 달러는 여전히 적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는 이전 기준으로 실제로는 주당 5 달러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실 것입니다.

[p.148]

저희가 안수 목사 두 명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확실히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온전히 인도하며 사람이 특권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인 교회를 조직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향, 프레도니아, 가스 스프링스, 윌리스, 카난다이과, 에이본 교회를 확보했고 1896 년에 호넬스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모든 헌금과 기부금 외에 한 해에만 국내 및 해외 사역을 위해 한 번에 600 달러를 보냈습니다...

와이트먼 부인의 수고는 신임서를 받은 목회자로서 주당 9 달러의 가치로 인정되며, 그 사역 자체는 안수 목사의 사역과 같습니다....

형제님께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존 S. 와이트먼 형제 드림

3.7 1909 월 3 월 1 일자 네브라스카 주 저널 3 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

종교 자유 집회

많은 관중을 모은 강연자들이 강당에 오다

일요일 야구에 대한 이야기

캔자스시티의 룰루 화이트먼 부인과

E. T. 러셀

종교 자유에 관한 상세한 강연

간밤에 강당의 수용 인원을 시험한 관중이 모여 종교 자유 단체에서 온 저명한 강연자들의 연설을 들으러 모였는데, 종교 자유의 공공 옹호자인 캔자스시티의 룰루 화이트먼 부인과 중부 주 종교자유협회장인 E. T. 러셀은 종교 자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강연했다....

화이트먼 부인은 미국을 특징짓는 정부의 원칙에 대해 다루었다. 그녀는 특히 교회가 특정 일요일 오락에 대해서 정부를 위해 정해진 법령을 법원이 뒤집은 사례를 많이 언급했다.... 그녀는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주일을 지키는 일에만 시간을 다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나 나이트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문서(4 장)

4.1 그녀의 책 미시시피 소녀 223 페이지에서 인용.

나는 1911 년 이후 내가 한 일에 대해 항목별로 기록해 두었다. 회의에 매달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보고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네 가지 항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나는 회의를 9,388 번 열었고 선교사 방문을 11,744 차례 했다.

[p.149]

내 사역을 위해 편지를 48,918 통 써야 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 554,439 마일을 여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나의 선교지인 인도를 오가는 마일리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곳으로 여행하는 동안의 마일리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시 와이즈 커티스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문서(5 장)

5.1 1927 년 펜실베이니아 주 헤이즐턴 신문 기사

킹스틴 아가씨, 드럼스 인근에서 예배 개최

월크스베리에서 널리 알려진 상인의 딸인 킹스틴 출신의 제시 M. 와이즈 양은 루체른 카운티의 드럼스 근처에서 설교를 도맡아 하는 전도 캠페인으로 그 시골 지역을 감동시키고 있다.

와이즈 양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천막을 마련하고 두 남성의 도움을 받아 C. A. 스트로 농장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별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반경 20 마일에서 온 사람들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자동차가 무려 110 대나 몰리기도 했다.

이는 와이즈 양이 처음으로 연 전도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밤마다 와서 옛날식 준비찬양에 참여하기 위해 제시간에 도착하고 설교예배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성공을 거두었다.

와이즈 양은 오랜 경력의 성직자다운 기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외에는 어떤 교리도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주제 목록은 광범위했다.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는 감리교인, 침례교인, 루터교도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5.2 잭과 조앤 데이비스가 메릴랜드 주 몬로비아에 있는 자택에서 1984 년 8 월 24 일에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발췌.(커티스 부인은 잭의 이모였다.)

벤튼: 커티스 부인, 구칭 제시 와이즈는 목회 사역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잭 데이비스: 그분은 배틀 크릭에 가셨습니다. 배틀 크릭에서 입학시킨 학생 중 그분이 최연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진심에 감명을 받아 받아들였습니다. 14 세에 말입니다. 그분은 당시에 간호사가 되시려고 했지만 이후 목회 사역자로 바꾸셨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 교육자로 불렸습니다.

벤튼: 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그분에게 급여를 잘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빠듯했을 텐데요.

잭 데이비스: 그분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에는 급여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1927 년에 전도회를 여셨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스에서 전도회를 여셨을 때 자신의 소유지에 천막을 치게 해준 농부가 그 땅을 기부했고, 천막이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스에 있는 드럼스 교회입니다.

[p.150]

벤튼: 그분이 어떻게 전도회를 열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잭 데이비스: 그분은 성경 사역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참여시키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도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기도하신 후 열심히 사역하신 결과 멋지게 이루어졌습니다.

벤튼: 드럼스에서 첫 전도회를 여셨나요?

잭 데이비스: 네. 그분은 80 명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조앤 데이비스: 그분은 체계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은 설득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으셨어요.

잭 데이비스: 그분은 위풍당당한 분이셨습니다.

벤튼: 이모께서 목회자라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잭 데이비스: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벤튼: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조앤 데이비스: 정말 그랬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분을 거의 존경하다시피 했어요.

잭 데이비스: 저는 이모의 운전기사로 일하곤 했습니다. 도표를 걸기도 했고 우리가 집이나 회관에 갈 때 입체 환등기나 다른 형태의 슬라이드 기계를 작동시키곤 했습니다.

벤튼: 이때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다른 곳에도 있었나요? 어떤 장소가 있었나요?

잭 데이비스: 텅크해녹, 헤이즐턴, 버윅이었습니다. 그분은 보몬트 교회와 몬트로스 교회 건축을 도우셨고 월크스베리로 가셔서 스크랜턴을 도우셨습니다.

조앤 데이비스: 저쪽[커티스 부인의 성경]을 보세요-----그분의 필체입니다.

"1964 년 9 월-10 월. 천막 비용 5,000 달러. 부지 비용 2,000 달러." 오, 킹스톤이군요!

벤튼: 커티스 부인의 지도하에 교회에 나오셨나요?

조앤 데이비스: 네. 부모님과 제가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저는 열두 살이었어요. 다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처음 성경을 가르치셨고 나중에 그분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시곤 했는데 아주 명쾌하셨어요. 그분의 설명은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벤튼: 그 집회들은 어디서 했나요?

조앤 데이비스: 몬트로즈에서 했어요.

잭 데이비스: 그분이 그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벤튼: 그분의 집은 어디였나요?

잭 데이비스: 월크스베리에서 북서쪽으로 9 마일 떨어진 곳에 리먼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벤튼: 그렇다면 그분은 사역을 하러 돌아다니시면서도 기본적인 집을 가지고 계셨나요?

잭 데이비스: 그렇습니다.

조앤 데이비스: 그분의 집에서 항상 차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었지요. 그분은 긴 거리를 여행하셨지만 밤이 되면 늘 집에 가실 수 있었어요.

[p.151]

벤튼: 그분은 한 번도 운전을 배우신 적이 없나요?

잭 데이비스: 네, 한 번도 운전을 배우시지 않았습시다. 50 세에 커티스 씨와 결혼하셨을 때는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있었습시다.

벤튼: 그때가 첫 결혼이었나요?

잭 데이비스: 그분의 처음이자 유일한 결혼이었습시다. 그분이 결혼하신지 5 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습시다.

조앤 데이비스: 그분은 몬트로즈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곤 하셨어요. 50 마일 정도 거리였는데 그분은 버스를 타시곤 했어요. 그러다가 마을에 사는 어느 가정의 그분을 차에 태워 집으로 모시고 가기도 했지요. 아이들은 그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잭 데이비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혹은 열차 사고나 비행기 추락 사고 등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관해 오려 낸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며 곧 재림하실 주님과 연관 지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다음날에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설교문을 읽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벤튼: 젊은 인턴들이 그분과 함께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대총회 목회부장이었던 다우어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잭 데이비스: 네, 다우어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젊고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내 케이가 기억납니다. 아주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이모의 지도하에 인턴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리의 일부분이나 화잇 자매의 저서에서 이탈하는 목회자들을 회복의 목적으로 이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이 회복시킬 수 있는 목회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조앤 데이비스: 그분은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겁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유머감각도 있으셨어요.

벤튼: 그분은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사신 듯하네요.

조앤 데이비스: 네, 그분에 대해 잘 설명하셨어요.

잭 데이비스: 그분은 옷도 잘 입으시고 항상 멋진 정장과 옷과 모자를 차려 입으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쪽으로 기우셨습니다.

조앤 데이비스: 그분은 당당하게 아름다운 여성이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돋보이셨지요.

잭 데이비스: 그분은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벤튼: 그분을 인생을 만끽할 줄 아셨던 분 같네요. 이제 감동을 받으셨던
이 설교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잭 데이비스: 그분은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설교하셨으며 이 세상의 때가 가까웠음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이모는 모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p.152]

5.3 제이 밀턴 호프먼이 캘리포니아 주 밸리 센터에서 1989 년 10 월 4 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

벤튼 박사님께:

네, 저는 제시 와이즈가 제시 와이즈 커티스로 되기 전에 그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설교자였으며,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누군가 그분에게
유대인 남성이 아내와 교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제를 바꾸어 70 주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제시 와이즈 커티스는 훌륭한 설교자였고 제가 처음 교인이 된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스의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제 아내 트루디와 저는 동시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J. M. 호프만 박사 드림

추신. 저는 뉴욕 시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 센터에서 20 년 동안 담당자 겸 전도자로
일했습니다.

5.4 바네타 와이즈가 펜실베이니아 주 드럼스에서 1985 년 7 월 27 일에 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 알려준 안수 시도의 일화

[필자의 요약] 제시 와이즈 커티스의 올케인 바네타 와이즈는 어느 해에 동부 펜실베이니아 캠프 미팅에 갔다가 목회자들의 연례 안수예배 때가 되었는데 제시 커티스는 즉시 목회자용 천막으로 오라는 긴급한 요청이 시끄러운 스피커로 방송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커티스 부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녀를 찾아오라며 바네타 와이즈를 보냈다. 바네타는 형제들이 제시에게 안수를 주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시를 찾으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 없이 안수예배를 드렸다.

나중에 다시 온 제시는 안수를 받거나 이미 맡은 책임보다 더 큰 일을 맡고 싶지 않다며 바네타에게 전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침례 준비를 시키고 남성 목회자들이 와서 침례를 베풀도록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했다.

엘렌 지 화잇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문서(7 장)

7.1 놀라운 영적 경험: 엘렌 화잇의 선정된 내용, 엘렌 지 화잇 자서전(마운틴 뷰, 캘리포니아: 퍼시픽 출판사, 1915 년), 69-71.

그러나, 나에게 제시된 이 과업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며, 시도해 본다 해도 실패할 것이 분명한 듯하였다....

나는 나에게 엄습하는 책임감에서 놓이기 위해 죽기를 갈망하였다....

내가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십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나를 에워쌌던 짙은 흑암이 걷히고 갑자기 빛이 내게 비치었다. 불공처럼 보이는 무엇이 바로 내 심장 위를 때렸다.... 나는 천사들의 임재 가운데 있는 듯하였다. 이 거룩한 천사들 중의 하나가, "내가 네게 보여 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하였다.

[p.153]

류머티즘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피어슨 옹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나는 결코 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불공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엘렌 하몬 양의 심장 위를 맞추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 이제 후로는 우리가 그대를 도울 것이며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7.2 어린 헨리를 친구들에게 맡겨야 했던 일, 자서전, 120.

또다시 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헨리와 함께 사는 것을 희생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전적으로 사업을 위해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신임하는 하우랜드씨 가정에 헨리를 맡겼다. 그들은 우리가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러 떠날 수 있도록 그 부담을 즐겨 맡았다....

아들과 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5년 동안이나 하우랜드씨 가족은 헨리를 전적으로 맡아 키웠다. 그들은 한푼도 받지 않고 그에게 모든 옷까지 해 입혀 키웠으며, 나는 한나가 사무엘에게 한 것처럼 일년에 한 번씩 그에게 선물을 갖다 줄 뿐이었다.

7.3 사역을 위해 두 아이를 잠깐 떠나야 했던 희생, 자서전, 131-32.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그날 밤에 절망감이 나를 엄습하였다. ... 나의 어린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다. 2년 8개월 된 아이는 메인 주에 떼어놓고, 생후 9개월 된 다른 아이는 뉴욕 주에 맡겨 놓았다. 우리는 방금 많은 괴로움을 겪은 지루한 여행을 마친 후라서, 나는 단란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는, 바로 며칠 전에 어느 자매가,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이 홀가분하게 마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유쾌할 것이라고 표현한 말을 상기 하면서 나의 지난 생애를 회고해 보았다. 나의 생애는 바로 그 자매가 매우 좋아할 만한 생애였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나의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다. 특히 뉴욕에 떼어 둔 아기 생각이 더 났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한 키 큰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게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번민을 말하며 "나는 별로 좋은 일도 못하는데 왜 내가 내 자식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까?"라고 했더니, 천사는 "너는 아름다운 꽃 두송이를 주님께 드렸다. 그 향기는 주님 앞에 달콤한 향연과 같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은금보다 더 값진 것인데, 이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이다."

7.4 1898 년 4 월 21 일에 엘렌 화잇이 "어윈, 에반스, 스미스, 존스 형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발췌

이 여성들은 남편이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온 시간을 들이고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면 그런 모든 결정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만큼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제가 내는 십일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을 찾고 영혼을 얻는 목회자들의 사역과 같은 선상의 일을 위해 이 십일금을 따로 남겨 둘 예정입니다.

[p.154]

신실한 여성들에게도 목회자들이 받는 급여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7.5 엘렌 화잇의 신임서에 대한 필자의 기록

1884 년 연감에 신임서를 받은 목회자들의 명단을 신기 시작할 때부터 엘렌 화잇의 생애가 끝난 1915 년까지 그녀는 안수 목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책을 집필하기 몇 년 전에 나눈 대화에서 일부 교회 행정자들은 엘렌 화잇이 안수 목사로 신임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안수를 받았고 손을 얹는 형태의 세속적인 확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 교회 지도부 때문에 그녀가 안수예배에 참여하여 목회를 위해 구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에게 안수 목사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 목사로 신임서를 주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 사안에 상관없이 그녀의 신분은 오래 동안 안수 목사였다. 1885 년에 그녀의 목회 신임서에는 "안수"라고 흐리게 표시되어 있지만 1887 년 신임서에는 "캘리포니아 주 힐즈버그에 있는 E. G. 화잇 부인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갖춘 안수 목사임을 증명한다."고 명시한다.

[p.155]

부록 B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여성 목회자들의 부분적 명단

1884 년-1975 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총회 기록보관소와 조세핀 벤튼 엮음

[left column]

1884¹

대총회

안수² E. G. 화잇 부인

캔자스

인준² R. 힐 부인

H. 에녹 부인

미시간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E. B. 레인 부인

G. K. 오웬 부인

[right column]

미네소타

인준 안나 M. 존슨

리비 콜린스

1885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캔자스

인준 H. 에녹 부인

미시간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E. S. 레인 부인

G. K. 오웬 부인

1. 1884 년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여성 목회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라 A. 홀록 린지(9 장 참조)는 1872 년에 목회 신임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 명단을 엮기 위해 대총회 기록보관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회자 명단은 1884 년부터 시작된다. 이전 남녀 목회자는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2. 초기 공식 명단에서 사용한 용어는 안수 목사의 신임서를 보유한 사람들을 "목회자," 목회 신임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인준 목회자"였으나 이후 연감에서 해당

범주를 "안수 목회자"와 "인준 목회자"로 바꾸었다. 이 목록에서 사용한 후자의 제목은 여성 목회자들의 이름이 나타난 범주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p.156]

[left column]

1886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일리노이

인준 아이다 W. 히벤

캔자스

인준 해티 에녹

미시간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E. B. 레인 부인

G. K. 오웬 부인

1887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캔자스

인준 해티 에녹

루이 힐

미시간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E. B. 레인 부인

G. K. 오웬 부인

버몬트

인준 S. E. 피어스 부인

1888

알라바마/미시시피

인준 루이 힐

캘리포니아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G. K. 오웬 부인

캔자스

인준 해티 예녹

[right column]

미시간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E. S. 레인 부인

G. K. 오웬 부인

위스콘신

인준 해티 예녹

일반 현장

안수 E. G. 화잇 부인

1889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알라바마/미시시피

인준 루이 힐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G. K. 오웬 부인

미시간

인준 E. S. 레인 부인

1890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G. K. 오웬 부인

캔자스

인준 루이 힐 부인

1891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G. K. 오웬 부인

캔자스

인준 루이 힐 부인

[p.157]

[left column]

1892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J. A. 오웬 부인

캔자스

인준 루이 힐 부인

1893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J. A. 오웬 부인

아이오와

인준 플로라 플러머 부인

캔자스

인준 루이 힐 부인

1894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J. A. 오웬 부인

캔자스

인준 루이 힐 부인

뉴질랜드

인준 마가렛 카로 부인

1895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J. A. 오웬 부인

[right column]

뉴욕

인준 S. A. 린지 부인

어퍼 컬럼비아

인준 루이 힐 부인

뉴질랜드

인준 마가렛 카로 부인

1896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J. A. 오웬 부인

뉴욕

인준 S. A. 린지 부인

어퍼 컬럼비아

인준 루이 힐 부인

뉴질랜드

인준 마가렛 카로 부인

1897

대총회와 오스트랄라시아 연합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J. A. 오웬 부인

어퍼 컬럼비아

인준 루이 힐 부인

뉴질랜드

인준 마가렛 카로 부인

1898

대총회와 오스트랄라시아 연합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S. M. I. 헨리 부인

[p.158]

[left column]

캘리포니아

인준 J. A. 오웬 부인

뉴질랜드

인준 마가렛 카로 부인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어퍼 컬럼비아

인준 루이 힐 부인

1899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S. M. I. 헨리 부인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어퍼 컬럼비아

인준 루이 힐 부인

영국 합회

인준 이디스 바틀렛

뉴질랜드

인준 M. 카로 부인

1900

대총회와 오스트랄라시아 연합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해티 H. 하스켈 부인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어퍼 컬럼비아

인준 R. 힐 부인

영국 합회

인준 미니 로빈슨

[right column]

뉴질랜드

인준 M. 카로 부인

1901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아이오와

인준 G. R. 호킨스 부인

미시간

인준 E. R. 윌리엄스 부인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유타

인준 캐리 V. 한센

1902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그레이트 뉴욕

인준 S. N. 하스켈 부인

아이오와

인준 G. R. 호킨스 부인

(미시간) 수피리어 대회

인준 E. R. 윌리엄스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오클라호마

인준 미니 사이프(Syp)³

³성의 철자가 이후 사이프(Sype)로 바뀌었다.

[left column]

1904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애리조나

인준 J. E. 본드 부인

아이오와

인준 G. R. 호킨스 부인

(미시간) 수퍼리어 대회

인준 E. R. 윌리엄스 부인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오클라호마

인준 미니 사이프

사우스다코타

인준 베르타 E. 조르겐센

핀란드 대회

인준 알마 비디크

1905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레이크 연합회

인준 E. R. 윌리엄스 부인

애리조나

인준 J. E. 본드 부인

아이오와

인준 G. R. 호킨스 부인

뉴욕

인준 롤루 화이트먼 부인

오클라호마

인준 미니 사이프 부인

[right column]

사우스다코타

인준 베르타 E. 조르겐센

핀란드

인준 알마 비디크

1906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레이크 연합회

인준 E. R. 윌리엄스 부인

애리조나

인준 J. E. 본드 부인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오클라호마

인준 미니 사이프 부인

와이오밍

인준 G. R. 호킨스 부인

1907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아이오와

인준 미니 사이프 부인

엠마 호킨스 부인

뉴욕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1908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p.160]

[left column]

캘리포니아

안수 J. S. 화이트먼 부인

아이오와

인준 G. R. 호킨스 부인

미니 사이프 부인

노스다코타

인준 베르타 조르겐센

1909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호킨스 부인

센트럴 연합회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아이오와

인준 G. R. 호킨스 부인

미니 사이프 부인

노스다코타

인준 베르타 조르겐센 부인

1910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센트럴 연합회

인준 룰루 화이트먼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S. N. 하스켈 부인

아이오와

인준 G. R. 호킨스 부인

미니 사이프 부인

네브라스카

인준 우라 스프링 부인

필 필드

[right column]

노스다코타

인준 베르타 조르겐센 부인

1911

대총회

안수 E. G. 화잇 부인

인준 H. H. 하스켈 부인

캘리포니아

인준 S. N. 하스켈 부인

아이오와

인준 엠마 호킨스 부인

미니 사이프 부인

노스다코타

인준 베르타 조르겐센 부인

케이프 식민지

인준 E. R. 윌리엄스 부인

1915

대총회

인준 H. H. 하스켈 부인

아이오와

인준 미니 사이프 부인

1920

그레이터 뉴욕

인준 엠미 웰스

아이오와

인준 미니 사이프 부인

미주리

인준 E. F. 호킨스 부인

노스다코타

인준 미나 파나숙

북부 캘리포니아

인준 엘라 H. 오스본 부인

[p.161]

[left column]

1925

일리노이

인준 E. 플로 호킨스 부인

북부 캘리포니아

인준 엘라 H. 오스본 부인

서부 워싱턴

인준 미니 사이프 부인

동부 중국 연합대회

인준 B. 밀러 부인

1930

북부 캘리포니아

인준 엘라 H. 오스본 부인

오레곤

인준 펄 스탠포드

북부 텍사스

인준 블라 랭던

H. 에더 부인

1935

동부 중국 연합대회

인준 B. 밀러 부인

호페이 대회(중국)

인준 루시 앤드루스

1940

남부 연합회

인준 M. 사이프-아테베리 부인

1945

남부 연합회

인준 M. 사이프-아테베리 부인

[right column]

동부 펜실베니아

인준 제시 커티스 부인

1950

동부 펜실베니아

인준 제시 W. 커티스 부인

1955

북부 태평양 연합회

인준 미니 사이프 크리핀 부인

동부 펜실베니아

인준 제시 W. 커티스 부인

1960

센트럴 연합회

인준 W. H. 앤더스 부인

퍼시픽 연합회

인준 메리 E. 월시

조지아-컴벌랜드

인준 메리 버덕 부인

루시아 H. 리 부인

켄터키-테네시

인준 프리다 포드 부인

엠마 필립스 부인

J. W. 빌헬름 부인

포토맥

인준 에드나 J. 카디 부인

메리 색스턴

1965

센트럴 연합회

인준 W. H. 앤더슨 부인

[p.162]

[left column]

태평양 연합회

인준 메리 E. 월시

포토맥

인준 에드나 J. 카디 부인
 로이스 메이스 부인
 줄리아 로스 부인

1970

컬럼비아 연합회

인준 에드나 J. 카디 부인
 제시 커티스 부인

[right column]

켄터키-테네시

인준 해리 웨컴 부인
 필 닐 부인

포토맥

인준 로이스 메이스 부인

1975⁴

센트럴 연합회

인준 W. H. 앤더슨 부인

태평양 연합회

인준 메리 E. 월시

포토맥

인준 조세핀 벤튼 부인

⁴ 현재(1990 년) 연감에는 여전히 인준 목사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여성 목회자를 다른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여성 목회자 목록이 없다. 따라서 이 목록은 1975 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p.163]

1990 년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여성 목회자의 안수 문제에 관한 결의
여성 목회자의 안수 승인건에 관해 1881 년에 논의된 대총회 결의안

리뷰 앤 헤럴드

배틀 크릭, 미시간, 1881 년 12 월 20 일

U. 스미스, 상주 편집장

J. N. 앤드류스, 부편집장

대총회 사업 절차 (계속)

제 5 차 회의, 12 월 5 일, 오전 10 시-----기도: 러프버러 목사, 지난 회의록 낭독 및
승인.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여성들은 완전한 타당성을 가지고 기독교
사역을 위해 안수를 받음으로써 구별될 수 있다고 결의한다.

이 결의는 J. O. 코리스, A. C. 부르도, E. R. 존스, D. R. 램슨, W. H. 리틀존, A.
S. 허친스, D. M. 캔라이트, J. N. 러프버러가 논의하여 대총회 위원회에
회부했다.(대총회 위원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

1990 년 제 55 차 대총회 회기

여성 목회자 안수 미승인

1989 년 연례협의회가 권고한 대로 여성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보고와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다: ...

1. 위원회는 성경과 엘렌 지 화잇의 저술이 여성 목회자의 안수를 명백하게 지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 자료들은 여성을 위한 중요하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사역을 긍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다양하고 확장되는 은사를 통해 증거된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결론지었다.

[p.164]

2. 또한 세계교회에서 여성 목회자의 안수에 대한 폭넓은 지지 부족과 더불어 교회의 분열, 불화 및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여성 목회자의 안수를 승인하지 않는다.(투표 결과: 찬성 1,173, 반대 377)

-----애드벤티스트 리뷰, 1990 년 7 월 13 일, 15.

승인하는 지회에서만 특정 인준 목사 및 위임 목사의 결혼식 집례 허용
교회요람 59 페이지, 결혼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한다:

결혼식.-----결혼 예식에서 행하는 결혼 위탁 명령, 서약 또는 성혼 선언을 하는 일은 안수목사만이 할 수 있다. 단 교회 장로로 안수 받은 전도사/인준목사나 위임목사의 경우 지회 행정위원회가 인정한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애드벤티스트 리뷰, 1990 년 7 월 19 일, 10.(여성 목회자의 침례에 관한 1989 년 연례협의회 의결은 변함이 없다. 135 페이지 참조.)

1995 년 대총회 회기에서 부결된 제안

1995 년에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열린 대총회 사업 절차에서는 목회자의 안수에 남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지회가 자체 영역에서 결정하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이 북미지회에서 제기되었다. 그 발의는 7 월 5 일에 부결되었다.

북미지회장 알프레드 C. 맥클루어 목사는 이렇게 썼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는 1995 년 8 월 3 일에 북미지회의 모든 목회자와 행정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가 이 미묘한 시기를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거나 선교의 방향을 다르게
틀면 안 됩니다."

컬럼비아 연합회, 2004 년에 대총회를 상대로

여성 안수 문제 재검토 요청

컬럼비아 연합회는 2004 년 5 월 17 일에 완전한 안수를 여성 목회자에게 확대하는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대총회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 문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p.165]

9 장에 제시한 여성 목회자들의 신임서 발급

9 장에서 제시한 대부분 여성 목회자의 신임서는 소속 합회나 연합회에서 발급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연감에 기재된 위임 목사 신임서이다.

북미지회의 승인된 사목도 위임 목사 신임서를 받을 수 있다.

9 장에 나오는 여러 여성 목회자들은 지역교회의 특별 안수예배나 지역합회의 안수-
위임예배에 참여했다.(아래 참조)

지역교회와 합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안수 및 안수-위임예배

지역교회에서 거행하는 안수예배

1995 년 7 월 5 일에 위트레흐트에서 열린 대총회 사업 절차에서 북미지회가 여성
목회자의 안수를 허용하게 하지 않기로 의결한 후 합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교회들은
여러 여성에게 안수했으며, 이 안수는 해당교회에서만 여성의 목회에 영향에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95 년 9 월 23 일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거행한 안수예배

1995 년 9 월 23 일에 포토맥 합회 소속 슬라이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는
여성 세 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안수를 받았다. 그들은 켄드라 할로비악(18 페이지
참조), 노마 오스본(123 페이지 참조), 페니 셀(126 페이지 참조)이다.

1995년 12월 2일에 로마린다 빅토리아 교회와 라 시에라 대학교회에서 거행한 안수예배

(두 교회는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 소속이다.)

교인 200여명으로 구성된 로마린다 빅토리아 교회의 유일한 목회자인 셰릴 맥밀한은 1995년 12월 2일 오전 11시 예배 중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라 시에라 대학교회에서는 매들린 할데만과 할시온 윌슨의 안수예배를 거행했다. 당시 라 시에라 대학교회의 목사였던 댄 스미스 목사는 그의 교역자들이 모두 평등하게 섬겨야 한다고 믿었고, 할시온 윌슨은 15년 동안 라 시에라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¹

로렌스 게라티 박사는 매들린 존스-할데만을 안수자로 소개했다. 그는 매들린이 30년 넘게 라 시에라 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미시간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두 번째 여성이었다.

[p.166]

안수 목사들과 교인들은 안수 기도에 참여하려고 통로를 따라 줄지어 내려왔다.²

1996년 캘리포니아 주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거행된 안수

1996년 7월에 캘리포니아 주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부목사 마고 피트롤과 자레드 폴턴이 안수를 받았다.

1997년에 로마린다 대학교회에서 안수예배가 있었다.

마가렛(페그) 햄프는 1970년대에 빌 러브리스 목사의 지도하에 로마린다 대학교회의 선구적인 여성 목사로 섬겼다. 페그는 오래 동안 부목사로 섬겼으며 1997년에 로마린다 대학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성 목회자의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낸 햄프 목사는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젊은 여성들의 귀감으로서 섬겼다.

합회들이 채택한 남녀 목회자 동등 신임서

2002년 3월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는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끝에 남녀 목회자 동등 신임서는 안수-위임 신임서를 채택했다. 이내 애리조나 합회도 동일한 신임서를 채택했다. 2002년 5월에 북부 캘리포니아 합회는 여성 안수 재고를 요청하는 발의를 총회에서 통과시켰고, 수정안을 통해 북부 캘리포니아 합회가 남녀 목회자를 위한 동등한 신임서를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성들은 합회에서 목회하는 남성들과 함께 안수-위임 신임서를 받았다. 남성 목회자들은 함께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들이 가질 수 없는 지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9장에(위에 언급한 합회 중 한 합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포함된 여러 여성 목회자들은 안수-위임 신임서를 가지고 있다.

¹ 할리 월슨은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남동부 캘리포니아 합회에서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합회장 보조로 여전히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² 매들린 존스-할데만은 2005년 1월 28일에 사망했다.